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연구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연구

2010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연구 / 허명숙, 이해숙, 임지원. -- 전주 : 전북발전연구원, 2010
p. : cm. -- (Jthink ; 2010-PR-08)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6612-013-0 93330 : 비매품

지역 복지 서비스[地域福祉--]

338.9-KDC5
361.8-DDC21

CIP2011001195

연구진

연구책임 허명숙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소장
연구원 이혜숙 ·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원 임지원 ·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이상록 ·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배인재 · 진안군 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준홍 ·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센터장
박경수 · 사회복지협의회 전북지부 사무처장
김평섭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복지서비스 담당
김성주 ·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이연숙 · 노인종합복지관협회전북지회 회장
최낙관 · 예원예술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연구관리 코드 : 10JU27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I. 연구개요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최근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세계적 사조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음. 사회정책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거버넌스 체계의 강조 그리고 지방화·분권화의 추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변화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2005년 재정분권을 수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007년 바우처사업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가시화 됨
-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를 통한 고용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의 바우처사업을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1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하여 8개 바우처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경쟁을 통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 아래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음. 지역선택형 사업은 정부가 개발한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하는데 비해서, 지역개발형은 지자체가 지역맞춤 방식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국비확보가 가능하며, 정부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따라서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전라북도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그 대상이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지역별 또 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보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획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한 지역주민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욕구를 중심으로, 도민의 욕구를 반영하면서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개발형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분석

- 전라북도와 타 시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특성 및 현황 관련문헌 검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국내외 동향 자료 검토
- 각 지역별 사회복지계획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관련 행정자료의 검토
- 내부 문서와 통계자료 검토

○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분석

- 전라북도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잘 되고 있는 시군과 잘 되고 있지 않는 시군(도시형, 농촌형)으로 지역을 분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공급자(공무원, 제공기관)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욕구 및 수요, 지자체 역할, 경제 활성화, 바람직한 개발모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함

○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사회복지서비스 활동가, 담당 공무원 등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포커스

- 그룹 인터뷰를 2차례 실시함. 1차 인터뷰를 통하여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사항, 신규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범위와 표집대상을 확정했음. 2차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서비스 유형과 모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학계 및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 관련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착수 및 최종 자문회의를 열어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II. 연구결과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가. 사회복지 여건변화와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로의 편제

- 권리로서의 복지에 맞는 복지전달체계 중요
 - 경제성장에 따라 도민들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있음. 복지욕구는 다양화와 양적인 확대에서 머물지 않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시혜적 복지보다는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음
 - 더구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 미흡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외계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복지전달체계도 중앙집중식과 칸막이식에서 지방화와 개방화로 개편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체계가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사회복지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맞는 지방

자치단체 자체적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복지 종합평가, 복지예산의 지방비 투자확대 요구 등 지자체의 복지역량 강화와 지방화 추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전망 속에서 전라북도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수의 복지제도 도입 등 복지예산 확대와 새로운 정책수립 등으로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미미한 수준임
-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비지원액에 대응하는 시군비 지원액을 늘리는 등 사회복지 여건 변화와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로의 편제를 꾀하고 있음

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진단과 시사점

○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미흡

- 전북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급이 부족하며,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흡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음
- 전국적으로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북지역의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임
- 보편적 서비스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사회투자형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특히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방문보건·정신건강, 만성병 관리 등 공공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해서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투자가 부진함

○ 서민·중산층의 낮은 구매력 등 유효수요 부족

-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고, 잠재수요가 큰 서민·중산층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비함. 구매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서비스 정보 부족 및 품질에 대한 신뢰 미흡으로 서비스 구매에 소극적이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효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사업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병행하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중산층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그럼으로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수요자 중심, 복지분권 그리고 사회서비스 산업화 등의 정책가치들을 드러낼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 폭을 넓히기 위해 가격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설계하여 예산 총액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관리 방식이 개발되어야 함
-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제공 대상이 최빈곤층에 머물러 있는데, 광범위한 인구 층으로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가미한 예방적 접근의 복지확대가 필요함

○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 형성 여건 미흡

- 공공의 재정지원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보조 형태로 이루어져 수요자 욕구 반영이 어렵고 시장이 창출되는 것에 어려움이 따름.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창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이용자 또한 적어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인력 등 효과적 전달체계 미구축

-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사회서비스의 합리적인 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국가 품질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제도가 발달되지 못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임
- 전북지역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서비스 내용에서도 전문성보다는 1차적 복지수준에 머물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다. 산업화를 향한 조건- 복지 관점에서 시장 관점으로

○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관점 정립이 전제조건

- 시장성을 표방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높이는 역할을 했음. 그러나 아직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관점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시장과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음
- 첫째,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품질 묶음이 개발되어야 하며 둘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조건이 형성되어야 함. 셋째, 상품 품질관리와 경쟁시장에서 역량 있는 공급자들이 육성될 수 있어야 하며, 복지의 관점이 아닌 사회서비스 시장의 관점에서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자부담을 납부하면서도 소비의사가 있는 실질적인 시장 수요자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건전한 공정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수단들이 모색되어야 함. 이에 비추어 전북지역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장화·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1년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전북지역의 특성과 시·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함

라.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

○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줄여야

- 분권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구성과 사업 운용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함. 지자체의 사업운용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과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상호학습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어 중앙집권 방식에서 발생하는 과잉복지 혹은 과소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그러나 지자체의 사업개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재정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지역 격차라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
-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선호에 따라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로 평균 이용률이나 평균가격 그리고 자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기반이 취약한데 비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운용해왔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등 시·군의 사업운용 역량 강화가 요구됨

2. 정책 제언

가. 제도 보완 및 기구의 필요성

○ 지자체 지원 정책 및 전문성 강화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의 비용과 내용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사항들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스스로 설계·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됨으로써 지자체별로 사업운영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음
- 전북지역에서도 지자체의 관심 및 담당자의 역량,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 간 편차 등에 시군 간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지역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재원확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담당공무원의 인식개선과 전문성 강화, 품질 향상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함. 공무원·제공기관 담당자들의 홍보 및 열의 부족 또한 사업의 비활성화 요인으로 지적됨

○ 전북도의 역할 강화- 재원 마련과 사업 개발, 시군 조율

- 전북도민들은 전라북도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국비에 시군 재정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질과 이용자 부담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북도가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평가함
- 전라북도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전 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그리고 사업개발 경험이 적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프로그램 모델’을 도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 도 또는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 가격이나 본인부담 비율, 서비스 수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는 한 방안임. 전북도가 중앙부처의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적

비스들을 설계하고 복지 취약지역에 도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을 통하여 좀 더 적합한 서비스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치,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사 배치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업규모와 활성화 정도가 달라짐. 따라서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에만 조직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전담 행정조직을 전라북도 내 시군 지역에 설치한다면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고, 주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지역서비스관리센터 또는 지원단과 같은 전문, 자문기구 설치가 요망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사업의 품질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지역서비스관리센터는 컨설팅 기능을 하는 외에 유관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역할을 담당함
-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 중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나 치매 또는 자활사례관리사와 같이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출하여 시군에 배치하는 것도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대안으로 여겨짐

○ 정부의 역할 조정 및 개선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 지속기간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제공기관이나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점, 기존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가용 재원만으로 신규사

- 업을 심사 승인한 점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공식화된 정부 간 복지관계로 정착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분절적이고 일시적인 특수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신청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음
- 정부는 우수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기관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사업을 통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하여 다른 관할구역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우처 가격을 달리 설계하여 원가보상을 높여 다른 지역 복지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거나, 민간 복지기관이 아닌 지역 내 농협, 축협, 우체국, 편의점 등과 같은 다른 유사기업에서도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규제를 완화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함

나.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보편적 서비스권 확대

○ 후원금 등 재원 마련 다양화

-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연 후원이 서비스 활성화의 한 방법임. 또한 지자체의 재정력이 열악하여 시·군비 부담 능력이 없는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특례조치를 통하여 100%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는 것도 한 방법임. 민간기업의 후원금 등을 시·군비 부담으로 대체 인정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함
- 특히 농촌지역은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부담금 경감조치가 반드시 필요함. 이에 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은 본인부담금을 높인다고 해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이용자가 많으므로 사업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각 해당 제공기관들이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별 재원마련 방식을 다양화 하거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함

다.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 2010년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72개소로,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다름
- 또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38%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차상위층 이상의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공기관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전북지역 제공기관들이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력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점 등은 서비스 발전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함
- 서비스 제공기관의 역량과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하는데,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이 더 많은 수요자와 제공자를 창출하고 팬층은 일자리로 이어지기 쉬움

○ 관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원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전주와 김제, 부안, 진안 등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의 경우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대우나 여건에 만족하고 있으며, 수입화(시장화)할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사업으로, 2년 이상 경력자 중심의 사회적 기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볼만 함
- 또한 설문 결과를 보면 수요자(여성/아동)와 공급자 모두 여성 비율이 높은 점에 비추어 서비스 잠재인력인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확대한다면 고용창출과 인력의 전문성을 현재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돌봄서비스에서 여성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유사사업을 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관철은 여성 일자리로의 연계가 요구됨

라. 사업 개발과 품질 향상

○ 지역특성 감안한 사업 선정부터 우선돼야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욕구를 수용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임. 그런데도 사업의 계획과 채택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와 지역의 한계점들이 노출되고 있음
-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의 특성이 인정되는 심사 제도가 요구되며, 자원이 희소하거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권역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함
- 전북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도내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1차로 전라북도에서 시군 사업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전라북도가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조율하는 것과 함께 중앙을 상대로 한 설득력이 요구됨

○ 다문화가정 아동 역전현상에 대비한 사업 발굴

- 도내 농촌지역의 일부 면단위 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아동이 급증하면서 일반가정 아이들이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진안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 기관 중에는 현재 다문화가정 아동대상 사업을 하면서 일반 저소득층 아동들을 포함해서 운영하고 있음
- 조만간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

○ 도시형과 농촌형 맞춤형 사업,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들과 농촌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음. 방과 후 학교 돌봄서비스는 도시지역 수요가 높는데 비하여 농촌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도시와 농촌 모두 청소년 대상의 상담서비스 수요가 많았지만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부진함.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멘토링서비스, 진로탐색, 맞춤형 직업관련 체험활동 등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 이밖에 장애아동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장애인 대상 야학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 대상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함

○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발

- 지역사회투자서비스의 욕구를 대상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돌봄), 방과 후 보육, 아동안전, 방과 후 교육 순의 욕구를 나타냄.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심리치료, 보육, 특수교육,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 순으로 욕구가 있었음. 청소년은 상담, 학교사회복지, 영어학습지원, 폭력 예방 순이었으며, 여성은 자녀 돌봄, 자기 개발, 직업능력 개발, 고용지원 순의 욕구를 나타냄. 노인은 노인 일자리, 돌봄, 건강관리, 재가서비스 순으로 욕구가 표현되었으며, 특별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문화 학습, 직업능력 개발, 방문 학습의 욕구를 나타냄
- 이러한 욕구와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 일자리, 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됨

○ 유망서비스 중점 육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징은 지역의 복지서비스 환경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데 있음. 앞으로 이 사업에서 잠재 수요가 크지만 공

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를 선정,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음

-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되,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 중점사업으로 밝힌 인적자본 개발(아동발달지원), 건강투자(노후생활지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 양성 사업 주력해야

- 지역의 복지 유관 기관과 시설 등에서 라이프 코칭, 은퇴 후 생애설계 분야 등에서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함. 바우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작업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지역의 전문서비스 제공자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지자체와 제공기관들은 양성된 전문 강사들이 안정적인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함

라. 촘촘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 결론적으로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은 서비스 제공내용과 방식에서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때 도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선택권이 향상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를 산업화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촘촘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개선방향〉

제공 내용	대상	보편성 확대	소득: 서민층 겨냥 계층: 청소년·장애아동(도시) 여성(농촌)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	인재양성: 전문인력 배출 활용 생애설계 등 질 높은 프로그램 운용
		지속률 제고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 이용자 만족도 향상
제공 방식	사업 개발	도, 시군단위 공동개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장성: 제공기관 간 경쟁 이용자 부담금 감소
	전북도 역할	도비 지원	시군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사업 선정률 향상 등 변화
	기구·조직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수준 향상 복지만족도 제고	시군 행정조직 전담기구 설치 도 단위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지원단) 설치 시군별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자 배치 민·민, 민·관 협력네트워크 결성

목 차

제 1 장 서 론	3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3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방법	6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11
제 1 절 사회서비스 개관	11
1. 사회서비스의 개념	11
2.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12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13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및 체계	15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15
1) 의의 및 특성	15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17
3)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19
2.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20
1) 지역개발형 사업의 주요 전개과정 내용	20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체계	21
3) 사업지침 변경	23
4) 사업 범위	23
5)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의 변화 추이	25
6) 이용대상 선정의 우선순위 현황	25
7) 전국 시도별 사업수 현황	26
제 3 절 전북지역사회 자원 현황	27
1. 인구 현황	27
2.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8

3. 사회복지 시설별 현황	29
4. 지역사회 사회적 자원 현황	30
5.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욕구분석	31
제 4 절 경기·전남·전북지역 사회복지 비교	33
1.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2010년 복지에산 현황	33
2.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회복지 자원현황	34
3.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및 시사점	35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39
제 1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39
1. 연도별 서비스 현황	39
1) 2007년 - 30개	39
2) 2008년 - 35개	40
3) 2009년 - 33개	41
4) 2010년 - 39개	42
2. 연도별 이용대상 현황	43
3. 선정대상 우선순위	44
4. 공급가격과 본인부담금 현황	45
5. 서비스참여 제공기관 유형	47
6. 서비스 지속 현황	48
제 2 절 2010년 전북지역 서비스투자사업	53
1. 개요	53
2. 개발형사업 시군 세부 서비스 내용	53
3. 조사대상 8개 시·군 개발형사업 표준서비스 유형별 분포	55
4.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모신청 탈락 및 제외사업	56
제 4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61
제 1 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
2.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	61
3. 공급자의 일반적 특성	63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건분석	65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수준	65
2.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보편성과 수요자 중심성	67
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이용 실태	75
제 3 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별·지역별 욕구분석	80
1.	일반 아동	80
2.	장애아동	82
3.	청소년	84
4.	여성	86
5.	노인	88
6.	특별가정 서비스	90
제 4 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방향	92
1.	바람직한 개발모형	92
2.	개발되어야 할 시급한 분야	94
3.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94
4.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97
제 5 장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모델 개발	101
제 1 절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진단	101
1.	서비스 대상의 보편성 부족-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 편중	101
2.	사업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전문인력 활용 사업 빈약	102
3.	전국평균보다 지속률 낮음- 제공 서비스와 고용 불안정	103
4.	광역단위 개발사업 부족- 전북도의 역할 강화 필요	104
5.	지역역량 개발 미흡	105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108
1.	모델명 : 사람과 일 그리고 통합과 번영모델	108
2.	각 영역별 신규 사업	110
1)	사람(생애주기별 서비스) 영역	111
2)	일(괜찮은 일자리) 영역	114
3)	사회통합 영역	118
4)	번영(산업화) 영역	120
3.	각 영역 신규 제안사업	121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127
1. 사회복지 여건변화와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로의 편제 ...	127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진단과 시사점	128
1)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미흡	128
2) 사회서비스 시장 미형성	129
3. 산업화를 향한 조건: 복지 관점에서 시장 관점으로	130
4.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	131
제 2 절 정책 제언	132
1. 제도 보완 및 기구의 필요성	132
1) 지자체 역량 강화	132
2)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보편적 서비스권 확대	135
2.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36
1)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136
2)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137
3. 사업 개발과 품질 향상	137
1)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137
2) 맞춤형 서비스 개발	140
4. 촘촘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42
 참고문헌	 145

표 목 차

<표 2-1>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	12
<표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예산 현황(2007~2010년)	16
<표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변경 내용	17
<표 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기존 서비스 차이	17
<표 2-5> 복지전달체계 변화	18
<표 2-6>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 사업 비교	20
<표 2-7> 주요 전개과정 내용	21
<표 2-8> 지역개발형 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	23
<표 2-9> 지역개발형 사업 범위 설정의 변화	24
<표 2-10>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의 변화 추이	25
<표 2-11> 연도별 우선순위의 변화추이	26
<표 2-12> 시도별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수 현황	26
<표 2-13> 전라북도 인구 현황	27
<표 2-14> 지역별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28
<표 2-15> 사회복지시설 관련현황	29
<표 2-16> 전라북도의 사회적 자원현황	30
<표 2-17>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타난 지역 욕구 분석	32
<표 2-18>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2010년 복지예산 현황	33
<표 2-19> 복지대상자	34
<표 2-20> 생활시설	35
<표 2-21> 이용시설	35
<표 2-22> 경기, 전남, 전북지역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2007~2010년)	36
<표 3-1> 서비스 이용대상 현황	43
<표 3-2>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	43
<표 3-3> 우선순위 현황	44
<표 3-4> 연도별 우선순위의 변화 추이	44
<표 3-5> 연도별 소득구분의 변화추이	45
<표 3-6> 공급가격 현황	45
<표 3-7> 연도별 공급가격 변화 추이	46

<표 3-8> 본인부담금 현황	46
<표 3-9> 연도별 본인부담금 변화 추이	46
<표 3-10> 서비스 제공기관 수 현황(2010.5월 기준)	47
<표 3-11>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현황(2010.5월 기준)	47
<표 3-12>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세부사항(2010.5월 기준)	48
<표 3-13> 사업의 지속 및 중단 현황(2007~2010년)	49
<표 3-14> 연도별 시군 사업수 현황	52
<표 3-15> 전북지역 서비스투자사업 개요	53
<표 3-16> 지역개발형 시군별 사업분포 및 세부 서비스 내용	53
<표 3-17> 2010년 8개 시·군 개발형사업 표준서비스 유형별 분포	55
<표 3-18> 2010~2009년도 전북 시군별 공모 탈락사업 현황	56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1
<표 4-2>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	62
<표 4-3> 공급자의 일반적 특성	64
<표 4-4> 이용자의 사회서비스사업 인지도	65
<표 4-5> 지역별 이용자의 사회서비스사업 인지도	66
<표 4-6>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66
<표 4-7> 이용자의 바우처 제도 인지도	67
<표 4-8> 공급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운영 실현 정도	68
<표 4-9> 공급자의 사업 운용·참여시 애로사항	69
<표 4-10> 공급자가 바라보는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요성 정도	70
<표 4-11> 수혜자격기준 설정·운용에 대한 공급자의 의견	70
<표 4-12> 전북지역의 가장 취약한 사회서비스 분야	71
<표 4-13> 전북지역의 투자사업의 품질 정도	71
<표 4-14> 사회기반확충 효과 창출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	72
<표 4-15> 공급자가 바라보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충사항	73
<표 4-16> 비영리 민간기관들이 영리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	73
<표 4-17> 비영리 민간기관들의 실업해소 기여 예측	74
<표 4-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 영업이윤 확보 정도	74
<표 4-19> 공급자의 적정한 월평균 급여정도	75
<표 4-20> 이용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지 방법	75
<표 4-21> 이용자의 투자서비스 신청 당시 공감 정도	76
<표 4-22> 이용자의 투자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감 정도	78
<표 4-23>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의향	79

<표 4-24> 일반아동(영유아포함)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81
<표 4-25>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83
<표 4-26>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85
<표 4-27> 성인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87
<표 4-28>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89
<표 4-29> 특별가정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91
<표 4-30> 바람직한 개발 모형	93
<표 4-31>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개발·공급되어야 할 분야	94
<표 4-32>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95
<표 4-33> 공급자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96
<표 4-34>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 필요사항(중복응답)	97
<표 4-35> 공급자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 필요사항(중복응답)	98
<표 5-1> 사람(생애주기별)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112
<표 5-2> 일(괜찮은 일자리)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116
<표 5-3> 통합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119
<표 5-4> 반영(산업화)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121
<표 5-5> 각 영역 신규 제안사업	121
<표 6-1> 도시와 농촌 타킷 서비스	139
<표 6-2> 이용자가 원하는 대상별 서비스	139
<표 6-3>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분야	140
<표 6-4> 촘촘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개선방향	142

그림 목 차

<그림 1-1> 연구단계 및 방법	8
<그림 5-1> 사람과 일 그리고 통합과 번영 모델	109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사회서비스의 공급체계에 대한 세계적 사조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또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정책에서의 통합적 접근과 거버넌스 체계의 강조 그리고 지방화·분권화의 추진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 같은 변화는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면 개정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확대, 2005년 재정분권을 수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 2007년 바우처사업의 도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가시화 되었다.

특히 2005년 재정분권을 수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과 관계의 변화, 재정의 공급자 지원에서 이용자 지원으로의 변화, 서비스 재정의 보험방식 도입 등의 변화가 나타났다. 그동안 중앙정부가 국고 보조 사업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지침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단순히 이를 집행하거나,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해 시설운영비를 지원하면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변화를 꾀한 것이다.

여기에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를 통한 고용창출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정책목표를 세우고 2007년부터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바우처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지역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지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역사회의 역량에 따라 바우처사업의 성패가 달려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가 2007년 8월부터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등 현재 시행 중인 다른 7개의 바우처사업¹⁾보다 지역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

1) 2010년 현재 보건복지부가 시행중인 바우처사업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 지원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임신출산

스 경쟁을 통한 질 좋은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이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아래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나눠 시행되고 있다. 지역선택형 사업은 정부가 개발한 서비스를 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선택해서 시행하는데 비해서, 지역개발형은 지자체가 지역맞춤 방식으로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통한 국비확보가 가능하며, 정부지원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²⁾ 따라서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주민의 수요를 파악해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그러나 매년 예산이 유동적이며 선정기준과 사업기간 또한 일정하지 않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가 불투명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모두 불안정한 문제점이 있다. 전라북도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지역별·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간이 비교적 짧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들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는 서비스 공급여건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군지역이 많기 때문에 공급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유효 수요 창출이라는 바우처 방식의 이점을 살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용자 측면에서도 이용자 선호의 반영과 선택권 확대라는 바우처 방식의 이점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는 한편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진료비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그리고 보육서비스 등 8개이다. 2009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육서비스는 사회서비스와는 성격이 다른 바우처사업으로 분류된다.

2)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국비 지원액이 2007년 727억원, 2008년 870억원, 2009년 820억원, 2010년 1,100억원이다. 충청북도는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실시 후 다양한 사업 발굴로 국비 확보액을 늘렸다. 전라북도의 경우 국비가 2008년 40억6200만원에서 2010년 51억7500만원 지원에 그쳤는데 비하여 충청북도는 2008년 국비 27억2000만원에서 2010년 53억6200만원으로 크게 증액되었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전북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를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래의 선행요건들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먼저 사회서비스는 어떠한 정책적 목표를 갖고 누구에게 공급하느냐는 선택이 요구된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양질의 자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과제인데 양질의 인력 공급의 가능 여부가 특히 중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공급량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도 중요한 사항이며, 사회서비스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지역의 인구구조와 사회적 위험요인, 지역의 욕구, 지역의 자원과 인프라 발달 정도, 계층별 서비스의 수요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접근성의 보장과 품질의 보장이 핵심인데 접근성의 보장을 위해서는 가용자원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며, 시군 재정능력, 기존 시장규모, 이용자들의 비용 지불 능력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시 상기 요건들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전라북도의 지역 특성과 도내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가 개발되었는지, 특히, 도내 기초자치단체 간 상이한 자원 분포와 재정 여건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들의 다양한 욕구의 충족이 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기 정책의 핵심 목표 중 하나인 지역 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요 창출에 부합되는 서비스 사업이 개발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효율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전라북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반적 사회욕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욕구와 만족도, 서비스 공급자의 욕구와 만족도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의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전라북도 도시와 농촌지역 특성에 맞고, 이

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신규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을 두며, 이에 따른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기초통계

-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특성 및 현황 관련문헌 검토
- 타 시도 사업 현황 및 유형 관련문헌 검토
- 서비스 수요와 공급 차이 등을 검토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관련 국내외 동향 자료 검토
- 각 지역별 사회복지계획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관련 행정자료의 검토
- 내부 문서와 통계자료 검토

(2) 설문조사

-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로 나눠서 실시, 제공자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 주체가 되는 공급기관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용자는 서비스의 주요 대상으로서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거나 이용한 경험이 있는 저소득층과 아동의 부모, 노인,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 전라북도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잘 되고 있는 시군과 잘 되고 있지 않은 시군(시지역= 도시형, 군지역= 농촌형)으로 지역을 분류, 서비스 제공 기관 수와 이용자 수를 감안하여 수행
- 도내 서남권에 비해 동부권이 사회복지가 대체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점을 감안, 선정지역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은 다시 1권역(완주 진안 장수 무주)과 2권역(임실 순창 고창 부안)으로 분류
- 이와 같은 분류에 따라 도시형(군산-김제, 전주-익산)과 농촌형(완주-부안, 임실-장수)의 8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전체 배포된 설문지 360부(공급자와 이용자 각 180부씩) 가운데 공급자는 179부(회수율 99.4%)

이용자는 176부(회수율 97.7%)가 회수되어 355부를 최종분석에 활용

〈표 1-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 분	공급자		이용자		합계	
	배포	회수	배포	회수	배포	회수
도시형	100	99	100	96	200	195
농촌형	80	80	80	80	160	160
합 계	180	179	180	176	360	355

- 자료의 분석은 SPSS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초통계자료를 얻기 위해 기술통계, 빈도분석, 평균비교분석 등을 활용

(3) 포커스 그룹 인터뷰 및 자문회의

-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선정지역의 사회복지서비스 활동가,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2차례 실시
- 포커스 그룹 1차 인터뷰를 통해서 수렴된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사항, 신규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토대로 설문지 구성 및 조사 범위와 표집대상을 확정했으며, 2차 인터뷰를 통해서 설문조사 분석 결과에 따른 서비스 유형과 모델 발굴에 대한 의견을 수렴
- 학계 및 사회복지현장 전문가 및 활동가, 관련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착수 및 최종 자문회의를 열어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



〈그림 1-1〉 연구단계 및 방법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현황

- 제 1 절 사회서비스 개관
-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및 체계
- 제 3 절 전북지역사회 자원 현황
- 제 4 절 경기·전남·전북지역 사회복지 비교

제 2 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현황

제 1 절 사회서비스 개관

1. 사회서비스의 개념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이다. 201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8년 기준으로 복지와 관련한 사회적 공공지출은 GDP 대비 6.9%로, 조사대상 35개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꾸준한 복지지출의 확대가 요구되며, 최근에는 특히 사회서비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서비스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소득이전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소득이전은 없으나 가족의 기능을 보완 내지 대체하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고 그를 통해 다른 가구원의 경제활동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회서비스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득보장 정책보다 훨씬 더 다면적인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칠 수 있다(남찬섭, 2009).

보건복지부(2010)는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를 공공행정(일반 행정, 환경, 안전), 사회복지(보육, 아동, 장애인, 노인보호), 보건의료(간병, 간호), 교육(방과후 활동, 특수교육), 문화(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운영)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며, 집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회적으로 인정되고, 개인과 국가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국가 혹은 지역서비스라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의 두 가지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다. 공급측면의 정책목표는 사회서비스를 통한 고용 창출이며, 수요측면의 정책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다(김용득, 2009).

2. 사회서비스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의 변화, 핵가족화 등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가족, 특히 여성에게 과도하게 의존해왔던 비공식 돌봄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여 돌봄의 시장화 내지 사회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여기에 양극화의 심화·확산이 상대적 취약계층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사회적 위험 등 환경변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해지면서 사회서비스 수요를 가속화하고 있다.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계층,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시장에서의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므로 구매력 보전 등 공공의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빈곤층 전략을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 사회경제의 양극화, 근로 빈곤층(working poor)으로 대표되는 신빈곤층의 확산으로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는 인적 자산과 사회기반에 대한 사회적 투자야말로 빈곤의 세습을 방지하고 사회이동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27.6명)가 서비스업 평균(20.5명)은 물론 제조업 평균(12.1명)을 상회하여 자체 고용창출 효과가 크므로 특히 여성 등 저소득층 고용취약계층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서민생활 안정 및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회적 필요성을 배경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의 사회서비스를 추진해왔다.

〈표 2-1〉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유발효과

(단위 : 10억원당 명)

구분	사회복지서비스업	서비스업	전산업	제조업
취업계수	27.6명	20.5명	16.9명	12.1명

* 취업계수 :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수 (자영자 + 무급가족 포함), 한국은행 ('08년)

3.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사회서비스는 2007년 바우처 방식이 도입되면서 급속히 확대되는 등 본격화되었다.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들이 개방된 시장에서 서비스를 현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금전을 지불해주는 방식이지만, 바우처 카드를 통해 증서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점을 혼합하는 원리로 구성된 급여방식이다(최재성·김용득·이혜경, 2000). 이것은 서비스의 수요자를 보조하지만, 서비스는 인프라를 소유한 민간부문에 의해 제공되게 한다. 이 방식은 소비자의 자유도를 높이는 장점을 갖는 한편 소비자에게 압력을 가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저비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들에 몰리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창출한다(김진, 2005).

바우처 방식은 이용자 선택을 늘려주고 공급자 경쟁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높이고 시장성을 갖는 등 변화된 복지패러다임을 반영하므로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바우처 방식의 목표 또는 기대효과는 크게 다음의 여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선택과 효율성의 진장이다. 선택은 바우처의 장점을 논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며, 바우처는 자신에게 부여된 금액을 자신의 기호에 따라 선택하게 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추구한다. 둘째, 선택과 형평성의 강화이다. 바우처는 사회적 약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부유한 사람들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형평성의 이슈와 관련이 있다. 셋째, 경쟁의 강화이다. 바우처는 공급자들 간의 경쟁강화를 통해서 서비스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선호된다. 넷째, 기존 프로그램의 대체이다. 기존 프로그램이 비효과적이거나 비효율적이고,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어려운 경우에 바우처 방식의 도입을 통해서 기존 프로그램의 대체를 시도할 수 있다. 다섯째, 선택범위의 제한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용을 특정영역에 제한하고자 할 때 현금지급 방식 대신에 바우처가 사용될 수 있다. 기초보장을 위한 현금급여에서 사용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바우처를 통하여 식품구매 등의 특정영역에 선택을 제한할 수 있다(김용득, 2009).

바우처 방식의 효과성 여부는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상황이며, 시장상황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다. 첫째, 공급자들 간의 경쟁수준이다. 바우처 방식이 효과를 가지려면 이미 공급되어 있는 서비스가 일정한 수준의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동일 종류의 서비스인 경우에도 도시와 농촌지역의 공급상황이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공급이 빈약한 농촌지역의 경우 이 방식의 적용이 좀 더 어려울 수 있다. 둘째, 가격에 대한 바우처의 영향이다. 상품이나 서비스에 바우처가 도입되면 이 영역에 대한 수요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고, 이는 가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가격의 증가는 공공지출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 셋째, 수요자의 선택능력이다. 서비스 수요자는 능력과 자원 면에서 공히 취약하기 때문에 선택에 관련된 정보가 합리적인 접근성을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 정보접근에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지의 문제, 수요자가 정보에 접근하는데 심각한 능력제한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역선택의 가능성이다. 바우처를 통한 선택의 증진 의도는 개인의 차별적인 능력과 욕구에 따라 공급자가 특정 바우처 이용자를 기피하는 등의 역선택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다섯째, 현금과의 대체가능성이다. 바우처는 특정 대상에게 서비스나 상품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서비스 영역에 따라 현금과 대체되는 가능성이 높아지면,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김용득, 2009).

바우처는 시장적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 측면에서 세계적인 복지패러다임의 변화와 부합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2007년 3월 사회서비스관리센터가 설립되고 같은 해 4월부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신청을 접수받으면서 개시되었다. 역시 같은 해인 7월에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³⁾의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으며, 2008년 2월과 9월, 10월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과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출산전진료비지원사업이 그리고 2009년 9월 보육서비스 등이 순차적으로 실시되었다. 2007년 당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은 경제성장

3) 2009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보편형사업이 지역선택형으로, 지역맞춤형은 지역개발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통하여 새로운 고용영역을 개척하고, 이와 함께 전통적인 공급자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방식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가 결합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고 할 수 있다(김용득, 2009). 보건복지부의 바우처 사업은 2010년 현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장애아동재활치료서비스, 보육서비스 등 8개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 갖는 공통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지외연의 확대와 새로운 서비스 영역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둘째, 전통적이고 구빈적 영역에 제한된 정부의 재정지출이 새로운 욕구와 일반적 영역으로 투입되어 복지의 대중화라는 의미가 있다. 셋째, 공급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재정지출의 흐름을 이용자 중심의 체계로 이전시키는 시험적 동력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김용득, 2009).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및 체계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념

1) 의의 및 특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전통적 돌봄서비스 영역에 대한 바우처 제도의 실시와 함께 지역의 참여와 주도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 선택 향상과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의 정책목표를 공유하면서 지역사회 역량개발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정책목표를 추가하였다. 이런 면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지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영역을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아이템을 선택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의 대상과 제공방식에 있어서도 최빈곤층으로 제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광범위한 인구 층으로 확대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가미한 예방적 접근의 복지로 복지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행 3년을 거치면서 지역별로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시도되지 못했던 다양한 사업영역을 발굴하는데 기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응도 과거의 수동적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보다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적극적인 서비스 선택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지역 경제에서 영세한 사업분야에 대한 투자효과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김용득, 2009).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새로운 사회복지 영역 개척과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예를 들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경우 당초 지역개발형 사회복지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었으나 전국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확인되어 2009년부터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지원과에서 관장하여 보편적 서비스로 보급하고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총 사업비는 국비 지원에 시도 또는 시군구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1,100억원(국비)을 매칭 투자(서울 50%, 시·도 70%, 신활력지역 80%)하는 조건으로 지자체에 경상보조하며, 각 지자체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신규 사업 선정 여부 등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다.

〈표 2-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국비예산 현황(2007~2010년)

(단위: 개, 억원)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수	252	310	539	587
국비예산	727	870	820	1100

〈표 2-3〉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변경 내용

기존 방식	새로운 방식
① 공급자 지원	① 수요자 지원(바우처 방식)
② 단일한 제공기관	② 복수의 제공기관
③ 중앙정부의 직접 가격 결정	③ 시장, 경쟁을 통한 가격 결정
④ 중앙집중식 · 하향식	④ 지방분권식 · 상향식(공모형)
⑤ 소규모 기관별 지원	⑤ 규모의 경제를 통한 산업화

〈표 2-4〉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기존 서비스 차이

	기존 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수요 · 욕구	기초적 욕구, 절대적 빈곤 (빈곤 · 질병관련 사회안전망 구축)	상대적 욕구, 상대적 빈곤 (인적자산 및 사회기반 투자)
대응방식	국가 최저기준 설정, 특화된 서비스, 소수의 전문복지기관 중심	보편적이며, 지역 · 계층별 서비스, 다양한 제공기관 참여
개발 · 운영	중앙정부 중심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 중심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1)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중·고령 여성, 청년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것인데 보건복지부는 2009년 이 사업을 통해 12,910명(청년사업단지원사업 7,290명 제외)이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또 다른 성과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서비스 및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점을 들 수 있다.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전국, 만2~6세), 은퇴후 생애설계 서비스(광주, 원주)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유효수요 창출을 통한 사회서비스 신규시장을 형성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2009년부터 별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지원바우처는 2008년 77억원에서 2009년 293억원의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고,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이용자수 역시 2007년 8월 3만명에서 2009년 10월 22만명으로 확대되었다.

(2) 수요자 중심 복지전달체계(바우처 방식)의 장점 적극 활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복지 수요자의 지위를 소극적 복지수급자에서 능동적 서비스 구매자로 강화시켰다. 바우처 방식을 통해 복지수혜자의 서비스 선택권, 소비자 주권이 강화되었고, 지불·정산업무 전산화로 지자체 행정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중앙정보 집적체제로 사업실적 실시간 파악이 가능해졌고 행정비용이 감소하였다. 실제 지불 소요기간이 이전 종이바우처가 1~2개월 걸렸던 것에 비해 전자바우처 시행 후 5일 이내로 단축되었으며, 신규 공급기관 설치 없이 민간자원을 활용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표 2-5〉 복지전달체계 변화

	공급기관 지원방식	수요자 지원방식
지원방법	민간단체 보조금	바우처
공급기관	단일기관 독점	다수 기관 경쟁
서비스 대상	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 중산층
본인부담금	전액 국가지원	일부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시간	공급기관 재량	대상자 욕구별 표준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기초적인 사회복지서비스와 달리 서비스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에서의 시장 일자리 창출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서비스는 적정 이윤을 창출하기 힘든 분야가 많아 시장에서는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다(이재원, 2008).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사업들은 지역단위별로 다양한 개인별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재정 기능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직 지방자치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못하는 자치실패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3)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크게 지역선택형과 지역개발형으로 나눌 수 있다.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나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 등 전국단위 공급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하여 시행하는 지역선택형 사업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여 시행하는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선택형 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제공하지 않은 사각지대나 사업잠재력(시장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아동인지력 향상서비스와 아동건강관리서비스를 해왔으며, 2010년에는 아동인지력 향상서비스만을 시행 중이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발굴하여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김용득, 2009). 사회서비스의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편적 복지를 구현하는 목적 외에도 지역사회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저소득 무직가구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도모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2008년 9월까지 79개 사업이 신규로 발굴된데 이어 2010년 현재 394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⁵⁾ 지역개발

4)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청년사업단 사업을 바우처로 완전히 바꾸고 가능한 지역개발형에 포함해서 수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5) 보건복지부가 2007년 8월 시작될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자체개발형사업에 176개를 선정하고, 220억의 국고를 지원하게 됐다고 보도(이은실기자, 조은뉴스, 2007.7.3)됐지만, 김용득(2009)은 개발형사업 수를 2007년 305개, 2008년 332개, 2009년 272개라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침에는 지역개발형 317개, 청년사업단 220개로 적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2010년 2월 신규로 137개 사업을 선정, 2010년 2월 기준으로 개발형 지역

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다양한 방법으로 설계하여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전체 구성내용이 확정적이지 않고 연단위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유연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지역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이 다양하고 대상이나 가격도 상이하게 결정되기 때문에 사업관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표 2-6〉 지역선택형 및 지역개발형 사업 비교

구분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
사업 개발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자체 역할	사업 선택	사업 개발
제공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지자체	지자체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사업 성격	서비스 수요가 비교적 고르고, 전국단위 공급이 용이한 사업 위주	서비스 수요의 지역 편차가 크고, 전국단위 공급이 어려운 사업 위주

* 2010년부터 취업 취약계층인 실업 청년 일자리 확대와 취약한 사회서비스 개발·확충을 위해 청년사업단 지원사업을 지역개발형 사업에 포함하여 추진

2.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1) 지역개발형 사업의 주요 전개과정 내용

지역개발형 사업은 2006년 11월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2007년 3월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 제시되고 6월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신청 및 접수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 서비스를 개시하였다. 2008년은 지역맞춤형, 2009년은 지금의 지역개발형 사업으로 명칭이 확정되어 공모를 시행하여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사업수는 전북지역 36개를 포함해서 전국 394개라고 밝혔다. 이처럼 동일년도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매년 1회 심의위원회에서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지속여부를 판단하지만, 신청자가 없는 등의 이유로 제공기관에서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지자체에서 추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군구 또는 시도 공동개발사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1개 사업으로 계산하는 것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각 시군구별 사업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숫자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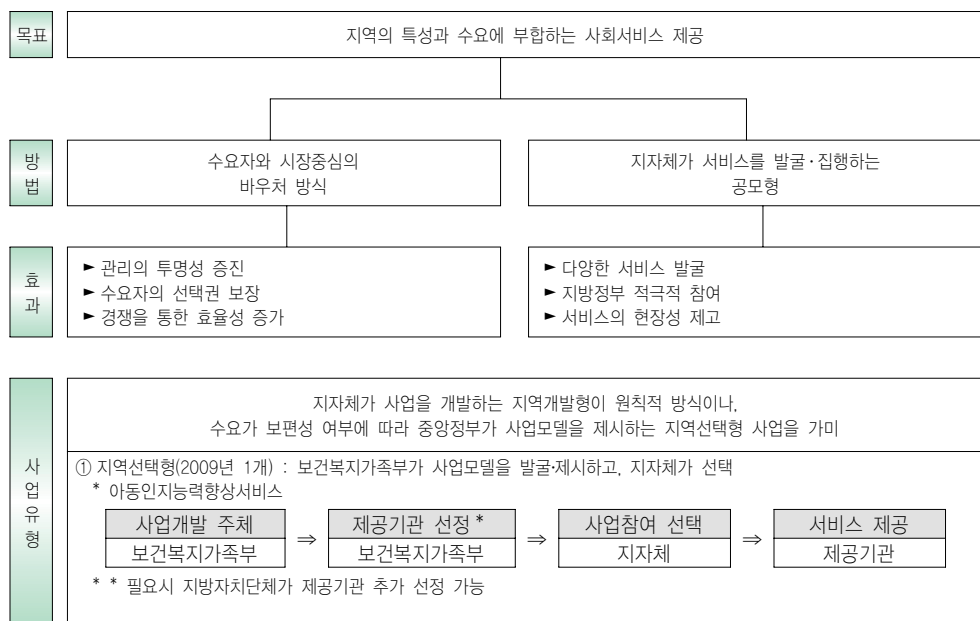
〈표 2-7〉 주요 전개과정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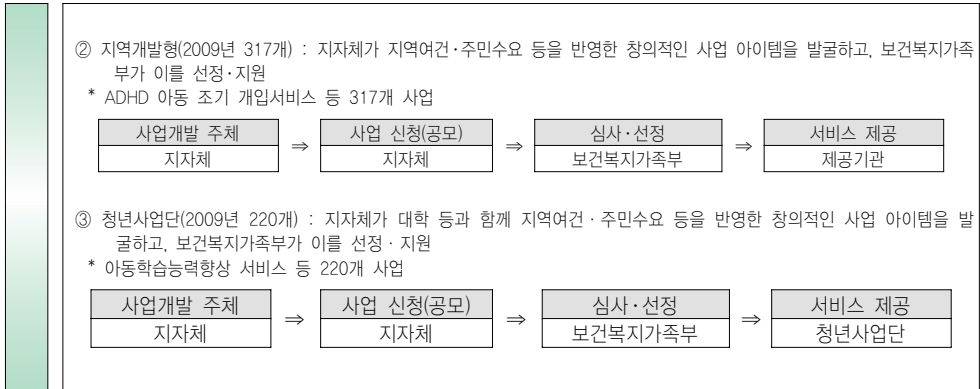
(단위 : 명, %)

일정	주요 내용
2006.11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수요 예비 파악
2007. 1	시민·중산층이하 15만명 대상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 계획발표
2007. 3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에 가이드라인 제시
2007. 6	자체개발형 176개 신규사업 선정 및 지원 - 시행 첫 해 총 411개 사업 신청·접수 (12월말 기준, 총 312개 사업 시행)
2007. 7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배포, 대상자 신청 접수
2007. 8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서비스 개시
2008. 7	2008년 지역맞춤형 신규사업 공모 (10월말 기준, 총 307개 사업 시행)
2009. 1	2009년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 (4월말 기준, 총 272개 사업 시행)
2009. 3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특화·전환 - 특화·전환 대상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사업 65개 사업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추진 체계





추진현황

구분	예산(국비)	지원인원 (2009.12월)	종사자수 (예산상)	제공기관
지역선택형	450억원	215천명	7,772명	12개
지역개발형	370억원	40천명	5,138명	830개
청년사업단	375억원	147천명	7,920명	220개
계	1,195억원	402천명	20,830명	1,100개

자료: 보건복지부,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공모사업 절차는 크게 1차 도 차원 선별, 2차 복지부 선별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공모계획이 발표되면 시군 및 제공기관 사업계획 협의·수립하고 시군 사업 참여 결정 및 제출 과정을 거쳐 도가 검토·선별한 후 복지부에 응모한 후 최종적으로 복지부 심의위원회 개최(사업결정)의 절차를 밟는다.

3) 사업지침 변경

〈표 2-8〉 지역개발형 사업안내 지침의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소득 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 원칙	좌동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 가구 원칙	좌동 4인가구 3,913천원
	4인가구 3,532천원	단, 평균소득 인상에 따른 금액조정: 4인가구 3,705천원	단, 장애인 및 노인대상 사업은 평균소득 120%이하 적용 가능	좌동
	서비스성격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 자율조정기능(보편형야동투자바우처 제외)	좌동 7인이상 가구소득 기준 추가	서비스성격 등을 감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 등 관련자료 제출 시 조정 가능	
판정 유효 기간	회계연도 기준 (2007.12.31까지)	사업별·개인별 자격기간 기준(서비스개시월+대상자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원칙	좌동 지역개발형 최대 1년 원칙, 단 특별한 경우 재판정 통해 지원기간 1회 연장 가능 ※동일사업 기이용자의 경우 해당사업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종료 후 재진입 불가	좌동
본인 부담액	서비스가격의 10~15%	서비스가격의 20%이상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가격의 20%내외로 하되, 차상위, 취약계층 등 10%미만 설정 가능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서비스가격의 20%내외로 하되, 차상위, 취약계층 등 10%내외 설정 가능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	매 분기 보건복지가족부 보고(시도)	좌동	지자체가 정한 성과지표에 따라 제공기관이 성과측정 후 반기별 보건복지가족부 보고(시도)	보건복지부가 정한 성과지표에 따라 지자체가 성과측정 후 반기별 보건복지부 보고(시도)
지불 정산	단말기 제공 일부 무상보급(사업선택 시군구당 1개)	단말기 전액 제공기관 부담	좌동	좌동

자료 : 보건복지부(2008·2009·20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자료 재구성

4) 사업 범위

지역개발형 대상 사업범위는 매년 변경되었는데 2007년에는 아동의 교육과 건강 등의 인적자본형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성인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2008년에는 보편적이고 지역적 특수욕구에 기반을 둔 사업을 바탕

으로 하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시장화·산업화 할 수 있는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2009년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분류하였다. 2010년에는 기존사업을 11개의 주요 유형별 표준화 모델로 재편하되, 지역 여건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2008년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재활지원서비스로 제공되던 사업이 2009년 3월부터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로 특화·전환되었다. 사업명이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로 일괄 변경되고, 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18세미만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으로 통일, 작업치료와 물리치료는 제공 서비스에서 제외되었다. 서비스가격은 16만원 내외로 조정, 본인부담금 20%이상으로 하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내외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2010년 하반기 주요 사업들은 표준서비스 유형으로 전환 추진 예정인데 표준서비스 모델로 기존 사업을 전환하되 지자체가 전환 유예를 요청하거나 지자체 특성과 수요가 높은 경우 표준모델 이외 사업도 인정하여 지자체는 표준서비스 유형을 참고하여 기존사업 및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표 2-9〉 지역개발형 사업 범위 설정의 변화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표준서비스 유형)
인적자본 형성·건강투자 활성화형	보급형	아동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성년 경제활동 활성화형	지역특화형	노인건강생활지원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고령 근로촉진·사회참 여 확대지원형	혁신형	장애인사회참여지원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부모학교 서비스
	서비스산업 화형	가족기능향상서비스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저소득가정 렌탈서비스
		취약계층지원	고령자 소외예방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리더쉽 증진 서비스

자료 : 보건복지부(2008·2009·201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자료 재구성

5)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의 변화 추이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년 동안 모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사업은 2007년의 경우 가족·전세대, 2008년과 2009년의 경우 장애아동 분야로 나타났다.

〈표 2-10〉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의 변화 추이

(단위: 사업수, %)

대상 분류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장애인	7	2.3	8	2.4	6	2.2
장애아동	54	17.7	70	21.1	61	22.4
아동	108	35.4	113	34.0	85	31.3
가족·전세대	57	18.7	59	17.8	48	17.6
노인·성인질환자	34	11.1	44	13.3	41	15.1
다문화·새터민	32	10.5	23	6.9	26	9.6
근로자·자활	13	4.3	15	4.5	5	1.8
총합	305	100	332	100	272	10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

6) 이용대상 선정의 우선순위 현황

이용대상 선정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54.1%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선착순이 16.4%, 개인특성·기타가 11.7%로 나타났다.

연도별 우선순위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3년 동안 모두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설정한 사업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선착순과 개인특성·기타 순. 기초생활수급자 우선순위는 전체사업 수 대비 2007년 44.4%에서 2009년 63.6%로 증가한 반면, 그 외의 우선순위의 비율은 대체로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11〉 연도별 우선순위의 변화추이

(단위: 사업수, %)

우선순위	2007년		2008년		2009년		총합(2007~2009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11	44.4	162	53.8	168	63.6	441	54.1
저소득층	19	7.6	20	6.6	13	4.9	52	6.4
소득수준	12	4.8	17	5.6	7	2.7	36	4.4
선착순	57	22.8	48	15.9	29	11.0	134	16.4
가족특성	19	7.6	14	4.7	20	7.6	53	6.5
개인특성	32	12.8	38	12.6	25	9.5	95	11.7
없음	0	0.0	2	0.7	2	0.8	4	0.5
합계	250	100.0	301	100.0	264	100.0	815	100.0

자료 : 보건복지부 통계

7) 전국 시도별 사업수 현황

〈표 2-12〉 시도별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수 현황

(단위: 사업수, %)

시도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서울	34	11.1	45	13.6	31	11.4	37	9.7
경기	38	12.5	31	9.3	22	8.1	45	11.8
부산	30	9.8	30	9.0	24	8.8	28	7.4
인천	7	2.3	8	2.4	5	1.8	13	3.4
대전	11	3.6	13	3.9	9	3.3	12	3.2
대구	11	3.6	15	4.5	14	5.1	15	3.9
광주	18	5.9	23	6.9	19	7.0	31	8.2
울산	3	1.0	6	1.8	8	2.9	10	2.6
강원	22	7.2	20	6.0	18	6.6	29	7.6
경남	17	5.6	9	2.7	5	1.8	10	2.6
경북	28	9.2	31	9.3	28	10.3	32	8.4
전남	27	8.9	30	9.0	22	8.1	23	6.0
전북	31	10.2	31	9.3	25	9.2	36(4)	9.5
충남	16	5.2	23	6.9	21	7.7	27	7.1
충북	9	3.0	14	4.2	17	6.3	27	7.1
제주	3	1.0	3	0.9	4	1.5	5	1.3
전체	305	100.0	332	100.0	272	100.0	380	100.0

자료: 김용득(2009),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1” p.46.
 전라북도 내부자료(2010)

전국 시도별 사업기간에 따른 사업 수 현황을 살펴보면, 2007년 경기 38개,

서울 34개, 전북 31개 순으로 사업수가 많다. 2008년의 경우 서울 45개, 경기·경북·전북이 31개이며, 2009년 서울 31개, 경북 28개, 전북 25개로 집계되었고, 대체로 서울, 경기, 경북, 전북지역에서 많은 사업이 유지되고 있다.

제 3 절 전북지역사회 자원 현황

1. 인구 현황

전북의 행정구역은 6시 8군, 14읍 145면 82행정 동, 7,875행정 리·통, 23,474반과 6,972개소의 자연마을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말 전라북도의 총 인구수는 1,854,508명(외국인 포함)이며, 그 중 전주시가 635,007명(34.2%)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익산시가 306,669명(16.5%)으로 나타났다.

군 지역은 완주군이 전라북도 총 인구의 4.5%로 가장 높아 시지역인 남원의 4.7%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고, 장수군이 1.3%로 가장 낮은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2-13〉 전라북도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분	총인구	내국인				외국인		
		세대	계	남	여	계	남	여
전북	1,854,508	720,993	1,834,589	914,816	919,773	19,919	9,664	10,255
전주시	635,007	227,704	630,092	311,352	318,740	4,915	2,127	2,788
군산시	266,922	101,757	263,515	133,623	129,892	3,407	1,958	1,449
익산시	306,669	114,994	303,083	151,565	151,518	3,586	1,783	1,803
정읍시	121,545	50,664	120,155	59,340	60,815	1,390	754	636
남원시	87,675	35,698	86,854	42,830	44,024	821	369	452
김제시	94,770	40,595	93,600	46,589	47,011	1,170	699	471
완주군	83,885	34,510	81,694	42,042	39,652	2,191	1,168	1,023
진안군	27,558	12,358	27,288	13,778	13,510	270	73	197
무주군	25,811	11,262	25,643	12,752	12,891	168	35	133
장수군	23,478	10,282	23,216	11,654	11,562	262	81	181
임실군	30,703	13,721	30,279	15,294	14,985	424	220	204
순창군	30,179	13,103	29,887	14,747	15,140	292	55	237
고창군	60,102	27,144	59,536	29,550	29,986	566	200	366
부안군	60,204	27,201	59,747	29,700	30,047	457	142	315

자료 : 전라북도 통계(2009. 12)

2.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전북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수는 111,964명(6.1%)으로 전국 시도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23.7%를 차지하고,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정읍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순으로 많이 나타났다.

2010년 현재 전북의 등록장애인은 130,808명으로 전체 도민의 7.1%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많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25.2%로 가장 많고,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김제시가 각 15.6%, 13.1%, 8.0%, 7.6% 순으로 나타났고, 무주군, 장수군이 1.9%, 1.8%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전북의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총 3,137세대로 전주시(1,275세대)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정은 131 가구이다.

〈표 2-14〉 지역별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

(단위 : 세대, 명)

시군명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가정		소년소녀		이주여성현황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결혼여성	자녀현황
계	60,621	111,964	130,808	3,181	8,184	131	196	6,832	5,849
전주시	13,409	26,547	32,964	1,275	3,306	34	55	1,451	1,112
군산시	8,307	15,179	17,073	359	963	2	4	730	398
익산시	9,323	17,744	20,350	625	1,638	5	7	1,207	974
정읍시	5,694	10,422	10,438	239	624	18	21	564	556
남원시	4,030	7,663	7,808	194	511	20	33	407	380
김제시	5,944	10,153	9,960	123	282	9	11	453	370
완주군	3,155	6,074	7,483	71	170	5	9	469	419
진안군	1,149	1,885	2,715	15	31	5	7	195	227
무주군	970	1,636	2,454	24	62	1	1	135	158
장수군	1,014	1,813	2,371	25	58	2	4	196	228
임실군	1,359	2,403	3,183	13	31	2	4	215	237
순창군	1,055	1,817	2,876	25	62	6	10	207	258
고창군	2,460	4,122	5,624	99	208	19	24	298	289
부안군	2,752	4,486	5,509	94	238	3	6	305	243

자료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9년 말 또는 2010년 기준

3. 사회복지 시설별 현황

〈표 2-15〉 사회복지시설 관련현황

(단위 : 개소)

시군명	계	노인복지 관련시설			장애인복지 관련시설			아동복지 관련시설			여 성 관련시설 (한부모포함)		청소년 관련시설		종합 복지관	지역자 활센터
		경로당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생활 시설	직업 재활 시설	이용 시설	보육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생활 시설	생활 시설	이용 시설	수련 시설	쉼터 상담 기관		
계	8,369	5,994	169	121	53	14	82	1,521	253	46	7	6	50	18	17	18
전주시	1,408	543	37	27	5	4	26	682	47	15	3	1	5	5	5	3
군산시	711	429	20	13	5	1	10	171	44	8	2	1	2	1	2	2
익산시	970	577	32	17	12	4	9	258	42	8	1	1	3	1	3	2
정읍시	795	620	12	4	8	1	6	107	29	1		1	3	1	1	1
남원시	604	464	14	9	2	0	7	73	28			1	3	1	1	1
김제시	686	567	16	9	2	0	4	66	8	1			8	1	3	1
완주군	528	403	13	9	9	3	4	61	12	4	1	1	6	1	0	1
진안군	343	304	3	5	1	0	3	8	11	2			4	1	0	1
무주군	275	246	1	2	1	1	3	11	6				2	1	0	1
장수군	299	268	3	5	2	0	1	7	8				3	1	0	1
임실군	356	318	6	6	2	0	2	10	5	3			2	1	0	1
순창군	373	337	2	7	3	0	2	14	3	1			2	1	0	1
고창군	558	505	8	4	1	0	2	25	3	3			4	1	1	1
부안군	463	413	2	4	0	0	3	28	7				3	1	1	1

자료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9년 말 또는 2010년 기준

전라북도내 사회복지관련 시설은 총 8,369개소로 대부분은 노인복지관련 시설(75.1%)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아동복지관련 시설(21.7%), 장애인복지관련 시설(1.8%)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관련 시설 이외에 장애인, 아동, 여성, 청소년관련 시설 등은 도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설이고, 또한 높은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복지관련 시설은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임시방편으로 세워지고 있는 많은 경로당으로 인한 것으로 경로당 활성화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노인복지관련시설은 경로당을 제외하면 290개소로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생활시설의 증가가 많았다.

최근 아동시설의 경우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접근을 위해 지역아동센터가 급격히 증가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이 외에 바우처 사업의 제공 기관으로서 지역자활센터 18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17개소, 청소년 관련 시설 68개소 등이 운영 중에 있다.

4. 지역사회 사회적 자원 현황

전북도의 사회적 자원 현황은 아래 <표 2-16>과 같다. 2010년 현재 기준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24.6%이며,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비 지출은 도와 시군을 합쳐 평균 27.0% 정도이다. 공공전달체계에 속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701명, 사회복지시설은 2,496개소이며,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수는 205,540명(자원봉사센터 등록인원 기준)으로 나타났다.

<표 2-16> 전라북도의 사회적 자원현황

시군명	사회적 현황					자원현황		
	재정자립도 (%)	사회복지비 (억원,%)		주택 보급률(%)	문화공간 (개소) 공연장등	공동자원 사회복지직 공무원현황	민간자원	
		예산	비율				사회복지 시설(개소)	자원 봉사자(명)
계	24.6	25,622	27.0	113.4	21	701	2,496	205,540
도	17.3	12,696	33.9	113.4	1	15	0	0
시군 계	19.3	13,385	20.1	113.4	20	686	2,496	205,540
전주시	33.5	3,140	32.9	108.7	6	112	924	64,715
군산시	27.4	2,195	32.0	122.1	1	83	298	20,513
익산시	24.4	1,948	34.0	108.6	1	89	414	46,842
정읍시	12.5	1,081	26.2	113.8	2	68	187	19,356
남원시	9.3	870	21.5	106.2	2	45	142	5,001
김제시	16.0	1,043	23.0	117.5	4	65	122	10,830
완주군	23.5	717	17.4	120.3	1	43	127	8,512
진안군	11.3	230	10.2	129.2	0	21	40	3,160
무주군	12.6	273	12.6	119.1	0	24	30	3,157
장수군	11.0	235	12.1	120.7	0	16	31	2,946
임실군	11.5	346	15.8	127.8	0	23	40	3,043
순창군	12.2	285	12.8	121.5	1	21	36	3,464
고창군	9.6	544	15.6	119.0	1	37	54	7,338
부안군	16.7	478	15.9	117.6	1	39	51	6,663

자료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내부자료, 2009년 말 또는 2010년 기준

5. 전북지역의 사회복지 욕구분석

2009년 9월 현재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는 「노인 돌봄 서비스」가 43.8%로 가장 많고,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서비스」 24.4%, 「저소득층 아동자립 자금 지원서비스」 13.0%로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6.2%, 「장애인 돌봄 서비스」 6.1%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통계청, 2009년 사회조사보고서).

전라북도 도민들도 향후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스로 44.4%가 「노인 돌봄 서비스」를 꼽았으며,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의 자녀 양육지원서비스」 21.4%, 「저소득층 아동자립 자금 지원서비스」 15.0%로 「장애인 돌봄 서비스」 6.7%, 「산모 신생아 돌봄 서비스」 5.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견해에서는 15세 이상 전국민의 63.8%가 「장애를 고려하여 더 배려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32.6%는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응답은 3.6%에 불과한 반면, 전북지역은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5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42.5%, 「비장애인과 차별해서 대할 수밖에 없다」는 4.0%의 응답률을 보임. 장애인 관련 시설 설립에 대한 견해에서도 전국민의 37.9%가 전혀 문제되지 않고 59.8%가 반대는 하지 않으며, 0.5%만이 절대로 안된다고 밝혔으나 전북은 35.8%만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절대로 안된다는 도민이 2.7%로 나타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사회서비스 관련 동향은 사회서비스 관련 시장의 욕구를 알아봄으로써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및 전북도민들이 원하는 복지수요를 파악할 수 있다(전라북도, 2007,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표 2-17〉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나타난 지역 욕구 분석

사회복지 분야	지역 주민 욕구 내용
기초생활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성 있는 복지급여 제공 - 체계적인 현실성 있는 차상위 계층 파악 - 자활사업의 제도적 기반 확대 필요 - 현실성 있는 담보 및 보증 용자 지원 사업 - 이동사회복지관 운영 - 저소득 주민에 대한 전문상담 강화 필요 - 저소득층 건강 및 의료서비스 확대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보 - 보육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위해 보육종사자 전문성 강화 - 보육종사자 직무환경 개선 -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 다문화가정을 위한 보육서비스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사업
아동·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가족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 필요 - 아동 보호와 교육이 절실히 필요 - 교육지원 내용 확대 및 다양화 - 아동·청소년 관련 복지시설에 대한 홍보 및 확충 - 사회안전망 강화 - 장애아 통합교육서비스 - 면단위 공부방 확충
여성·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정보제공 - 여성사회교육의 다양화 및 양질의 교육 제공 -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전문적인 지원 필요 -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 및 취약여성의 보호지원사업 필요 - 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다양한 지원 - 농촌여성 건강증진 프로그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소득보장 확대 지원 - 장애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직접재활 활성화 모색 -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강화 - 장애인 복지관련 시설 확충 및 홍보 -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장애인 주택개량사업
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취업과 노인인력 활성화 방안 모색 -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 모색 - 노인의 다양한 여가활동과 다양한 교육 필요 - 노인관련 시설의 접근성 및 시설 간의 연계 필요 - 질환노인 교통시설 이용 편의성 필요 - 독거노인 결연사업 지원

자료 : 전라북도지역사회복지계획, 2007, 자료 재구성

제 4 절 경기·전남·전북지역 사회복지 비교

1.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2010년 복지예산 현황

복지사업분야 특히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가공모 형태로서 지방자치단체별 적극성에 따라 지자체마다 사업의 규모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사업수나 예산 면에서 가장 앞서 있는 지역과 전북과 비슷한 지역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전라북도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가장 활발한 지역인 경기도 그리고 사회적 자원과 복지인프라 등에서 전라북도와 비슷한 규모인 전라남도 지역을 집중 분석한다.

〈표 2-18〉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2010년 복지예산 현황

구분	경기	전남	전북
복지예산	3조 1,220억원	1조 4,325억원	1조 2,696억원
전체예산 대비 비중	도 전체예산 (13조 1,856억원)의 23.7%	도 전체예산 (5조 2,046억원)의 27.5%	도 전체예산 (3조 7,481억원)의 33.9%

경기도 2009년 복지예산은 2조 8,527억원으로 2010년에 9.4% 증가하였는데 2009년 경기도 전체예산이 13조 198억원으로 2010년에 1.3% 증가한 데 비하면 복지분야 예산 증가율이 높다. 전라남도는 2009년도 당초예산(1조 4,012억원) 대비 2.2% 증가하였고, 전라북도는 복지예산 2009년에 비해 2010년 1.1% 증가(특별회계 3,240억원→3,139억원, 일반 9,315억원→9,557억원)하였다.

복지예산이 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전라북도는 경기도와 전라남도에 비하여 각 10.2%p, 6.4%p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라북도가 상대적으로 복지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라북도는 재정규모의 영세성과 중앙정부 의존적 재원조달 구조로 인해 사회복지수요를 충족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북과 전남의 사회보장 예산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으며, 사회복지 관련 예산 대부분이 국비지원에 따른 필수사

업에 충당되고 있는 상황으로 도 자체적인 사회복지사업 추진예산은 국비와 도비가 76:24로 미약하다.

2. 경기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회복지 자원현황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노인인구, 위탁가정아동,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복지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인구의 경우 전라남도(17.97%)가 전국 최고의 노인인구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어 전라북도가 전국 3위(14.9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노인의료보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노인성질환자가 증가하여 재가노인복지 및 장기요양 보건의료 서비스 욕구가 증대되고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여가·문화욕구 팽창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의 경우 노인, 장애인 등 생활시설과 사회·장애인·노인복지관 등의 사회복지 인프라가 크게 부족하고 지역별로 불균형적으로 분포되어 지역주민의 욕구충족에 어려움이 따르며 서비스의 질 저하와 누락이 우려된다.

〈표 2-19〉 복지대상자

(단위 : 명, '09. 12월말)

구 분	등록장애인	노인인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 체 인 구
			가구	인원	
전 국	2,419,444 (4.86%)	5,267,708 (10.58%)	854,205	1,529,939 (3.07%)	49,773,145
경 기	475,732 (19.7%)	965,172 (8.42%)	122,107	210,451 (1.84%)	11,460,610
전 남	143,253 (7.4%)	343,861 (17.97%)	63,680	110,725 (5.79%)	1,913,004
전 북	130,808 (7.9%)	277,682 (14.97%)	61,564	113,782 (6.14%)	1,854,508

〈표 2-20〉 생활시설

(단위 : 개소, '09. 12월말)

구분	계	전국대비(%)	장애인	부랑인	정신질환	노인	아동	여성 (한부모 포함)
전국	3,278		352	37	155	2,101	633	
경기	974	29.7	71	3	19	726	155	
전남	256	7.8	13	7	6	196	23	11
전북	320	9.8	51	3	16	186	49	15

〈표 2-21〉 이용시설

(단위 : 개소, '09. 12월말)

구분	계	전국 대비 (%)	사회 복지관	노인 (복지관 경로당 등)	장애인 (복지관, 그룹홈 주단기 등)	노숙인 쉼터	정신질환 (사회복지 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기타
전국	63,864		414	61,817	1,464	86	83		
경기	11,297	17.7	56	10,966	256	9	10		
전남	8,324	13	16	경로당 8,240 복지관22	복지관12			34	
전북	6,634	10.4	17	경로당 5,994 이용시설 140	직업재활시설 14 이용시설 81	2	2	52	332

3. 경기도와 전라남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및 시사점

경기도가 전국 시도에 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표2-12〉 참고)는, 경기도의 복지예산이 많고 복지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등 이 사업을 전개할 기반이 잘 갖춰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 한가지 이유로는 경기도의 경우 시군구 공동으로 개발한 사업이 많다는 데 있다. 경기도와 전남, 전북지역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도와 시군구 공동

으로 개발한 사업을 보면, 경기도가 9개로 많고, 그 대상도 청소년, 근로자 등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산과 인프라에서 전북과 비슷한 전남은 시도개발과 시군개발 사업수가 6개로 전북의 7개보다 1개 적고, 조손가정과 노인대상 프로그램이 많다.

〈표 2-22〉 경기, 전남, 전북지역 시도, 시군구 공동개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2007~2010년)

구분	시도 개발사업			시군구 개발사업		
	2007~2008년	2009년	2010년	2007~2008년	2009년	2010년
경기도	아동장애력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조기평가 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서비스			청소년재활 승마 교감능력향상서비스
	장애 및 ADHD 아동재활심리치료지원					호랑이교장 꿈다리 과학교실서비스
	맞춤형 휠체어렌탈 및 리폼서비스 제공사업	계속	계속			
	English Book Start(EBS)					
	4개	1개	2개			2개
전남	농어촌노인 건강장수 활력 서비스	계속	계속	장애아동의 교육 및 치료 지원사업		다문화가정아동 학습능력발달서비스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1개	1개	1개	1개		2개
전북		전통국악예술단 비전 형성	계속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아동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아동발달지원 서비스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뽕뽕한 글로벌인재양성 프로젝트
		1개	2개		2개	2개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 1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현황

제 2 절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 3 장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제 1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 현황

1. 연도별 서비스 현황

전라북도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2007년 30개, 2008년 35개, 2009년 33개, 2010년 39개가 운영되고 있다.

1) 2007년 - 30개

시군	사업명	이용대상
고창군	경로당 소독서비스	노인
고창군	어린이놀이터 전문 소독서비스	기타
군산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아동
군산시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김제시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아동
김제시	장애인 재활치료 및 이송서비스	아동(18세미만 유소년)
남원시	이주여성가족 통합지원서비스	다문화
남원시	행복한 가족니들이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무주군	우리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타
무주군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무주군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가족(전세대)
부안군	노인부양가족 문화탐방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부안군	성인 장애자녀가구 주간보호서비스	장애인
부안군	이주여성가족 문화탐방지원서비스	다문화
부안군	주거환경 소독 및 청소서비스	노인
순창군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기타
완주군	꿈나무 육성을 위한 외국어 학습도우미 서비스	아동
완주군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및 치료서비스	장애아동
완주군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이용서비스	아동
완주군	저소득층, 장애인아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서비스	아동
익산시	희망놀이터! 전문소독방역서비스사업	아동
임실군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사랑방	노인
임실군	결혼이민자여성 역량강화	다문화
장수군	노인부양가족 여가지원사업	가족(전세대)
장수군	지역사회 원어민강사 활용 영어학습서비스	아동
전주시	여성결혼이민자 및 자녀방문 학습지 지도사업	아동
전주시	장애인 이동 도서대출 서비스	장애인
전주시	취약계층가정 전문소독 서비스	가족(전세대)
정읍시	취약계층 방역소독	가족(전세대)
진안군	청소년 비전확립을 위한 리더쉽캠프 운영	아동(고등학생)

2) 2008년 - 35개

시군	사업명	이용대상
고창군	경로당 소독서비스	노인
고창군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고창군	어린이놀이터 전문 소독서비스	기타
군산시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아동
군산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아동
군산시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김제시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아동
김제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 창의블럭교실	아동
김제시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아동
김제시	장애인 재활치료 및 이송서비스	장애인
김제시	취약계층가정 청결방역서비스 사업	가족(전세대)
남원시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남원시	이주여성가족 통합지원서비스	다문화
남원시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	다문화
남원시	행복한 가족나들이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남원시	DREAM&FUTURE 자아개발 체험서비스	아동(19세이하)
무주군	우리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	기타
무주군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무주군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가족(전세대)
부안군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부안군	성인 장애자녀가구 주간보호 서비스	장애인
부안군	주거환경 소독 및 청소서비스	노인
순창군	고령자 맞춤형 생애설계서비스	노인
순창군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기타
완주군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및 치료서비스	장애아동
완주군	저소득층, 장애인아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서비스	가족(전세대)
익산시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익산시	희망놀이터! 전문 소독방역서비스사업	아동
임실군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사랑방	노인
임실군	결혼이민자여성 역량강화	다문화
장수군	또다른 체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속으로	아동
전주시	장애인 이동 도서대출 서비스	장애인
전주시	취약계층가정 전문 소독서비스	가족(전세대)
정읍시	취약계층 방역소독	가족(전세대)
진안군	색다른 체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속으로	아동

3) 2009년 - 33개

시군	사업명	이용대상
고창군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고창군	아동문화체험 지원서비스	아동
군산시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문제청소년 지역사회클럽운영	아동
군산시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군산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아동
군산시	지역 역사문화 체험서비스	아동
군산시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김제시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아동
김제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창의블럭교실	아동
김제시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아동
김제시	취약계층가정 청결 방역서비스사업	가족(전세대)
남원시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남원시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남원시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노인
남원시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	다문화
무주군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아동
무주군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가족(전세대)
부안군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부안군	성인 장애녀녀 가구 주간보호 서비스	장애인
부안군	주거환경 소득 및 청소서비스	노인
순창군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아동
순창군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기타
완주군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익산시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익산시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	아동
임실군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아동
임실군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아동
장수군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전주시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노인
전주시	취약계층가정 전문 소득서비스	가족(전세대)
정읍시	취약계층 방역소득	가족(전세대)
정읍시	해피실버 맞춤서비스 사업	노인
진안군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4) 2010년 - 39개

시군	사업명	이용대상
고창군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고창군	아동 문화체험지원서비스	아동
군산시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문제청소년 지역사회클럽운영	아동
군산시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노인
군산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아동
군산시	지역역사문화체험 서비스	아동
군산시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가족(전세대)
김제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동
김제시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아동
김제시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창의블럭교실	아동
김제시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아동
김제시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김제시	취약계층가정청결 방역서비스사업	가족(전세대)
남원시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남원시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	다문화
남원시	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사업	노인
남원시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노인
무주군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아동
무주군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가족(전세대)
부안군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부안군	성인 장애자녀가구 주간보호서비스	장애인
부안군	주거환경소독 및 청소서비스	노인
순창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순창군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
순창군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	기타
완주군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익산시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놀도역사체험단	아동
익산시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	아동
임실군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아동
임실군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아동
장수군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전주시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전주시	취약계층가정 전문 소독서비스	가족(전세대)
전주시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노인
정읍시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정읍시	취약계층 방역소독	가족(전세대)
정읍시	Happy-silver 맞춤서비스사업	노인
진안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아동
진안군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아동

2. 연도별 이용대상 현황

이용대상 현황 분석을 통해 서비스제공 운영구조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이용대상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서비스 대상분류, 이용대상 선정의 우선순위 및 소득구분을 분석하였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서비스 이용대상을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가 44.5%로 가장 많고, 이어 노인 19%, 가족·전세대 17.5%, 다문화·새터민 6.6%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사업수가 적은 분야는 장애인과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각각 5.1%, 1.5%에 지나지 않았다.

〈표 3-1〉 서비스 이용대상 현황

(단위 : 사업수,%)

	장애인	장애아동	아동	가족·전세대	노인	다문화·새터민	기타	총합
사업수	7	2	61	24	26	9	8	137
비율	5.1	1.5	44.5	17.5	19.	6.6	5.8	100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4년 모두 매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업수가 가장 많다. 다음으로 많은 사업은 가족·전세대를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 개발형 사업 초기라 할 수 있는 2007년과 2008년에 비중이 높았고, 2008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다른 대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연도별 서비스 이용대상

(단위 : 사업수,%)

대상 분류	2007		2008		2009		2010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장애인	2	6.7	3	8.6	1	3.0	1	2.6
장애아동	1	3.3	1	2.9	0	0	0	0
아동	11	36.7	10	28.6	17	51.5	23	59.0
가족·전세대	7	23.3	7	20	5	15.2	5	12.8
노인	3	10	8	22.9	8	24.2	7	17.9
다문화·새터민	3	10.0	3	8.6	1	3.0	2	5.1
기타	3	10	3	8.6	1	3.0	1	2.6
총합	30	100	35	100	33	100	39	100

3. 선정대상 우선순위

이용대상 선정의 우선순위 현황을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과반수를 훨씬 넘는 67.9%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가족특성 12.4%, 개인특성 및 기타 10.9%, 저소득층 5.8%, 신청순 2.9%로 나타났다.

〈표 3-3〉 우선순위 현황

(단위 : 사업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신청순	가족특성	개인특성·기타	총합
사업수	93	8	4	17	15	137
비율	67.9	5.8	2.9	12.4	10.9	100

연도별 우선순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4년 동안 모두 우선순위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설정한 사업이 가장 많고, 나머지 저소득층, 신청순, 가족특성, 개인특성⁶⁾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은 비중이 대체로 낮았다.

〈표 3-4〉 연도별 우선순위의 변화 추이

(단위 : 사업수,%)

우선순위	2007		2008		2009		2010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15	50.0	20	57.1	29	87.9	29	74.4
저소득층	4	13.3	2	5.7	1	3.0	1	2.6
신청순	2	6.7	1	2.9	1	3.0	0	0
가족특성	3	10.0	5	14.3	1	3.0	8	20.5
개인특성·없음	6	20.0	7	20.0	1	3.0	1	2.6
총합	30	100	35	100	33	100	39	100

2009년과 2010년 이용대상 선정의 소득구분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가구 월평

6) 가족특성은 다문화가정처럼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경우, 개인특성은 사설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보건소 등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균소득 기준 100% 이하로 설정한 사업수가 54개로 75%를 차지하고, 120% 이하의 사업수가 18개로 나타났다. 2009년과 2010년 소득구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9년은 소득구분 100%인 사업이 23개에서 2010년 31개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79.5%를 차지하고, 소득구분 150%인 사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연도별 소득구분의 변화추이

(단위 : 사업수,%)

소득 구분	2009		2010		2009~2010 총합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100%	23	74.2	31	79.5	54	75
120%	10	35.3	8	20.5	18	25
총합	33	100	39	100	72	100

4. 공급가격과 본인부담금 현황

최근 4년 간의 공급가격 현황을 살펴보면 10만원 이상 ~ 20만원 미만인 사업수가 40.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사업수가 27%로 나타났다. <표 3-6>에서 보듯이 공급가격은 대체로 30만원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6〉 공급가격 현황

(단위 : 사업수,%)

공급가격	10만원미만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30만원이상~ 40만원미만	총합
사업수	53	56	37	0	137
비율	38.7	40.9	27.0	0	100

연도별 공급가격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과 2008년의 경우 공급가격이 10만원 미만의 사업수가 가장 많은 반면,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10만원 미만의 사업수는 감소하고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의 사업수가 증가되었다. 또한 2010년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의 사업수가 6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표 3-7〉 연도별 공급가격 변화 추이

(단위 : 사업수,%)

공급가격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10만원미만	13	43.3	14	40.0	13	39.4	13	33.3
10만원이상 ~20만원미만	5	16.7	11	31.4	16	48.5	24	61.5
20만원이상 ~30만원미만	12	40.0	10	28.6	4	12.1	3	7.7
30만원이상 ~40만원미만	0	0	0	0	0	0	0	0
총합	30	100	35	100	33	100	39	100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45.3%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천원 이상~1만원 미만이 30.7%, 3만원 이상이 13.1%, 2만원 이상~3만원 미만이 10.9%를 차지하였다.

〈표 3-8〉 본인부담금 현황

(단위 : 사업수,%)

본인부담금	1천원이상 ~1만원미만	1만원이상 ~2만원미만	2만원이상 ~3만원미만	3만원이상	총합
사업수	42	62	15	18	137
비율	30.7	45.3	10.9	13.1	100

〈표 3-9〉 연도별 본인부담금 변화 추이

(단위 : 사업수,%)

본인부담금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1천원이상~1만원미만	12	40.0	10	28.6	11	33.3	9	23.1
1만원이상~2만원미만	6	20.0	10	28.6	19	57.6	27	69.2
2만원이상~3만원미만	5	16.7	8	22.9	1	3.0	1	2.6
3만원이상	7	23.3	7	20.0	2	6.1	2	5.1
총합	30	100	35	100	33	100	39	100

연도별 본인부담금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1천원 이상~1만원 미만인 40%로 가장 많고, 2008년은 1천원 이상~1만원 미만,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28.6%, 2009년과 2010년에는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이 57.6%, 69.2%를 차지하였다. 1천원 이상~1만원 미만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 1만원 이상~2만원 미만은 증가하며, 2만원 이상은 매년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이다.

5. 서비스참여 제공기관 유형

2010년 5월 기준으로 전라북도 서비스 제공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1개 사업마다 2~3개의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6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1개소 제공기관이 33.3%를 차지하고 있다. 4~5개소 이상이 참여하는 경우는 5.1%로 2~3개소의 제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표 3-10〉 서비스 제공기관 수 현황(2010.5월 기준)

(단위 : 사업수,%)

제공기관 수	1개소	2~3개소	4~5개소	6개소 이상	총합
사업수	13	24	2	0	39
비율	33.3	61.5	5.1	0	100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한 기관유형을 보면, 가장 많이 참여한 기관은 66.7%는 비영리기관이고, 다음으로 20.5%의 영리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사업은 3개이며 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수는 2개로 나타났다.

〈표 3-11〉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현황(2010.5월 기준)

(단위 : 사업수,%)

구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	대학교	컨소시엄	기타	총합
사업수	26	8	2	3	0	39
비율	66.7	20.5	5.1	7.7	0	100

〈표 3-12〉 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세부사항(2010.5월 기준)

시군별	사 업 명 (39개 사업)	비 고
전주시	취약계층가정 전문소독서비스	영리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서비스	영리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비영리
군산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비영리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영리
	실버 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영리
	지역 역사문화 체험서비스	컨소시엄
익산시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문제청소년 지역사회클럽운영	대학교
	행복한 아동만들기서비스	컨소시엄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놀토 역사체험단	비영리
정읍시	취약계층 방역소독서비스	비영리
	해피실버 맞춤형서비스	비영리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대학교
남원시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영리
	아이천사 건강두드림서비스	비영리
	전통국악 예술단 비전형성	컨소시엄
	해피실버 문화예술단사업	영리
김제시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비영리
	취약계층가정청결방역서비스사업	영리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창의 블럭교실	비영리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비영리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비영리
완주군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비영리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비영리
진안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비영리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영리
우주군	함께하는 역사탐방지원사업	비영리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비영리
임실군	다문화가정 영유아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비영리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비영리
순창군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만들기	비영리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비영리
고창군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비영리
	아동문화체험단 지원서비스	비영리
부안군	성인장애자녀 주간보호서비스	비영리
	주거환경소독 및 청소서비스	비영리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비영리
	아동통합 야간보호서비스	비영리

6. 서비스 지속 현황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예산을 책정하고 이 예산의 한도 내에서 전국 사업을 선정, 지원하기 때문에 개발형사업의 지속성은 불투명하다.⁷⁾ 전북에서 2007년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어온 사업은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군산)와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김제),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무주), 성인 장애자녀 가구 주간보호 서비스, 주거환경 소득 및 청소서비스(부안),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순창), 취약계층가정 전문 소득서비스(전주), 취약계층 방역소득(정읍) 등 10개 사업이다. 개발형 사업이 본격화 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어 온 사업은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고창),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군산),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 창의블럭교실, 취약계층가정 청결방역서비스사업(김제),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남원) 등 6개 사업으로 지속률이 높지 않다.

지속률이 높은 사업을 보면, 취약계층 대상 소득이나 청소관련 서비스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하여 가장 높고, 노인 재활서비스 사업이 그 다음을 차지함으로써 전북지역은 기초복지 수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수요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3〉 사업의 지속 및 중단 현황(2007~2010년)

시군별	사 업 명	07	08	09	10
고창군	경로당 소득서비스	■	■		
	어린이놀이터 전문 소득서비스	■	■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	■	■
	아동문화체험 지원서비스			■	■
군산시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	■	■	■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	■	■	■

7) 이재원(2009)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전국 시도의 지역개발형사업의 지속비율이 47.8%로 나타났다. 전북은 40%, 경기도 36.6%, 전남 55.9%로 나타났다.

시군별	사 업 명	07	08	09	10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	■	■
	지역역사문화 체험서비스			■	■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문제청소년 지역사회클럽운영			■	■
김제시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	■	■
	미취학 아동을 위한 놀이, 창의블럭교실		■	■	■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	■	■	■
	장애인 재활치료 및 이송서비스	■	■	■	특화 전환
	취약계층가정 청결방역서비스사업		■	■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남원시	이주여성 가족통합지원서비스	■	■	■	
	행복한 가족나들이 지원서비스	■	■	■	
	노인성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	■	■
	전통국악예술단 비전형성		■	■	■
	DREAM&FUTURE 자아개발체험서비스		■	■	■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	■
	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사업				■
무주군	우리동네 생활환경 개선사업	■	■	■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	■	■	■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	■	■	■
부안군	노인부양가족 문화탐방 지원서비스	■	■	■	
	노인성질환자 맞춤형재활서비스		■	■	
	성인 장애자녀 가구 주간보호 서비스	■	■	■	■
	이주여성가족 문화탐방 지원서비스	■	■	■	■
	주거환경 소독 및 청소서비스	■	■	■	■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
순창군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만들기	■	■	■	■
	고령자 맞춤형 생애설계서비스		■	■	
	다문화가정 영유아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

시군별	사 업 명	07	08	09	10
완주군	꿈나무 육성을 위한 외국어 학습도우미 서비스	■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및 치료서비스	■	■	■	■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이용서비스	■			
	저소득층, 장애인아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 서비스	■	■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
익산시	희망놀이터! 전문소독 방역서비스사업	■	■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	■	
	희망놀이터! 전문소독 방역서비스사업	■	■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			■	■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놀토역사체험단				■
임실군	건강하게 숨쉬는 노인사랑방	■	■		
	결혼이민자여성 역량강화	■	■		
	다문화가정 영유아 아동 언어발달지원사업			■	■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	■
장수군	노인부양가족 여가지원사업	■			
	지역사회 원어민강사 활용 영어학습서비스	■			
	또다른체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속으로		■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
전주시	여성 결혼이민자 및 자녀 방문 학습지 지도사업	■	■		
	장애인 이동 도서대출 서비스	■	■		
	취약계층가정 전문 소독서비스	■	■	■	■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	■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정읍시	취약계층 방역소독	■	■	■	■
	해피실버 맞춤형서비스 사업			■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
진안군	청소년 비전확립을 위한 리더쉽캠프 운영	■			
	색다른 체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박물관 속으로		■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	■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

보건복지부가 2009년 3월부터 장애 및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를 특화·전환함으로써 김제시의 장애인재활치료 및 이송서비스와 완주군의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및 치료서비스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는 비장애 문제행동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전북지역 시도별 지속률을 보면, 군산시와 무주군이 도내에서 사업을 가장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부안군과 김제시가 사업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3-14〉 연도별 시군 사업수 현황

(단위: 사업수, %)

시군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시군 계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사업수	비율	
전주시	3	10.7	2	5.7	2	6.1	3	7.7	10
군산시	2	3.6	3	8.6	5	15.2	5	12.8	15
익산시	1	3.6	2	5.7	2	6.1	2	5.1	7
정읍시	1	3.6	1	2.9	2	6.1	3	7.7	7
남원시	2	7.1	5	14.3	4	12.1	4	10.2	15
김제시	2	7.1	5	14.3	4	12.1	6	15.4	17
완주군	4	3.6	2	5.7	1	3.0	1	2.5	8
진안군	1	7.1	1	2.9	1	3.0	2	5.1	5
무주군	3	7.1	3	8.6	2	6.1	2	5.1	10
장수군	2	7.1	1	2.9	1	3.0	1	2.5	5
임실군	2	7.1	2	5.7	2	6.1	2	5.1	8
순창군	1	3.6	2	5.7	2	6.1	2	7.5	7
고창군	2	7.1	3	8.6	2	6.1	2	5.1	9
부안군	4	14.3	3	8.6	3	9.1	4	10.2	14
전체	30	100	35	100	33	100	39	100	137

조사대상 8개 시군의 2007년부터 2008년까지 개발형 사업 총수는 도시형에서는 군산이 15개, 김제 17개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고, 전주 10개, 익산 7개로 잘 되고 있지 않는 지역이다. 농촌형에서는 완주 8개, 부안 14개를 진행하고 있는 두 곳이 잘 되고 있는 지역으로, 임실은 8개, 장수군은 5개로 잘 되고 있지 않는 지역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 2 절 2010년 전북지역 서비스투자사업

1. 개요

〈표 3-15〉 전북지역 서비스투자사업 개요

구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2010년도 총사업비	70억4200만원 (국비 74%, 시·군 26%)
지원조건	신활력지역 80:20, 일반지역(전주,군산,익산,완주,무주) 70:30
사업기간	2010. 2월 ~ 2011. 1월(1년간)
사업수/제공인력(일자리)/서비스대상자	50개/750명/11,200명(월평균)
대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 1개사업 20억7500만원 -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 : 39개사업 31억660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취약계층가정 홈클리닉서비스 : 5개사업 3억850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저소득층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 9개사업 5억950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아동체험·정서발달지원서비스 : 25개사업 21억8600만원 -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 10개사업 18억100만원 <li style="padding-left: 20px;">취약계층아동·청소년발달지원, 노인운동처방, 사례관리서비스 등

2. 개발형사업 시군 세부 서비스 내용

〈표 3-16〉 지역개발형 시군별 사업분포 및 세부 서비스 내용

39개 사업, 제공기관 72개소

시군명	사업명	서비스 내용
전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약계층 가정 전문소독 서비스 ○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살균, 방제 등 맞춤형 방제서비스 ○ 전산안마, 마사지, 지압 등 맞춤형 안마서비스 ○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 지도
군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파견서비스 ○ 취약계층 건강환경 지원서비스 ○ 실버 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 지역역사문화체험 서비스 ○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문제청소년 지역사회 클럽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어, 일어, 중국어 교육지도 서비스 ○ 종합살균, 방제 서비스 ○ 맞춤형 재활치료 물리치료, 운동치료 등 ○ 군산지역 역사체험 관외 역사문화체험 ○ 1:1멘토링 사회적응력 향상, 지역사회클럽활동 운영
익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 ○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놀토역사체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악치료 및 악기 배우기 미술치료 및 미술교육 등 ○ 백제 역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체험활동 및 리더십 교육

시군명	사업명	서비스 내용
정읍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약계층 방역소독서비스 ○ Happy silver 맞춤형서비스 사업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방문 방역소독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및 정서지원서비스
남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국악 예술단 비전형성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해피실버 문화예술단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아동 우리문화 체험을 통한 자아형성 및 발달 지원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등 맞춤형 안마서비스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지도 ○만55세이상 저소득층 세대에게 전통국악 강습
김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취약계층가정 정결방역 서비스사업 ○미취학아동을 위한 놀이·창의 블럭교실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봇과학 실습교육 및 과학체험 프로그램 ○종합, 살균, 방제 ○기초, 창의, 자유관련 텃밭블럭 사용 프로그램 ○문화감수성발달, 사회적 향상 문화체험학습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및 정서지원서비스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지도
완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지도
진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지도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및 정서지원서비스
무주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와 문화지역 탐방 ○휴교실, 나무교실, 숲교실 등 각종 체험서비스 제공
장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지도
임실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영유아 아동언어발달지원사업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교육 ○국악제공 서비스
순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교육, 물리치료, 정수프로그램, 나들이 ○다문화가정 아동 언어발달 및 정서지원서비스
고창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성 질환자 맞춤형 재활서비스 ○아동문화체험지원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리치료, 운동치료, 웃음치료 등 ○지역문화유산답사 캠프활동 등
부안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 장애자녀 가구 주간보호 서비스 ○주거환경 소득 및 청소서비스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아동통합 야간보호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상생활 훈련, 취미활동 지원, 가족지원사업 ○청소 및 소독서비스 ○원어민교사(결혼이주여성)를 이용한 영어학습지도 ○초등학생 포함 야간보호서비스

3. 조사대상 8개 시·군 개발형사업 표준서비스 유형별 분포

〈표 3-17〉 2010년 8개 시군 개발형사업 표준서비스 유형별 분포

2010년(표준서비스 유형)	사업명	시군명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서비스	관학협력 장애아동 및 문제청소년 지역사회클럽운영	군산시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행복한 아동만들기 서비스 자연체험을 통한 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익산시 무주군
저소득층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	미취학아동을 위한 놀이·창의블럭교실 문화와 만나는 신나는 현장체험 비전2020 로봇과학교실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지역역사문화 체험서비스 백제의 역사를 찾아라, 놀토역사체험단 함께하는 역사탐방 지원사업 이주여성 외국어 지도교사 파견서비스 뽀뽀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지역아동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	김제시 김제시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 부안군 군산시 익산시 무주군 군산시 전주시, 완주군, 장수군, 김제시 임실군
다문화가정 아동 발달지원서비스	다문화가정 영유아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발달 지원서비스	임실군 김제시
저소득층 아동돌봄 서비스	아동통합 야간보호서비스 성인 장애자녀가구 주간보호서비스	부안군 부안군
부모학교 서비스		
저소득 장애인·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eye1004건강두드림서비스 실버활력증진 맞춤형 재활서비스	전주시 군산시
저소득가정 렌탈서비스		
고령자 소외예방서비스		
비만아동 건강관리 서비스		
아동리더쉽 증진 서비스		

조사대상 시군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의 2010년 23개 지역개발형 사업 중에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2010년 표준서비스 유형에 속하지 않는 사업이 취약계층가정 청결방역서비스사업(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부안군)이 있는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2009년 유형에는 포함된 사업이다. 따라서 지역개발형서비스사업은 표준서비스 유형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를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⁸⁾

4.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모신청 탈락 및 제외사업

〈표 3-18〉 2010~2009년도 전북 시군별 공모 탈락사업 현황

연번	연도	시군명	사업명	비고
1	2010	완주군	매력적인 리듬을 만나다(저소득가정 아동과 함께하는 체력증진 프로젝트)	
2	"	김제시	비만아동을 위한 건강투자서비스 (비만탈출365)	지역선택형으로 진행 중
3	"	정읍시	한국 문화적응 코디네이터 지원서비스	자원봉사자 활용(적십자봉사회) 결혼이주여성 대상 자부담 월1만~2만원
4	"	정읍시	신나는 음악학교 어린이 상담치료 및 정서치유 지원서비스	대구에서 진행 오케스트라 전초전 초중고생 대상, 음악협회 협조
5	"	장수군	저소득 노인 목욕지원서비스	
6	"	김제시	저소득가정 아동들의 다중지능을 활용한 리더쉽증진 서비스 “마인드업”	
7	"	김제시	저소득가정 아동 및 맞춤형 운동서비스 “척추성장클리닉”	척추측만증 아동 대상, 극소수로 모집단 부족 보건소와 협의
8	"	김제시	창의과학 실험교실(발명왕 에디슨)	동일지역 타 제공기관의 프로그램과 유사
9	"	장수군	취약계층 소득·방역서비스	
10	"	순창군	중년의 홀로가장(남성) 돌봄서비스	
11	2009	고창군	다문화가정 장기요양보호사 자격취득 지원	
12	"	진안군	여성! 전문가로 다시일하기 (다문화가정 및 아동 한국어교육 강사 양성)	
13	"	정읍시	신나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사업	
14	"	진안군	독거노인 지킴이 안심서비스	
15	"	정읍시	“행복한 뮤직스쿨” 음악교육을 통한 정서순화사업	연극협회, 주말, 체험프로그램, 공연 관람
16	"	정읍시	아동여가관리서비스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프로그램과 유사
17	"	장수군	건강한 아동을 만들기 사업	
18	"	부안군	꿈쟁이 생활과학교실 운영	주1회 90분, 초등 대상 전체 8만3천원(복지관 7만5천원, 자부담 8천원), 견학과 체험프로그램
19	"	군산시	청소년 아침식사 배달서비스	
20	"	익산시	아동과학탐구 능력향상서비스	

8) 보건복지부는 2011년 중점 육성할 10대 유망 사회서비스로 아동발달지원사업(아동발달지원, 아동정서발달지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아동치료), 노후생활지원사업(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돌봄여행서비스), 장애인재활지원사업(장애인보조기구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돌봄·가족지원사업(방과후돌봄서비스, 정신건강케어서비스)를 제시했다.

시군별 계속사업 여부는 보건복지부가 매년 전년도 12월 조사를 거쳐 다음해 1월 결정한다. 전북도내 시군별 계속사업 제외사유를 보면, 서비스 대상자가 없거나 제공기관이 열악하거나 예산 반납 등 사업추진이 부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유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의 종료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가 공모신청에서 탈락한 도내 시군별 신청사업을 보면, 도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의 사업선정 유망 및 기피사업 선별에 따른 동향 파악이 미흡한 때문이기도 하다. 또 타 부처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이 된다거나 연계 추진하는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사업이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성과가 미미하거나 불투명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들은 2007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 제외 또는 탈락된 사업을 분석한 데 따른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공모사업 선정여부만을 공문으로 전달 뿐 사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고 있다.

제 4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제 1 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건 분석
- 제 3 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별·지역별 욕구 분석
- 제 4 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방향

제 4 장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 1 절 설문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전체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는 이용자(사회서비스 대상자)와 공급자(사회서비스 제공기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도시형과 농촌형으로 분류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거나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을 8개 선정하였다. 시군별로 분류하면 도시지역(잘 되고 있는 시지역= 군산시, 김제시, 잘 안되고 있는 시지역= 전주시, 익산시)이 54.9%, 농촌지역(잘 되고 있는 군지역= 완주군, 부안군, 잘 안되고 있는 군지역= 임실군, 장수군)은 45.1%를 차지하였다.

〈표 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 분		수요자	공급자	전체
도시형 n=195 54.9%	전주시	29	28	57
	군산시	30	28	58
	익산시	20	20	40
	김제시	20	20	40
농촌형 n=160 45.1%	완주군	20	20	40
	부안군	20	20	40
	임실군	20	20	40
	장수군	20	20	40
합 계		179	176	355

2.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

수요자 조사대상의 성별은 여성이 84.7%로 남성 15.3%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28.7%로 가장 많고, 40대가 33.3%, 20대가 14.6%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고른 분포를 보였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38.3%로 가장 많고,

서비스 판매직과 사무·기술직, 무직이 11.7%, 10.6%, 9.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의 주요 설문 대상이 주로 대부분 저소득층을 포함한 노인, 장애인 등 경제활동이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육이나 아동서비스 등은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주부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응답자의 직업이 주부와 무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소득도 100만원 미만이 30.2%로,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 34.4%에 이어 2위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수요자 층의 상당부분이 저소득층임을 보여주었다.

〈표 4-2〉 수요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수요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성별	여성	80	83.3	69	86.3	149	84.7
	남성	16	16.7	11	13.8	27	15.3
	합계	96	100	80	100	176	100
연령	20대	14	14.6	1	1.3	15	8.6
	30대	42	43.8	25	31.6	67	38.3
	40대	32	33.3	29	36.7	61	34.9
	50대	5	5.2	12	15.2	17	9.7
	60대이상	3	3.1	12	15.2	15	8.6
	합계	96	100	79	100	175	100
직업형태	무직	9	9.6	11	13.8	20	11.5
	전업주부	36	38.3	32	40.0	68	39.1
	자영업	7	7.4	6	7.5	13	7.5
	단순노무직	4	4.3	6	7.5	10	5.7
	서비스,판매직	11	11.7	3	3.8	14	8.0
	사무,기술직	10	10.6	8	10.0	18	10.3
	전문,관리직	7	7.4	7	8.8	14	8.0
	기타	10	10.6	7	8.8	17	9.8
합계	94	100	80	100	174	10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29	30.2	37	47.4	66	37.9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33	34.4	23	29.5	56	32.2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20.8	13	16.7	33	19.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11	11.5	3	3.8	14	8.0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2	2.1	2	2.6	4	2.3
	500만원 이상	1	1.0	0	0	1	.6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3. 공급자의 일반적 특성

사회서비스를 주로 공급하는 공급기관으로서 8개 지역 시·군청,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기관 등이 주를 이루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성이 72.6%로 남성 27.4%보다 3배 가량 많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6.3%로 가장 많았고, 40대, 20대가 각각 30.7%, 25.1% 등으로 나타나 고른 분포를 보였다.

공급자의 직업은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무자가 70.1%로 일반 업무종사자 보다 많았으며 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어 여성복지 관련기관과 아동복지 관련기관 실무자가 12.6%, 노인, 장애인, 아동복지관련기관 실무자는 3%미만으로 실무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종사자들의 근무경력은 평균 73.7개월(6.14년, 최단 1월~최장 486월) 정도로 나타남. 2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고 10년 넘는 장기근속자가 19.9%를 차지하였으며 이어 2년-4년 미만이 17.6%, 4년-6년 미만이 9.7% 순으로 나타남.

〈표 4-3〉 공급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성별	여성	72	72.7	58	72.5	130	72.6
	남성	27	27.3	22	27.5	49	27.4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연령	20대	31	31.3	14	17.5	45	25.1
	30대	33	33.3	32	40.0	65	36.3
	40대	28	28.3	27	33.8	55	30.7
	50대	6	6.1	4	5.0	10	5.6
	60대이상	1	1.0	3	3.8	4	2.2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월 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16	16.2	9	11.3	25	14.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52	52.5	38	47.5	90	50.3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4	24.2	24	30.0	48	26.8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3	3.0	7	8.8	10	5.6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4	4.0	2	2.5	6	3.4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직업 형태	공무원	32	33.3	48	61.5	80	46.0
	자활기관 실무자	4	4.2	0	0	4	2.3
	노인복지 관련기관 실무자	1	1.0	3	3.8	4	2.3
	장애인 복지 관련 기관 실무자	2	2.1	2	2.6	4	2.3
	아동복지관련기관 실무자	4	4.2	2	2.6	6	3.4
	여성복지관련기관 실무자	1	1.0	1	1.3	2	1.1
	종합사회복지관 실무자	18	18.8	4	5.1	22	12.6
	기타	34	35.4	18	23.1	52	29.9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근무 년수	2년 미만	43	43.9	22	28.2	65	36.9
	2년~4년미만	20	20.4	11	14.1	31	17.6
	4년~6년미만	7	7.1	10	12.8	17	9.7
	6년~8년미만	4	4.1	7	9.0	11	6.3
	8~10년미만	10	10.2	7	9.0	17	9.7
	10년미만	14	14.3	21	26.9	35	19.9
	합계	98	100	78	100	176	100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여건분석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수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지도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37.8%가 사회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모른다고 응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거주 응답자의 58.9%, 농촌거주 응답자의 66.3%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안다고 응답, 도시보다 농촌이 인지도가 다소 높았다.

〈표 4-4〉 이용자의 사회서비스사업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들어본 적이 없다	3	3.2	1	1.3	4	2.3
거의 모른다	12	12.6	10	12.5	22	12.6
대체로 모른다	24	25.3	16	20.0	40	22.9
대체로 알고 있다	52	54.7	43	53.8	95	54.3
매우 잘 알고 있다	4	4.2	10	12.5	14	8.0
합계	95	100	80	100	175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와 사업의 활성화 여부와는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고, 사업이 비교적 잘되고 있는 시군지역의 인지도와 잘 되고 있지 않은 시군지역과의 인지도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5〉 지역별 이용자의 사회서비스사업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잘되고 있는 지역				잘 안되고 있는 지역			
	도시형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군산	김제	완주	부안	전주	익산	임실	장수
들어본 적이 없다	0	0	0	0	3	0	1	0
거의 모른다	0	1	2	2	6	5	0	6
대체로 모른다	7	10	5	6	6	1	5	0
소계	18		15		21		12	
대체로 알고 있다	18	9	9	9	12	13	13	12
매우 잘 알고 있다	2	0	4	3	1	1	1	2
소계	29		25		27		28	
합계	47		40		36		40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0.6%로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다소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4-6〉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거의 모른다	7	7.3	7	8.9	14	8.0
대체로 모른다	50	52.1	42	53.2	92	52.6
대체로 알고 있다	37	38.5	30	38.0	67	38.3
매우 잘 알고 있다	2	2.1	0	0	2	1.1
합계	96	100	79	100	175	100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73.3%로 사회서비스 인지도 62.3%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장에서 바우처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도시, 농촌 간 차이가 없었다.

〈표 4-7〉 이용자의 바우처 제도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들어본 적이 없다	2	2.1	0	0	2	1.1
거의 모른다	5	5.2	8	10.0	13	7.4
대체로 모른다	18	18.8	14	17.5	32	18.2
대체로 알고 있다	68	70.8	51	63.8	119	67.6
매우 잘 알고 있다	3	3.1	7	8.8	10	5.7
합계	96	100	80	100	176	100

2.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보편성과 수요자 중심성

공급자의 입장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닌 특성들이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 보편성, 소비자 중심, 포괄 보조, 산업화 등 각 문항에서 56.2%, 67.4%, 60.2%, 69.3% 등 모두 과반수 이상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대상이 확대되어야 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 4-8〉 공급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정책운영 실현 정도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일반 서민 모두에게 서비스 수혜자격 확대(보편성)	전혀 동의안한다	1	1.0	2	2.5	3	1.7
	동의하지 않는다	9	9.1	12	15.2	21	11.8
	그저 그렇다	32	32.3	22	27.8	54	30.3
	동의한다	51	51.5	38	48.1	89	50
	매우 동의한다	6	6.1	5	6.3	11	6.2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전자바우처를 이용한 서비스사용자의 선택권 강화(소비자 중심)	전혀 동의안한다	0	0	2	2.5	2	1.1
	동의하지 않는다	3	3.0	10	12.7	13	7.3
	그저 그렇다	19	19.2	24	30.4	43	24.2
	동의한다	66	66.7	30	38.0	96	53.9
	매우 동의한다	11	11.1	13	16.5	24	13.5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사업설계와 운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확대(포괄보조)	전혀 동의안한다	1	1.0	2	2.5	3	1.7
	동의하지 않는다	9	9.1	5	6.3	14	7.9
	그저 그렇다	29	29.3	25	31.6	54	30.3
	동의한다	50	50.5	35	44.3	85	47.8
	매우 동의한다	10	10.1	12	15.2	22	12.4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사회서비스 산업화를 통한 지역 경제의 일자리 창출(산업화)	전혀 동의안한다	0	0	5	6.3	5	2.8
	동의하지 않는다	4	4.0	5	6.3	9	5.1
	그저 그렇다	22	22.2	19	24.1	41	23.0
	동의한다	54	54.5	34	43.0	88	49.4
	매우 동의한다	19	19.2	16	20.3	35	19.7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기관의 종사자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운용하고 참여할 때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나 보건복지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부분에 있어서는 그다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시장성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발굴과 설계, 사업홍보와 실제 이용자를 확보하는 일, 서비스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확보에는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 애로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9〉 공급자의 사업 운용참여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전혀 애로 없다	4	4.0	3	3.8	7	3.9
	거의 애로가 없다	36	36.4	22	27.5	58	32.4
	그저 그렇다	27	27.3	23	28.7	50	27.9
	애로가 있는 편이다	32	32.3	27	33.7	59	33.0
	매우 애로가 많다	0	0	5	6.3	5	2.8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시장성 있는 사회서비스 사업발굴과 설계	전혀 애로 없다	1	1.0	2	2.5	3	1.7
	거의 애로가 없다	6	6.1	6	7.5	12	6.7
	그저 그렇다	35	35.4	20	25.0	55	30.7
	애로가 있는 편이다	50	50.4	37	46.3	87	48.6
	매우 애로가 많다	7	7.1	15	18.7	22	12.3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사업홍보와 실제 이용자 확보	전혀 애로 없다	1	1.0	0	0	1	.6
	거의 애로가 없다	9	9.1	19	23.8	28	15.6
	그저 그렇다	33	33.3	15	18.7	48	26.8
	애로가 있는 편이다	47	47.5	40	50.0	87	48.6
	매우 애로가 많다	9	9.1	6	7.5	15	8.4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이용자의 민원 응대 및 만족도 관리	전혀 애로 없다	3	3.0	1	1.3	4	2.3
	거의 애로가 없다	17	17.2	14	17.7	31	17.4
	그저 그렇다	38	38.4	28	35.4	66	37.1
	애로가 있는 편이다	40	40.4	35	44.3	75	42.1
	매우 애로가 많다	1	1.0	1	1.3	2	1.1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서비스 제공기관 발굴과 참여유도	전혀 애로 없다	1	1.1	0	0	1	0.5
	거의 애로가 없다	19	19.2	13	16.3	32	17.9
	그저 그렇다	44	44.4	14	17.4	58	32.4
	애로가 있는 편이다	31	31.3	44	55.0	75	41.9
	매우 애로가 많다	4	4.0	9	11.3	13	7.3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서비스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성 확보	전혀 애로 없다	2	2.1	1	1.3	3	1.7
	거의 애로가 없다	16	16.2	6	7.6	22	12.3
	그저 그렇다	34	34.3	22	27.8	56	31.5
	애로가 있는 편이다	43	43.4	40	50.6	83	46.6
	매우 애로가 많다	4	4.0	10	12.7	14	7.9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복지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와 업무 협조	전혀 애로 없다	1	1.0	7	8.8	8	4.5
	거의 애로가 없다	16	16.2	14	17.4	30	16.8
	그저 그렇다	59	59.6	28	35.0	87	48.6
	애로가 있는 편이다	21	21.2	24	30.0	45	25.1
	매우 애로가 많다	2	2.0	7	8.8	9	5.0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공급자의 시각에서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요성에 대하여 73.4%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응답, 대다수가 중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공급자가 바라보는 전라북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요성 정도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전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0	0	1	1.3	1	0.6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	5	5.1	9	11.4	14	7.9
그저 그렇다	17	17.3	15	19.0	32	18.1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57	58.2	39	49.3	96	54.2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19	19.4	15	19.0	34	19.2
합계	98	100	79	100	177	100

현재 전국 가계평균소득 이하 가구에 속하면 해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수혜자격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급자들은 지금보다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51.7%,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 41.5%로, 수혜자격 기준 확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1〉 수혜자격기준 설정운용에 대한 공급자의 의견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저소득 취약계층에 국한해야 한다	3	3.1	6	7.6	9	5.1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	38	39.2	35	44.3	73	41.5
지금보다 수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54	55.6	37	46.8	91	51.7
기타	2	2.1	1	1.3	3	1.7
합계	97	100	79	100	176	100

가장 취약한 사회서비스 분야 영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고른 분포를 보였는데 특별가정 서비스가 1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청소년 서비스가 18.0%, 일반아동서비스, 가족서비스, 여성서비스 등이 14.6%, 13.5%, 12.9% 순으로 비

교적 고른 응답을 보였는데 특히 청소년 대상 서비스가 활성화하지 못하는 이
유는 학업이 최우선인 사회분위기도 한 몫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4-12〉 전북지역의 가장 취약한 사회서비스 분야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일반아동 서비스	11	11.2	15	18.8	26	14.6
장애아동 서비스	16	16.3	6	7.5	22	12.4
청소년 서비스	19	19.4	13	16.2	32	18.0
여성 서비스	10	10.2	13	16.3	23	12.9
가족 서비스	14	14.3	10	12.4	24	13.5
노인 서비스	7	7.1	4	5.0	11	6.2
장애인 서비스	3	3.1	2	2.5	5	2.7
특별가정 서비스	18	18.4	17	21.3	35	19.7
합계	98	100	80	100	178	100

전북지역 투자사업의 품질에 대한 공급자들의 의견은 그저 그렇다 42.7%, 높은 편이다 39.3%로 대체적으로 만족하는 편으로 나타났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4-13〉 전북지역의 투자사업의 품질 정도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매우 낮다	0	0	3	3.8	3	1.7
낮은 편이다	13	13.1	14	17.7	27	15.2
그저 그렇다	42	42.4	34	43.0	76	42.7
높은 편이다	42	42.4	28	35.4	70	39.3
매우 높다	2	2.0	0	0	2	1.1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현행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기대하는 사회기반확충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가장 시급한 사항은 국비보조 재원 확대에 관한 것으로 64.2%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재량이나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57.5%, 55.9%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4-14〉 사회기반확충 효과 창출을 위해 해결되어야 하는 사항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국비보조 재원 지원 확대	전혀 시급하지 않다	0	0	1	1.3	1	.6
	시급하지 않다	0	0	3	3.8	3	1.7
	그저 그렇다	14	14.1	13	16.3	27	15.1
	시급하다	65	65.7	50	62.5	115	64.2
	매우 시급하다	20	20.2	13	16.3	33	18.4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재량 확대	시급하지 않다	1	1.0	4	5.0	5	2.8
	그저 그렇다	27	27.3	21	26.3	48	26.8
	시급하다	57	57.6	46	57.5	103	57.5
	매우 시급하다	14	14.1	9	11.3	23	12.8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서비스 제공기관 인프라 확충	시급하지 않다	0	0	1	1.3	1	.6
	그저 그렇다	26	26.3	14	17.5	40	22.3
	시급하다	58	58.6	42	52.5	100	55.9
	매우 시급하다	15	15.2	23	28.8	38	21.2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용자들이 지역별 차이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 수준 때문에 가장 많이 고충을 겪고, 이용가능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본인 부담금은 얼마인지 등을 잘 몰라서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표 4-15〉 공급자가 바라보는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충사항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신청절차	21	21.2	12	15.0	33	18.4
서비스 제공인력의 태도(친절, 적극성, 예의)	4	4.0	3	3.8	7	3.9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품질수준	29	29.3	25	31.3	54	30.2
본인부담금 수준	15	15.2	12	15.0	27	15.1
제공기관의 각종 행정관리(출석체크, 만족도 조사 등)	6	6.1	5	6.3	11	6.1
이용가능 기간(횟수)	22	22.2	17	21.3	39	21.8
서비스 계약내용의 불이행	0	0	1	1.3	1	.6
애로사항 없음	2	2.0	5	6.3	7	3.9
합계	99	100	80	100	179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속했을 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기관들이 영리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41.5%가 뚜렷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시각이 31.8로 부정적인 의견인 20.5%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비영리 민간기관들이 영리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전혀 가능성 없다	1	1.0	5	6.4	6	3.4
가능성 없다	21	21.4	15	19.2	36	20.5
그저 그렇다	45	45.9	28	35.9	73	41.5
가능성이 크다	27	27.6	29	37.2	56	31.8
매우 가능성이 크다	4	4.1	1	1.3	5	2.8
합계	98	100	78	100	176	100

또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확대된다면 지역의 실업 해소에 어느 정도 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65.3%로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농촌지역(53.8%)이 도시지역(74.5%)에 비해 기여 예측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4-17〉 비영리 민간기관들의 실업해소 기여 예측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전혀 기여 없다	1	1	0	0	1	0.6
기여하지 못한다	6	6.1	6	7.7	12	6.8
그저 그렇다	18	18.4	30	38.5	48	27.3
어느 정도 기여한다	52	53.1	33	42.3	85	48.3
상당히 기여한다	21	21.4	9	11.5	30	17.0
합계	98	100	78	100	176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들의 영업 이윤 확보에 대해서도 수지균형이라는 응답이 5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익이 된다는 의견이 32.2%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손해를 보면서도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도 12.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복지관 등 제공기관들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만으로도 벽차기 때문에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표 4-1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제공기관 영업이윤 확보 정도

(단위 : 명,%)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매우 손해가 크다	0	0	1	1.3	1	0.6
손해가 있다	10	10.1	11	14.1	21	11.9
수지균형이다	51	51.5	42	53.8	93	52.5
이익이 있다	34	34.3	23	29.5	57	32.2
매우 이익이 크다	4	4.0	1	1.3	5	2.8
합계	99	100	78	100	177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공급자의 일자리가 비교적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한다면 월평균 급여 정도에 대해서 응답자의 45.5%가 150만원~200만원이라고 응답하였고, 이어 100만원~150만원 응답자가 41.6%, 200만원 이상 11.8%, 100만원 미만이 1.1%로 나타남.

〈표 4-19〉 공급자의 적절한 월평균 급여정도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100만원 미만	2	20	0	0	2	1.1
100만원 ~ 150만원	36	36.4	38	48.1	74	41.6
150만원 ~ 200만원	49	49.5	32	40.5	81	45.5
200만원 이상	12	12.1	9	11.4	21	11.8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3.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이용 실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2.9%가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에 의해 알게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7.7%는 주위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60.6%가 기관의 홍보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보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역별로 보면 농촌지역은 시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의 홍보를 통해 사업을 알게 되었다는 의견이 37.2%로 가장 많이 나타나 도시지역과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표 4-20〉 이용자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인지 방법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TV,신문 등 언론을 통해	5	5.3	2	2.6	7	4.0
인터넷을 통해	3	3.2	1	1.3	4	2.3
시청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직원의 홍보를 통해	24	25.3	29	37.2	53	30.6
서비스 제공기관의 홍보를 통해	34	35.8	23	29.5	57	32.9
주위 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해	27	28.4	21	26.9	48	27.7
기타	2	2.1	2	2.6	4	2.3
합계	95	100	78	100	173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과정에서 발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고, 신청 당시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한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본인부담금 외 정부지원금 역시 잘 알고 있었고, 본

인 부담금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미리 알고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역시 국가에 신세진다고 생각하기보다 떳떳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표 4-21〉 이용자의 투자서비스 신청 당시 공감 정도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평소에 내게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2	2.6	2	1.1
	그렇지 않다	2	2.1	6	7.7	8	4.6
	보통	19	19.8	17	21.8	36	20.7
	그렇다	56	58.3	32	41.0	88	50.6
	매우 그렇다	19	19.8	21	26.9	40	23.0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국가에 신세지는 것 같아 떳떳치 못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9	30.5	28	35.9	57	32.9
	그렇지 않다	46	48.4	33	42.3	79	45.7
	보통	15	15.8	15	19.2	30	17.3
	그렇다	4	4.2	2	2.6	6	3.5
	매우 그렇다	1	1.1	0	0	1	0.6
	합계	95	100.0	78	100	173	100.0
내가 부담하는 비용외에 정부에서 개인 당 지원해주는 금액을 잘 알고 있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	3	3.1	0	0	3	1.7
	그렇지 않다	18	18.8	2	2.6	20	11.5
	보통	25	26.0	27	34.6	52	29.9
	그렇다	31	32.3	35	44.9	66	37.9
	매우 그렇다	19	19.8	14	17.9	33	19.0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이 많아 서비스 신청을 주저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5	26.0	20	25.6	45	25.9
	그렇지 않다	31	32.3	29	37.2	60	34.5
	보통	30	31.3	18	23.1	48	27.6
	그렇다	9	9.4	6	7.7	15	8.6
	매우 그렇다	1	1.0	5	6.4	6	3.4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신청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2.1	1	1.3	3	1.7
	그렇지 않다	15	15.6	7	8.9	22	12.6
	보통	33	34.4	17	21.5	50	28.6
	그렇다	36	37.5	41	51.9	77	44.0
	매우 그렇다	10	10.4	13	16.5	23	13.1
	합계	96	100	79	100	175	100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선택했다	전혀 그렇지 않다	4	4.2	0	0	4	2.3
	그렇지 않다	13	13.5	10	12.7	23	13.1
	보통	33	34.4	13	16.5	46	26.3
	그렇다	35	36.5	38	48.1	73	41.7
	매우 그렇다	11	11.5	18	22.8	29	16.6
	합계	96	100	79	100	175	100

이용자들이 투자서비스를 이용할 당시 투자서비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서비스 내용 또한 들었던 그대로 제공받고 있다는 응답이 83.3%에 달했다.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제공기관 역시 개선하려는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비스 질에 있어서도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하고 있다는 응답이 49.1%로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80.5%가 서비스 신청기간이 끝나도 또 이용하고 싶다고 대답한 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2〉 이용자의 투자서비스 이용에 대한 공감 정도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신청할 때 들었던 서비스 내용들을 그대로 제공받고 있다	그렇지 않다	1	1.0	1	1.28	2	1.1
	보통	13	13.5	14	17.95	27	15.5
	그렇다	62	64.6	48	61.54	110	63.2
	매우 그렇다	20	20.8	15	19.23	35	20.1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만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1	1.3	1	.6
	그렇지 않다	7	7.3	3	3.8	10	5.7
	보통	30	31.3	26	33.3	56	32.2
	그렇다	52	54.2	43	55.1	95	54.6
	매우 그렇다	7	7.3	5	6.4	12	6.9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의견이나 불편사항을 제시하면 제공기관은 적극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렇지 않다	5	5.2	3	3.8	8	4.6
	보통	21	21.9	17	21.5	38	21.7
	그렇다	57	59.4	41	51.9	98	56.0
	매우 그렇다	13	13.5	18	22.8	31	17.7
	합계	96	100	79	100	175	100
본인부담금이 적어서 불만이 있어도 그냥 지나친다	전혀 그렇지 않다	9	9.5	11	14.5	20	11.7
	그렇지 않다	37	38.9	32	42.1	69	40.4
	보통	37	38.9	17	22.4	54	31.6
	그렇다	10	10.5	13	17.1	23	13.5
	매우 그렇다	2	2.1	3	3.9	5	2.9
	합계	95	100	76	100	171	100
서비스를 신청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프로그램 내용이 상당히 좋다	그렇지 않다	3	3.1	9	11.7	12	6.9
	보통	28	29.2	18	23.4	46	26.6
	그렇다	50	52.1	35	45.5	85	49.1
	매우 그렇다	15	15.6	15	19.5	30	17.3
	합계	96	100	77	100	173	100
서비스를 받으면서 기대했던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 않다	1	1.0	3	3.8	4	2.3
	보통	29	30.2	22	28.2	51	29.3
	그렇다	52	54.2	44	56.4	96	55.2
	매우 그렇다	14	14.6	9	11.5	23	13.2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현재 받고 있는 서비스의 법정 이용기간이 끝나도 가능하면 서비스를 계속 받고 싶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	5.1	4	2.3
	그렇지 않다	5	5.2	2	2.6	7	4.0
	보통	14	14.6	9	11.5	23	13.2
	그렇다	41	42.7	32	41.0	73	42
	매우 그렇다	36	37.5	31	39.7	67	38.5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앞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에 관한 질문에 서비스의 내용이 좋으면 이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9.2%로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의 질에 따라 이용을 결정하겠다고 응답했으나 본인부담금이 많아지거나 전액 개인 부담이 될 경우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나 비용이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표 4-23〉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의향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현재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많아져도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5	5.2	1	1.3	6	3.4
	그렇지 않다	20	20.8	22	28.2	42	24.1
	보통	40	41.7	28	35.9	68	39.1
	그렇다	28	29.2	18	23.1	46	26.4
	매우 그렇다	3	3.1	9	11.5	12	6.9
	합계	96	100	78	100	174	100.0
현재보다 비용이 더 높아져도 내용이 좋으면 이용할 예정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	2.1	2	2.6	4	2.3
	그렇지 않다	9	9.4	7	9.0	16	9.2
	보통	28	29.2	23	29.5	51	29.3
	그렇다	51	53.1	39	50.0	90	51.7
	매우 그렇다	6	6.3	7	9.0	13	7.5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법정 이용기간이 끝난 후 전액 개인 부담이라도 계속 이용할 계획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24	25.0	9	11.5	33	19.0
	그렇지 않다	27	28.1	37	47.4	64	36.8
	보통	31	32.3	22	28.2	53	30.5
	그렇다	14	14.6	8	10.3	22	12.6
	매우 그렇다	0	0	2	2.6	2	1.1
	합계	96	100	78	100	174	100

제 3 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대상별 · 지역별 욕구분석

1. 일반 아동

조사 지역 영·유아를 포함한 일반 아동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별로 2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조사결과를 보면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돌봄(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방과후 보육서비스, 아동안전, 방과후 교육, 문화체험 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응답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도시지역이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있어서 농촌지역보다 욕구가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도시지역에는 보육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유난히 문화체험 부분 욕구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현재 접근성이 도시지역에 비해 문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농촌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지역별로 필요 서비스가 약간 달랐다. 돌봄(보육) 서비스 필요성을 전주가 28명 중 11명이 밝혀 가장 높았고, 임실과 장수 각 20명 중 10명이 답하였으며, 김제는 아동안전(19명 중 7명)을, 익산은 방과후 보육(20명 중 10명)을 가장 원했다.

설문 결과 일반 아동에게 가장 기본적인 돌봄, 보육 서비스 등 기본적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서비스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아동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사용자의 경우 일반아동과 장애아동 통합교육서비스나 아동 안전관리 및 문제아동 치료프로그램과 가족치료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공급자의 경우 보건진료서비스 강화, 학교 수업후 아이돌보미, 방과후 교육, 특기생활지도, 친구와 어울리는 공동체 프로그램, 직업탐색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4-24〉 일반아동(영유아포함)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합계			수요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소계		도시형		농촌형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돌봄(보육)	226	21.3	24	3	51	26	3	55	106	20.2	31	5	67	24	5	53	120	22.5
방과후 보육	151	14.2	21	7	49	14	3	31	80	15.2	21	10	52	8	3	19	71	13.3
식사지원	33	3.1	4	3	11	0	1	1	12	2.3	5	2	12	4	1	9	21	3.9
상담	32	3.0	4	2	10	2	0	4	14	2.7	4	4	12	1	4	6	18	3.4
아동안전	120	11.3	15	7	37	11	5	27	64	12.2	14	7	35	6	9	21	56	10.5
정신건강	62	5.8	6	9	21	1	4	6	27	5.1	5	8	18	8	1	17	35	6.6
건강발달	40	3.8	1	8	10	4	6	14	24	4.6	4	4	12	1	2	4	16	3.0
문제아 조기 개입 (선정성질환 등)	54	5.1	5	4	14	0	3	3	17	3.2	2	10	14	6	11	23	37	6.9
방과후 교육	103	9.7	2	21	25	7	14	28	53	10.1	7	12	26	8	8	24	50	9.4
영어 학습 지원	46	4.3	6	7	19	6	4	16	35	6.7	0	2	2	4	1	9	11	2.1
방문학습 지도	30	2.8	2	2	6	0	7	7	13	2.5	0	4	4	3	7	13	17	3.2
문화체험	85	8.0	2	13	17	7	12	26	43	8.2	0	13	13	6	17	29	42	7.9
여가지원	15	1.4	1	4	6	0	2	2	8	1.5	0	5	5	0	2	2	7	1.3
도서관	13	1.2	0	3	3	0	5	5	8	1.5	1	2	4	0	1	1	5	0.9
생활체육	22	2.1	3	3	9	1	6	8	17	3.2	0	3	3	0	2	2	5	0.9
시설임소	2	0.2	0	0	0	1	0	2	2	0.4	0	0	0	0	0	0	0	0.0
공동생활거점 임소	3	0.3	0	0	0	0	1	1	1	0.2	0	1	1	0	1	1	2	0.4
주거환경개선(소득 등)	15	1.4	0	0	0	0	2	2	2	0.4	1	7	9	0	4	4	13	2.4
합계	1060	100	96	96	288	80	78	238	526	100	99	99	297	79	79	237	534	100.0

가중치 : 1순위 200, 2순위 100

2. 장애아동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응답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수요자는 돌봄, 재활심리치료, 특수교육, 인지능력 향상, 놀이치료 등 보다 교육적인 부분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급자는 재활심리치료, 돌봄서비스, 특수교육,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 방과후 인지 능력 향상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요자의 경우 도시지역은 돌봄서비스, 재활심리치료, 인지능력 향상, 특수교육, 놀이치료,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 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농촌지역은 재활심리치료, 특수교육, 돌봄 인지능력 향상 등의 순으로 나타남. 특히 전주지역은 장애아동의 돌봄(보육) 서비스를 28명 중 10명이, 익산이 18명 중 7명이 원하고 있었다.

공급자의 경우는 도시지역은 재활심리치료, 돌봄서비스,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서비스 등으로 나타났고, 농촌지역은 재활심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으며, 돌봄서비스, 특수교육 등의 시설 등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실제 장애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장애아동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이나 재활, 놀이치료 등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기를 수요자들이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아동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사용자의 경우 통합교육, 일반아동+장애아동 연합교육 서비스, 성교육상담 서비스, 안전관리 및 가족지지체계, 가족상담 서비스, 주말 돌보미 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서비스, 장애아동의 사회경험준비 교육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공급자는 장애용품지원, 놀이치료, 진로지도, 장애아동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경계성 아동의 특수교육, 여가관리 및 지역사회 체험 등의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5〉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

구 분	합 계	수요자						금급자									
		도시형		농촌형		소계	도시형		농촌형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돌봄(보육)	184	31	5	67	13	2	28	95	18.1	23	4	50	17	5	39	89	16.7
방과후 보육	44	2	4	8	2	2	6	14	2.7	4	10	18	5	2	12	30	5.6
인지능력 향상	90	13	10	36	6	2	14	50	9.5	3	7	13	11	5	27	40	7.5
재활심리치료	196	15	8	38	19	9	47	85	16.2	24	11	59	21	10	52	111	20.8
놀이치료	74	8	8	24	8	7	23	47	9.0	5	2	12	5	5	15	27	5.1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	123	8	15	31	8	7	23	54	10.3	16	15	47	7	8	22	69	12.9
간강관리	28	2	3	7	2	3	7	14	2.7	1	3	5	2	5	9	14	2.6
영양관리	9	1	2	4	1	2	4	8	1.5	0	1	1	0	0	0	1	0.2
특수교육	163	10	15	35	13	21	47	82	15.6	15	17	47	9	16	34	81	15.2
방과후 교육	24	1	5	7	2	0	4	11	2.1	1	7	9	1	2	4	13	2.4
장애용품 지원	35	1	9	11	1	6	8	19	3.6	3	6	12	1	2	4	16	3.0
문화학습	22	0	4	4	4	2	10	14	2.7	1	1	3	0	5	5	8	1.5
문화체험	30	1	3	5	1	3	5	10	1.9	3	5	11	0	9	9	20	3.8
도서관	5	0	1	1	0	1	1	2	0.4	0	1	1	0	2	2	3	0.6
생활체육	21	2	3	7	0	7	7	14	2.7	0	6	6	0	1	1	7	1.3
시설임소	9	0	0	0	0	5	5	5	1.0	0	3	3	0	1	1	4	0.8
합 계	1057	95	95	285	80	79	239	524	100	99	99	297	79	78	236	533	100

가중치 : 1순위 200, 2순위 100

3. 청소년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자, 공급자 모두 상담이 25.5%, 28.3%로 다른 서비스보다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어 수요자에게는 비행예방, 폭력예방 서비스,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가 15.5%, 10.3%, 10%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자는 학교사회복지, 특기적성지원 등에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 응답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나 도시지역 수요자의 경우 상담, 비행예방, 폭력예방 등의 서비스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농촌지역 수요자의 경우도 상담, 비행예방, 폭력예방, 특기적성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이 높았다. 상담서비스 수요가 가장 높은 가운데 김제와 익산, 임실지역이 각 20명 중 8명과 7명, 7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장수도 18명 중 9명이 상담의 필요성에 답하였다.

공급자의 경우 도시지역은 학교 사회복지나 특기적성지원 등에 높은 관심을 보여준 반면, 농촌지역은 상담, 폭력예방, 비행예방 등 정서적인 서비스를 보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이용자 중에서 흡연예방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하였고, 공급자의 경우 전문적인 기술습득 서비스를 비롯하여 성교육, 예절교육, 역사문화체험교육, 직업탐색, 민주시민의식교육, 보건서비스, 1:1 멘토자, 리더십교육 등의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청소년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수요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소 계		도시형		농촌형		소 계				
			1	2	1	2	소 계	1	2	1	2	소 계					
비행예방	125	11.8	25	2	52	13	3	29	81	15.5	7	6	10	4	24	44	8.2
폭력예방	103	9.8	10	6	26	12	4	28	54	10.3	11	2	9	7	25	49	9.2
알콜 및 약물예방	25	2.4	2	6	10	1	0	2	12	2.3	0	4	3	3	9	13	2.4
상담	284	26.9	27	24	78	24	7	55	133	25.5	44	14	20	9	49	151	28.3
학교사회복지	112	10.6	11	9	31	8	5	21	52	10.0	14	12	7	6	20	60	11.2
정신건강	63	6.0	3	7	13	3	6	12	25	4.8	6	12	6	2	14	38	7.1
간경관리	10	0.9	1	1	3	0	2	2	5	1.0	0	3	1	0	2	5	0.9
방과후 교육	44	4.2	2	7	11	6	5	17	28	5.4	2	0	3	6	12	16	3.0
영어학습 지원	43	4.1	6	5	17	1	2	4	21	4.0	0	2	2	9	20	22	4.1
특기적성지원	88	8.3	3	12	18	4	10	18	36	6.9	8	17	5	9	19	52	9.7
사회적응교육	34	3.2	1	3	5	2	7	11	16	3.1	2	8	0	6	6	18	3.4
문화체험	53	5.0	3	3	9	2	9	13	22	4.2	3	7	3	12	18	31	5.8
여가지원	31	2.9	0	6	6	0	3	3	9	1.7	2	7	2	7	11	22	4.1
도서관	9	0.9	0	3	3	1	0	2	5	1.0	0	2	0	2	2	4	0.7
생활체육	19	1.8	2	2	6	1	6	8	14	2.7	0	3	0	2	2	5	0.9
시설임소	3	0.3	0	0	0	0	1	1	1	0.2	0	0	1	0	2	2	0.4
공동생활기정인소	10	0.9	0	0	0	0	8	8	8	1.5	0	0	0	2	2	2	0.4
합 계	1056	100	96	96	288	78	78	234	522	100	99	99	79	79	237	534	100

가중치 : 1순위 200, 2순위 100

4. 여성

성인여성에 대한 서비스 욕구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자녀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2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평생교육 18.2%, 직업능력 개발 14.6%, 고용지원 8.4%, 특기 및 취미활동지원 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요자는 자녀돌봄, 자기개발, 직업능력개발, 특기 및 취미활동지원, 평생교육 등에 대한 욕구를 높게 답했으며, 공급자는 자녀돌봄, 자기개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특기 및 취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의 경우 수요자는 자녀돌봄, 자기개발,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평생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자는 자기개발, 자녀돌봄, 직업능력개발, 특기 및 취미활동 지원 등의 순으로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김제 수요자의 경우 20명 중 11명이 자녀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 다른 서비스 응답률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농촌지역의 경우 성인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결과를 보면 수요자는 직업능력개발, 자기개발이 돌봄보다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일을 갖고 싶어 하는 욕구가 도시지역보다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여성 서비스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수요자는 이야기 들어주기 서비스가 필요하며, 일시 보호시설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하였다. 공급자는 생산성 있는 취미활동, 직업능력개발지원과 자녀돌봄, 심리상담 및 자아개발과 성취 관련 프로그램, 직업적성검사 서비스 등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표 4-27〉 성인여성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분	합계	수요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자녀돌봄	255	38	5	81	15	2	32	113	21.4	39	8	86	26	4	56	142	26.7
노인돌봄	30	3	2	8	5	4	14	22	4.2	2	4	8	0	0	0	8	1.5
가족상담	55	3	5	11	5	2	12	23	4.4	4	6	14	7	4	18	32	6.0
산모(신생아)도우미	45	3	4	10	3	3	9	19	3.6	3	6	12	5	4	14	26	4.9
정신건강	28	5	0	10	1	2	4	14	2.7	2	3	7	3	1	7	14	2.6
노약자 간병	15	1	3	5	1	3	5	10	1.9	1	0	2	1	1	3	5	0.9
가정 방제방역	10	0	0	0	0	0	0	0	0.0	4	2	10	0	0	0	10	1.9
자기개발	193	25	15	65	16	7	39	104	19.7	16	8	40	19	11	49	89	16.7
평생교육	62	4	6	14	7	8	22	36	6.8	4	5	13	1	11	13	26	4.9
특기및취미활동지원	73	0	13	13	6	13	25	38	7.2	3	11	17	5	8	18	35	6.6
여가지원	31	1	7	9	2	4	8	17	3.2	0	5	5	2	5	9	14	2.6
생활체육	6	0	2	2	0	0	0	2	0.4	0	1	1	1	1	3	4	0.8
직업능력 개발	148	8	15	31	13	18	44	75	14.2	14	20	48	5	15	25	73	13.7
고용지원	89	2	15	19	4	14	22	41	7.8	6	16	28	3	14	20	48	9.0
일시대피시설임수	5	0	3	3	0	0	0	3	0.6	0	0	0	1	0	2	2	0.4
임대주택	15	3	1	7	2	0	4	11	2.1	1	2	4	0	0	0	4	0.8
합계	1060	96	96	288	80	80	240	528	100	99	97	295	79	79	237	532	100

가중치 : 1순위 200, 2순위 100

5. 노인

수요자의 경우 노인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18.4%로 가장 높고, 노인일자리, 건강관리, 재가서비스, 문화생활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자의 경우는 노인일자리가 20.8%로 가장 높은 응답결과를 보였고, 이어 노인돌봄, 노인간병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수요자는 노인돌봄, 노인일자리, 건강관리, 노인간병, 문화생활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지역 공급자는 노인일자리, 노인돌봄, 재가서비스, 건강관리 순으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요자는 돌봄 관련 쪽에, 공급자는 일자리 제공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농촌지역도 수요자의 경우 돌봄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월등히 높았으며, 건강관리, 노인일자리, 문화생활, 노인학대 예방, 재가서비스 등의 순으로 나타나 농촌지역에서 노인의 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특히 노인인구가 높은 읍면지역에서 20명 중 11명이 노인돌봄 서비스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이 분야의 서비스 제공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공급자의 경우 역시 노인일자리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노인돌봄, 건강관리, 재가서비스 등으로 나타나 응답에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노인서비스에 대한 개방형 응답에서는 수요자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조사하여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병원 입원 시 간병 서비스와 서비스제공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차량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공급자는 놀이문화 개선, 생활체육, 여가지원 등의 서비스와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8〉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수요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노인돌봄	201	190	25	4	54	20	3	43	97	18.4	24	9	57	21	5	47	104	19.7
재가서비스	110	104	15	6	36	7	5	19	55	10.4	11	7	29	9	8	26	55	10.4
식사지원	50	4.7	6	2	14	7	2	16	30	5.7	3	5	11	4	1	9	20	3.8
노인안전	33	3.1	3	7	13	2	2	6	19	3.6	4	0	8	1	4	6	14	2.7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콜택시 등)	65	6.2	4	5	13	5	6	16	29	5.5	6	10	22	6	2	14	36	6.8
노인학대 예방	17	1.6	2	2	6	0	1	1	7	1.3	3	1	7	1	1	3	10	1.9
건강관리	128	12.1	15	9	39	8	10	26	65	12.3	11	7	29	13	8	34	63	11.9
노인간병	72	6.8	6	10	22	5	8	18	40	7.6	7	5	19	4	5	13	32	6.1
자기개발	36	3.4	3	1	7	5	3	13	20	3.8	2	4	8	3	2	8	16	3.0
평생교육	25	2.4	1	6	8	3	3	9	17	3.2	0	1	1	2	3	7	8	1.5
문화생활	65	6.2	3	12	18	7	9	23	41	7.8	3	6	12	3	6	12	24	4.5
여가지원	48	4.5	1	8	10	2	12	16	26	4.9	3	4	10	1	10	12	22	4.2
생활체육	6	0.6	1	0	2		2	2	4	0.8	0	0	0	0	0	2	2	0.4
노인일자리	177	16.8	10	21	41	7	12	26	67	12.7	19	35	73	10	17	37	110	20.8
시설입소	11	1.0	1	3	5	0	1	1	6	1.1	1	2	4	0	1	1	5	0.9
공동생활거점 입소	2	0.2	0	0	0	0	0	0	0	0.0	0	0	0	0	0	2	2	0.4
경로당 소득	10	0.9	0	0	0	2	1	5	5	0.9	1	2	4	0	1	1	5	0.9
합 계	1066	100	96	96	288	80	80	240	528	100	98	98	294	78	78	234	528	100

가중치 : 1순위 200, 2순위 100

6. 특별가정 서비스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새터민(탈북자) 가정 등 최근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이루는 특별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 문화학습 15.9%, 직업능력개발 14.9%, 자녀 돌봄 14.9%, 방문학습지도 12.3%, 고용지원 10%, 정신건강 9.2% 등의 순으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자의 경우 문화학습, 직업능력개발, 방문학습지도, 자녀돌봄, 고용지원 등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으며, 공급자의 경우는 자녀 돌봄, 문화학습, 직업능력개발, 방과후 교육, 정신건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수요자의 경우 문화학습, 문화체험, 자녀돌봄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공급자의 경우 문화학습, 자녀돌봄, 직업능력개발, 고용지원, 정신건강 등의 순이었다. 농촌지역의 경우 수요자는 방문학습지도, 자녀돌봄이 높게 나타나 자녀들의 교육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의 경우도 농촌지역의 경우 자녀돌봄이 1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문화학습, 직업능력개발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별가정에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기술하도록 한 개방형 질문에서는 수요자의 경우 탈북 부모의 사회화, 다문화 부모의 자녀교육, 상담, 조부모의 손자녀 교육서비스 제공, 멘토링 프로그램, 유치원 초등학교 혼합교육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공급자는 일자리 지원 서비스와 다문화 대상자보다 가족이 되는 다문화 이해교육이 주가 되는 서비스, 자녀 언어교육, 이주여성 한국어 교육서비스 등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29〉 특별가정에 가장 필요한 서비스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수요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저녀돌봄	158	12	6	30	14	9	37	67	12.7	21	5	47	17	10	44	91	17.1
식사지원	19	4	2	10	1	2	4	14	2.7	0	3	3	0	2	2	5	0.9
정신건강	98	8	3	19	10	0	20	39	7.4	12	7	31	12	4	28	59	11.1
영양관리	16	2	2	6	1	2	4	10	1.9	1	2	4	0	2	2	6	1.1
방과후교육	89	14	6	34	4	3	11	45	8.5	8	5	21	10	3	23	44	8.3
방문학습지도	130	11	6	28	17	8	42	70	13.3	8	7	23	13	11	37	60	11.3
문화학습	168	23	13	59	10	7	27	86	16.3	23	14	60	5	12	22	82	15.4
문화체험	92	5	22	32	4	11	19	51	9.7	2	14	18	7	9	23	41	7.7
직업능력개발	158	10	17	37	14	18	46	83	15.7	13	18	44	10	11	31	75	14.1
고용지원	106	6	16	28	5	16	26	54	10.2	7	19	33	4	11	19	52	9.8
소득, 방역	15	0	2	2	0	0	0	2	0.4	4	4	12	0	1	1	13	2.4
일시보호시설 입소	10	1	1	3	0	4	4	7	1.3	0	1	1	0	2	2	3	0.6
합 계	1059	96	96	288	80	80	240	528	100	99	99	297	78	78	234	531	100

기준치 : 1순위 200, 2순위 100

제 4 절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발방향

1. 바람직한 개발모형

전북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개발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사회통합모형과 일자리 창출형이 24.9%, 25.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형은 일자리 창출모형보다 사회통합모형을, 농촌지역은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농촌지역의 일자리 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수지역은 일자리 창출모형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수요자가 20명 가운데 14명에 이르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모형은 사회통합과 일자리 창출이 같이 이루어지는 모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표 4-30〉 비람직한 개발 모형

(단위 : 명,%)

구 분	합 계	수요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도시형			농촌형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1	2	소계				
산업화모형	25	3	2	8	2	2	6	14	2.7	4	1	9	1	0	2	11	2.1
사회통합모형	257	29	9	67	18	3	39	106	20.5	41	11	93	26	6	58	151	29.4
인제양성모형	189	22	11	55	28	14	70	125	24.1	14	11	39	7	11	25	64	12.5
일자리창출모형	262	17	24	58	23	21	67	125	24.1	23	25	71	26	14	66	137	26.7
생태환경모형	61	10	8	28	0	2	2	30	5.8	6	9	21	3	4	10	31	6.0
전문특화모형	142	8	28	44	6	21	33	77	14.9	6	22	34	7	17	31	65	12.6
자립자활모형	96	5	11	21	3	14	20	41	7.9	3	17	23	6	20	32	55	10.7
합 계	1032	94	93	281	80	77	237	518	100	97	96	290	76	72	224	514	100

기준치 : 1순위 200, 2순위 100

2. 개발되어야 할 시급한 분야

개발되어야 할 시급한 분야는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을 포함한 가족복지 분야가 26.5%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어 청소년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분야가 21.3%, 12.7%, 12.4%, 12.1%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복지 분야가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이 높게 나타난 것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정이 도시지역에 많기 때문에 보다 많은 아동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1〉 추가적으로 사회서비스가 개발·공급되어야 할 분야

(단위 : 명,%)

구분	합계		이용자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소계		도시형		농촌형		소계	
아동복지	43	12.4	19	20.0	8	10.1	27	15.5	10	10.4	6	7.8	16	9.2
장애인복지	42	12.1	15	15.8	8	10.1	23	13.2	11	11.5	8	10.4	19	11.0
노인복지	46	13.3	11	11.6	12	15.2	23	13.2	10	10.4	13	16.9	23	13.3
청소년복지	74	21.3	19	20.0	15	19.0	34	19.5	23	24.0	17	22.1	40	23.1
여성복지	44	12.7	10	10.5	14	17.7	24	13.8	10	10.4	10	13.0	20	11.6
가족복지	92	26.5	21	22.1	22	27.8	43	24.7	27	28.1	22	28.6	49	28.3
기타	6	100	0	0	0	0	0	0	5	5.2	1	1.3	6	3.5
합계	347	100	95	100	79		174	100	96	100	77	100	173	100

3.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의 자격 기준이나 규모 등을 확대하는 것이 31.3%로 가장 높게 응답을 보였고, 이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 서비스 내용 홍보가 30.1%, 28.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에 사는 이용자들은 기준이나 규모의 확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홍보 역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농촌에

사는 이용자들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이용자의 자격이나 기준, 서비스 내용 등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4-32〉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구분	이용자					
	합계		도시형		농촌형	
이용자 자격 기준 및 규모 확대	55	31.3	32	33.3	23	28.8
서비스 내용 홍보	50	28.4	29	30.2	21	26.3
서비스 이용과정에서의 민원대응	4	2.3	2	2.1	2	2.5
서비스 제공기관 수의 확대	6	3.4	5	5.2	1	1.3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53	30.1	24	25.0	29	36.3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	5	2.8	2	2.1	3	3.8
기타	3	1.7	2	2.1	1	1.3
합계	176	100	96	100	80	10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공기관들은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성,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바우처 수단 활성화, 시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평가와 결과 공개,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 경쟁, 실무자의 정책 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도시지역, 농촌지역 유사했으나 통합을 통한 조직규모의 확대에 있어서 농촌지역은 찬성이 압도적이거나 도시지역은 보통이거나 반대쪽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표 4-33〉 공급자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단위 : 명, %)

구분	공급자						
	도시형		농촌형		합계		
민간기업 참여 등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성 확대	매우 반대	2	2.0	2	2.5	4	2.2
	반대	9	9.1	5	6.3	14	7.9
	보통	24	24.2	18	22.8	42	23.6
	찬성	55	55.6	46	58.2	101	56.7
	매우 찬성	9	9.1	8	10.1	17	9.6
	합계	99	100	79	99.9	178	100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바우처 수단 활성화	반대	11	11.1	4	5.1	15	8.4
	보통	25	25.3	20	25.3	45	25.3
	찬성	51	51.5	46	58.2	97	54.5
	매우 찬성	12	12.1	9	11.4	21	11.8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시군구 중심의 서비스 제공 관할구역 경계 제한 폐지	매우 반대	5	5.1	4	5.1	9	5.1
	반대	28	28.3	5	6.3	33	18.5
	보통	33	33.3	31	39.2	64	36.0
	찬성	29	29.3	28	35.4	57	32.0
	매우 찬성	4	4.0	11	13.9	15	8.4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시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평가와 결과 비교 공개	반대	8	8.1	2	2.6	10	5.6
	보통	32	32.3	27	34.6	59	33.3
	찬성	46	46.5	36	46.2	82	46.3
	매우 찬성	13	13.1	13	16.7	26	14.7
	합계	99	100	78	100.1	177	99.9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 경쟁 활성화	매우 반대	4	4.0	1	1.3	5	2.8
	반대	12	12.1	4	5.1	16	9.0
	보통	24	24.2	28	35.4	52	29.2
	찬성	47	47.5	39	49.4	86	48.3
	매우 찬성	12	12.1	7	8.9	19	10.7
	합계	99	99.9	79	100.1	178	100
사회서비스 제공기관들 간 통합을 통한 조직규모 확대	매우 반대	2	2.0	0	0	2	1.1
	반대	22	22.2	7	8.9	29	16.3
	보통	33	33.3	22	27.8	55	30.9
	찬성	34	34.3	41	51.9	75	42.1
	매우 찬성	8	8.1	9	11.4	17	9.6
	합계	99	99.9	79	100	178	100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기관 실무자의 정책개발 지원	매우 반대	0	0	0	0	0	0
	반대	1	1.0	2	2.5	3	1.7
	보통	21	21.2	18	22.8	39	21.9
	찬성	58	58.6	42	53.2	100	56.2
	매우 찬성	19	19.2	17	21.5	36	20.2
	합계	99	100	79	100	178	100

4.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

도시지역, 농촌지역 이용자들은 서비스 사업들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 예산확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중복응답, 33.9%)고 생각하고 있다. 이어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22.0%, 서비스 이용자 고객관리 강화 15.8%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이용자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 필요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도시형		농촌형		합계	
	명	%	명	%	명	%
안정적인 사업 예산확보	62	32.5	52	35.9	114	33.9
서비스 마케팅 역량강화	23	12.0	10	6.9	33	9.8
서비스 이용자 고객관리 강화	27	14.1	26	17.9	53	15.8
담당인력의 전문성 강화	35	18.3	39	26.9	74	22.0
제공기관들 간 경쟁체계 구축	14	7.3	8	5.5	22	6.5
이용가능기간(횟수)서비스 가격 인상	14	7.3	4	2.8	18	5.4
기관직원의 보수 인상	16	8.4	6	4.1	22	6.5
합계	191	100	145	100	336	100

지역별로 이용자들이 생각하는 서비스사업 발전을 위해서 시급한 해결방안이 달랐다. 군산지역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28명 중 10명)를, 전주지역은 서비스 품질 향상(27명 중 17명)을, 장수지역은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19명 중 9명)를 지적하였다.

이에 비해 공급자들의 26.8%은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가 서비스 사업 발전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서비스 품질향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다양화 등의 순으로 답하였다. 공급자들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적인 측면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35〉 공급자의 사회서비스 발전을 위해 우선적 필요사항(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도시형		농촌형		합계	
	명	%	명	%	명	%
서비스 품질 향상	41	22.8	22	15.6	63	19.6
서비스 제공기관의 능력 강화	16	8.9	8	5.7	24	7.5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 강화	28	15.6	33	23.4	61	19.0
본인이 부담하는 서비스가격 조정	17	9.4	18	12.8	35	10.9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	47	26.1	39	27.7	86	26.8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과 다양화	28	15.6	21	14.9	49	15.3
기타	3	1.7	0	0.0	3	0.9
합계	180	100	141	100	321	100



제 5 장

개발형 전북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모델개발

제 1 절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진단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제 5 장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신규사업 모델 개발

제 1 절 개발형 전북지역서비스투자사업 진단

전북의 지역사회 여건분석과 조사결과, 전문가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전북지역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서비스 대상의 보편성 부족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에 편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시장과 소비자 중심성 가치가 강화된 사업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원칙적으로 전국가계 평균소득 이하계층(4인가족 기준 월 391만원으로 전체 국민의 60%가 해당됨)으로 확대하여 이용자격에 대한 보편성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의 대중화 효과를 가져오하고자 했다.

이에 비하여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대상선정 우선순위를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분석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순위로 한 사업이 평균 67.9%(2009년 88%)를 차지하고 있다. 소득에서도 월 평균소득 기준 100%이하 설정사업이 75%(2010년 82%)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저소득층에 머물러 서민층까지 포함하고자 하는 보편성 원칙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용자들의 자격 기준이나 규모 확대는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설문조사 결과 31.3%로 가장 높았음), 도시거주 이용자들이 농촌거주 이용자들에 비하여 그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대상에서도 아동대상 사업이 46%(장애아동 1.5% 포함)를 차지하고, 여기에 노인(19%)과 가족·전세대(17.5%)를 대상으로 한 사업비율을 합하면 82.5%를 차지하여서 사업 대상 계층도 한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사업내용의 다양성과 전문성 부족 - 전문인력 활용 사업 빈약

전북지역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용을 보면 청소나 방역 같은 1회성의 단순성 사업이 많고, 상담이나 심리치료와 같은 정서적 지원 사업, 치매예방이나 재활운동과 같은 예방적 차원의 사업, 인재양성이나 생애설계와 같은 지속적이면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은 전국 타 시도에 비하여 결혼이주여성을 활용한 아동대상의 영어교육 사업의 비중이 높은 편이지만, 설문조사 결과에서 전북도민들은 조손가정, 한부모가정과 같은 특별가정들을 위한 가족복지서비스, 특히 청소년과 성인여성(농촌 여성), 장애인(아동 포함)을 위한 사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을 위한 사업도 결혼이주여성만의 특히 영어권 여성만이 아닌 각국 출신 외국어 교사 양성과 함께 가족중심의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전라북도 내 시군 간 사업개발 역량에서 큰 격차를 보여 이에 따른 개선이 요구된다.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은 고급화된 전문적인 사회서비스들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제공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 이용인구조차 많지 않다. 또한 관련 전문가 혹은 대학의 전공학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사업개발에서부터 내용에서 빈약함을 보이고 있다⁹⁾. 실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농촌 이용자들은 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가장 많이 답했다. 제공기관들은 사회서비스 공급에서 바우처 수단 활성화 외 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성, 시설 및 서비스 품질에 대한 고객 평가와 결과 공개, 서비스 제공기관들 간 경쟁, 실무자의 정책 개발 지원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광범위한 인구 층으로 확대하여 미

9) 포커스그룹 1차인터뷰(2010. 8. 19)에서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은 바우처 사업이 1인 최대 20만원으로 제한(자부담 포함)되어서 인건비 충당이 어렵고, 사업 운영 자체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복지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들 대부분이 기관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도 벅차기 때문에 인건비도 충당되지 않는 서비스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토로하고 있다.

래에 대한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가미한 예방적 접근의 복지확대라는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이 추구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북지역 복지서비스의 제공방식과 서비스의 대상 설정을 조정하고, 서비스 내용을 도시형, 농촌형으로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3. 전국평균보다 지속률 낮음 - 제공 서비스와 고용 불안정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매년 보건복지부 공모에 따른 심사를 거쳐 선정된 후 지자체에서 사업을 관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함으로써, 전라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에서 이 사업의 계획수립과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¹⁰⁾

이재원(2009)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전국 시도의 지역개발형사업의 지속비율은 47.8%이며, 전북은 40%, 경기도 36.6%, 전남 55.9%로 나타났다. 전북지역에서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2010년까지 지속되어온 사업은 10개 사업에 지나지 않으며, 이 가운데 취약계층 대상 소득이나 청소관련 서비스사업이 가장 지속률이 높고 노인 재활서비스 사업이 그 다음을 차지함으로써 전북지역은 기초복지 수준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낮은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률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사업관련 기존 고용인력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을 활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지역 주민들이 양질의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매년 공모형태를 통해 국비를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선정여부가 불투명하고, 선정 후에도 정해진 예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등 사업의 지속성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원(2009)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

10)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담당자는 전화인터뷰(2010. 9. 17)에서 해마다 지자체 사업신청액이 예산의 4배 정도에 이르므로, 정부 입장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 인력, 제공기관의 질 등을 따져 선정하되 중점육성 서비스나 우선 투자분야 가이드라인을 정한다고 밝혔다.

지 않은 점, 기존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가용 재원만으로 신규사업을 심사 승인한 점으로 인해서 사업이 공식화된 정부간 복지관계로 정착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분절적이고 일시적인 특수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신청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도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사회서비스를 받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서라도 전북지역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률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4. 광역단위 개발사업 부족 - 전북도의 역할 강화 필요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거주지 분포가 넓고 인구도 적어서 서비스를 실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데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기관 자체가 없어서 주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¹¹⁾

현재 전북도내 농촌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차량운행비, 강사비 등 재정과 관리상의 어려운 점을 들어 이용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하는 사업보다는 제공기관 등 이용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합교육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위치한 면단위 지역과 근접한 지역의 주민들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나 시군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권역 또는 몇 개 시군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 폭이 넓어질 것이며, 지역간 이기주의로 인한 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고, 기관에서도 더 많은 수혜자를 확보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시장형성 효과를 얻을 수 있다.¹²⁾

11) 이재원(2009)은 지자체 단위의 관할 행정구역에 따른 (관행적인) 진입장벽들이 있어 기업의 성장에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면서, 인접 지역간 교차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여 시장규모를 확대하고 타 지역에 위치한 공급기관의 진입을 수월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공기관 인프라가 없는 농촌지역에서 특정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인근 도시지역의 제공기관을 사업자로 승인하여 지점을 개설하거나 방문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자체의 예산이 도시의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여 관내 기업이 아니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역개발형 사업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할 구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사업을 위해서는 이용자들의 자부담을 낮추고 제공기관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며, 도비지원과 기금활용 등이 방안으로 제기될 수 있다. 동일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인데도 자부담에서 지역편차가 있는 문제 또한 전북도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현재 전국 시도에서 유일하게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도비를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전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시군에 강제하거나 시군간 사업을 중재하거나 조율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갖지 못하고 있다.¹³⁾

5. 지역역량 개발 미흡

1) 시 지역부터 사회서비스 전담조직 필요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징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사회의 복지인프라와 역량을 동원하여 서비스를 개발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하는 데 따른 운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형 사업의 활성화는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부진한 사업을 구조 조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 집행한다면 사업성과 또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해 국비를 지원하는 형식이므로 장기적으로는 지역에 맞는 모델이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동향을 파악해서 중점분야의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자체에 사회서비스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있다면 이 일이 훨씬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12) 보건복지부는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계획(2010. 1. 20)을 통해 광역단위(시·도 단위 또는 2개 이상 시·군·구 연계) 사업 개발을 적극 장려하며, 사업 선정시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3) 포커스그룹 2차 인터뷰에서는 전북도에서 2010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주간 환경소독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일선 시군에서는 시군의 재원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전북도의 지원을 강력 요구하였다.

현재 전라북도의 경우 사회서비스 전담기구를 도와 군산시만 갖추었다.¹⁴⁾

한편 보건복지부는 2007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시작하면서 지자체 신청사업 중에서 우선 선정 대상으로 1.아동투자, 건강생활지원, 경제활동 참여 지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서비스 2.지역의 특수한 수요 충족 3.장애인, 외국인 이민자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사업 등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공공근로형 사업처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2.방과후 활동처럼 기존 국가사업과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는 사업 등은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우선 지원사업으로 경제위기,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취약계층 사회적 지원 및 일자리 창출분야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히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 11개 주요 유형별 표준서비스와 중증·만성질환 예방 및 악화방지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건강관리분야의 서비스, 만성근골격계 질환자 건강증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마치료서비스, 무직가구 여성, 조기 퇴직자, 청년실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우선 지원 대상사업으로 예시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신청사업의 선정 여부만을 도와 시군에 공문을 통하여 통보하고 탈락 이유 등은 밝히지 않고 있어서, 오히려 후속 사업을 위한 도와 시군의 대응 전략이 요구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경우 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담기구를 두어서 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제공기관과 이용자를 꾸준히 관리하면 지역주민들이 더욱 다양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 설치 또는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자 배치 필요

14) 전북도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복지여성보건국 사회복지과의 복지서비스계에서 맡고 있으며, 복지서비스계는 바우처사업과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복지계획, 복지콜센터 등의 업무를 담당함. 군산시는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서비스계가 있으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한 바우처 관련 전반 업무를 담당하고, 직원은 담당 1명에 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군산시의 경우 도내 타 시군에 비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사업수 뿐만 아니라 사업 내용에서도 선도적인 양상을 보인다.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이용자 선택권 향상, 새로운 일자리 창출 외 지역역량 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있다. 지역역량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역량 강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중앙의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¹⁵⁾이 전국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관련 업무를 통합해서 담당하고 있지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한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기관을 두어서 사업의 품질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정책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별 또는 지역별 사회서비스관리센터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느껴 2007년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 시범사업을 통하여 광주와 부산, 전남지원단 설치와 함께 3년간 총 1억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대구와 서울지원단을 설치하고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총 1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2010년 들어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과의 기능 중복을 이유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에 대한 국비 지원을 중단하면서 광주와 전남, 대구, 서울지역의 지원단은 유명무실해지고, 부산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재)부산복지개발원에서 운영)만 부산광역시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의 설립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부정적인 자세로 전환하면서 전라북도도 센터 설립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의 적극적인 노력 없이는 전북지역에 사회서비스관리센터 운영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다른 대안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사례관리를 시·군 별로 배치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

15) (재)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7년 3월 사회서비스관리센터로 발족해서 2009년 9월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으로 개칭했다. 사회서비스 관련 바우처의 지불 정산업무, 바우처 운용과정과 정책 성과 모니터링, 바우처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바우처사업 발굴(일자리창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사례관리사 배치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고 일자리 창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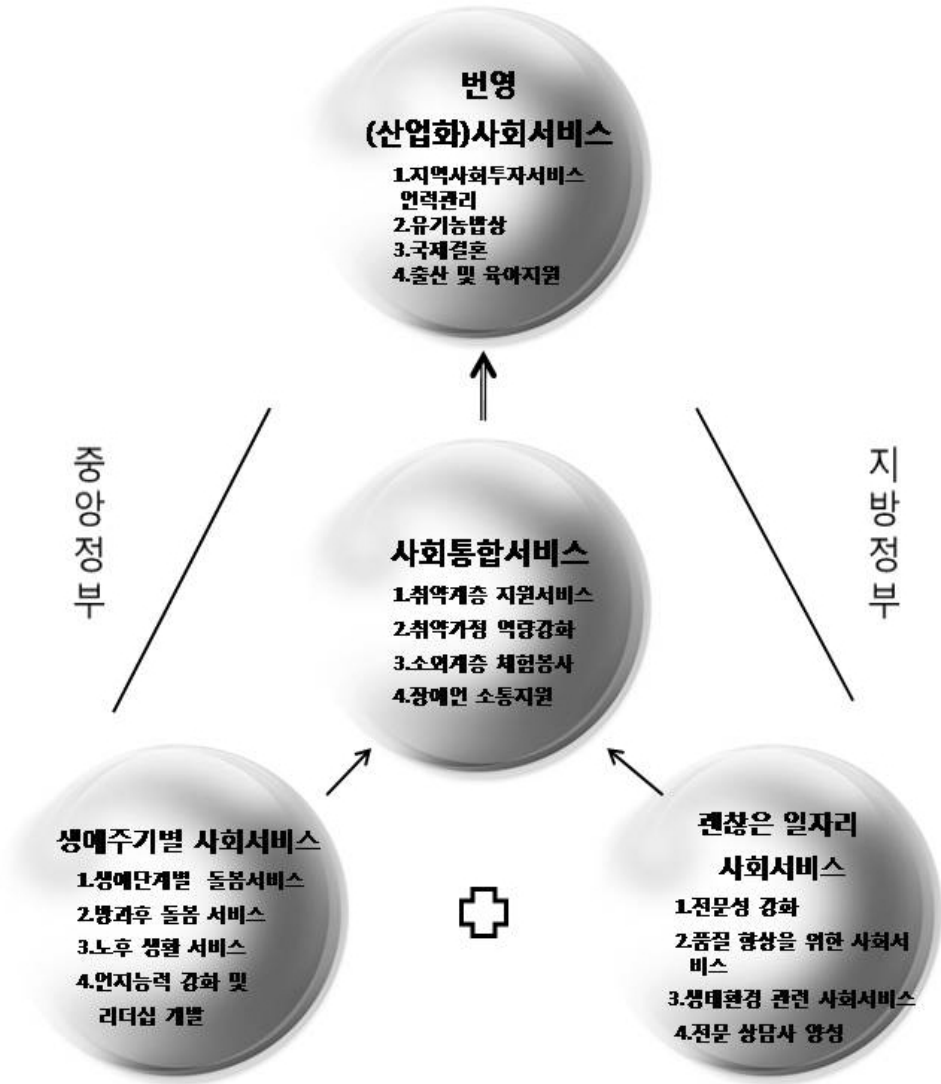
이에 비추어 볼 때 전라북도의 시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전담 행정부서를 설치하고, 사회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이나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관련 민·민 및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결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2 절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1. 모델명 : 사람과 일 그리고 통합과 번영모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시군 사업지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정 수준의 유형화 또는 표준모델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사업 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서비스 공급방식, 서비스 내용에 따른 서비스 이용자격 및 소요비용, 서비스 성격에 따른 차별적인 자기부담 비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진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라북도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모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그림 5-1〉 사람과 일 그리고 통합과 번영모델



진라북도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은 가장 높은 욕구를 나타내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모형을 기본 축으로 구성하고, 선진국은 물론 우리

나라에서도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가 발전하고 있는 점과 향후의 사회서비스 발전방향이 산업화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람과 일, 그리고 통합과 번영을 골자로 모델을 구성하였다. 1) 사람은 생애 주기에 따른 돌봄 서비스 2) 일은 괜찮은 일자리 3) 통합은 차별과 배제의 해소, 그리고 교육과 기회의 제공 4) 번영은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2. 각 영역별 신규 사업

신규사업은 모델에서 제시한 4개의 범주에 따라 구성하고 그 내용을 2단계로 제시하고자 한다. 1단계에서는 신규사업 모델의 4개 범주에 따라 사업의 기본 내용을 예시하고, 그 사업들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1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방향에서 현재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구분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재구조화 계획에는 현재 선택형과 개발형 그리고 청년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사업을 아동발달지원, 노후 생활지원, 장애인 재활지원, 가족지원,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분야별로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다. 1단계에서 사업의 제안은 개괄적이고 포괄적 성격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각 시군구에서 자체 사업으로 지역사회투자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포괄적인 사업을 덩어리 형태로 제시하여 그 안에서 각 지자체에 맞는 서비스를 세분하거나 구체화하여 정교화 하는 것이 더 유용하고 서비스의 내용과 질 면에서도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2010년 현재 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가능하면 새로운 아이템이 전북 여건을 반영하면서 서비스화 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그리고 현재는 보건복지부나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않고 유망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향후 사회복지 서비스의 발전 방향과 사회적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사업들을 제안함으로써 전라북도가 지역사회투자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서 제안한 사업영역에서 좀 더 현실성 있는 사업들을 발췌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사람(생애주기별 서비스) 영역

현재 우리사회는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 가족 불안정 증대 및 가족 해체 증가 등의 사회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이전에 상상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위험들이 가중되고 있다. 동시에 그동안 가족과 같은 사적 영역에서 수행되던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그로 인해 사회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의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 더 이상 가족이 노인과 아동에 대한 양육과 부양 그리고 보호와 교육 등의 전통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처럼 전통적인 가족주의에 기반을 둔 노인부양과 자녀양육 체계가 한계에 이르게 되어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안정과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제 3자의 보호와 수발 형태인 사회적 서비스 욕구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변화는 양육과 요양을 포괄하는 보살핌 노동(care work)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새로운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으로 요청하고 있다. 그동안 가족에게 맡겨 왔던 보살핌 노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사적 영역에 대한 복지 개입의 형태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사회적 서비스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서비스는 소득수준과 사회 계층에 관계없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가장 포괄적인 복지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인서비스와 가족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와 같은 사회서비스들은 그 특성상 기능과 범위를 한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미국, 캐나다 등의 많은 선진국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에서 아동기에서 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생의 주기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는 아동과 노인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는 1) 개인과 가족,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2) 푸드뱅크, 주거복지, 재난 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서비스 3) 실업자와 장애인 저숙련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직업훈련 서비스이다. 이 중에서 개인과 가족 서비스들은 생애주기에 따라 제공되는 대표적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다. 영국에서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돌봄 서비스의 수준과 질적 향상을 강조하면서 사회서비스의 혁신과 통합의 내용에 생애주기와 관련한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1) 사회서비스는 사람들의 독립과 인간적인 존엄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2) 사회서비스는 이용자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3) 지역사회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아동은 생애 출발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4)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은 충분히 숙련된 서비스 제공인력에 의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며, 서비스 제공인력은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 기준과 실천기준을 보장하는 조직에서 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원칙 하에 영국에서 국민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는 아동과 장애인 성인과 노인으로 서비스가 이어지고 있다.

본 신규 사업 개발에서는 아동기에서 노년기까지 필요한 사회서비스들을 돌봄, 발달지원, 건강관리에 중심을 두고 개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국가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출산과 관련한 보육사업이나 장애인 발달 지원, 장기요양보호 사업, 다문화 지원 등의 사업은 지양하였다. 구체적인 사업은 다음과 같다.

〈표 5-1〉 사람(생애주기별)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분야	번호	사업명(가칭)	주요 내용	분야 / 지역
영유아	1	시설아동 정서발달지원	1. 서비스내용 : 시설 아동 대상으로 놀이치료, 모래놀이 등을 통한 정서적 치유프로그램, 애착증진과 분리불안을 해소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위한 원조 제공, 정서 상태 및 발달검사 실시 2. 제공기관 : 아동상담 및 관련전문기관 3. 대상자 : 만 12 세미만의 수용시설 아동	아동발달지원 도시/농촌
	2	만성질환 입원 영유아 가족 지원	1. 서비스내용 : 간병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 부모 휴가 등의 지원을 통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민간단체, 자활후견기관, 가사간병단체 3. 대상자 : 만 5세미만의 영유아 중 3개월이상 입원 가정	가족지원 도시/농촌
아동	3	문제아동 조기개입	1. 서비스내용 : 주의력 결핍장애,品行장애, 학습장애 등의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상담기관 3. 서비스대상 : 문제를 갖고 있는 영유아 및 학령기 아동	아동발달지원 도시/농촌

분야	번호	사업명(가칭)	주요 내용	분야 / 지역
	4	비만 아동건강관리	1. 서비스내용 : 운동지도, 식이요법,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관리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자활후견기관, 생활체육단체 3. 대상자 : 비만 위험군 아동	아동발달지원 도시/농촌
	5	책 읽는 아이들	1. 서비스내용 : 농산어촌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와 글쓰기 지도, 부모상담, 워크북 만들기 등을 통한 인지능력향상 2. 제공기관 : 자활후견기관, 지역아동센터, 초등학교, 대학교 3. 대상자 : 농산어촌지역 아동	아동발달지원 농촌 중점
	6	글로벌 인재양성 (global dream leader)	1. 서비스내용 : 다문화가정의 이주여성을 외국어교사로 활용하여 다양한 외국어 능력 향상, 차세대 리더로 양성함 2. 제공기관 : 다문화지원센터, 시민단체 3. 대상자 : 농산어촌 유치원 및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아동	아동발달지원 농촌 중점
	7	강점관점 사례관리	1. 서비스내용 : 조손가정, 이혼가정, 한 부모가정에 대한 강점관점 사례관리서비스, 부모역량 강화, 자원 연계, 심리사회적 서비스 등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대학 3. 대상자 : 취약아동 및 가정	아동발달지원, 가족지원 도시/농촌
	8	라이프 코칭 (life coaching)	1. 서비스내용 : 진로상담, 심리상담, 또래 상담 등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원조 2. 제공기관 : 각 시군구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문화의 집 3. 대상자 : 학교 부적응 청소년, 일반 청소년	아동발달지원 도시/농촌
	9	인터넷 중독 및 약물 예방 상담	1. 서비스내용 : 인터넷 중독과 약물 오남용에 대한 상담치료와 예방교육 2. 제공기관 :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전문기관, 병원, 알콜치료센터, 정신건강센터 3. 대상자 :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시 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청소년과 인터넷 및 약물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 부모	발달지원및 가족지원 도시/농촌
	10	농산어촌 중학생 self-leader	1. 서비스내용 : 농산어촌 지역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leadership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시민단체, 대학 3. 대상자 : 농산어촌 중학생	발달지원 농촌 중점
청소년	11	청소년 다시서기 아카데미	1. 서비스내용 : 청소년 인문학강좌를 통해 의식의 변화와 자기 주도적 삶을 살도록 안내, 인문학 강좌 2. 제공기관 : 시민단체, 대학, 청소년지원센터 3. 대상자 : 저소득층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 중도탈락 및 부적응 청소년, 일반청소년	발달지원 도시 중점
	12	Youth- 인권학교	1. 서비스내용 : 다문화사회의 사회현실과 사회의 인권침해와 소외현상을 이해하고 인권에 대한 의식향상을 통해 바람직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인권캠프 2. 제공기관 : 시민단체, 청소년지원센터, 인권단체 3. 대상자 : 다문화 및 새터민 가정의 청소년	발달지원 도시/농촌
	13	초보엄마 역량강화	1. 서비스내용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부를 대상으로 육아정보제공과 사회적 지지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후 산후우울증, 역할부담 등의 완화 2. 제공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성단체, 자활후견기관 3.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정,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의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가족지원 도시/농촌
여성	13	초보엄마 역량강화	1. 서비스내용 :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산부를 대상으로 육아정보제공과 사회적 지지서비스 제공으로 출산 후 산후우울증, 역할부담 등의 완화 2. 제공기관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여성단체, 자활후견기관 3.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정, 다문화 가정, 일반 가정의 임산부 및 출산 후 1년 이내 산모	가족지원 도시/농촌

분야	번호	사업명(가칭)	주요 내용	분야 / 지역
	14	국제결혼 여성 멘토의 다리 놓기 (Bridge of mentor)	1. 서비스내용 : 국제결혼이주여성 중 성공적인 결혼적응과정과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을 멘토로 양성하고 이 여성들로 하여금 같은 나라 출신의 이주여성에게 멘토로서 활동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2. 제공기관 : 다문화지원센터, 여성단체 3. 대상자 : 결혼이주여성	가족지원 도시/농촌
노인	15	따뜻한 방문자	1. 서비스내용 : 홀로지내는 노인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이 주 2회 정기적 방문, 정서적 지원, 정보제공, 일상 생활지원.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종교기관 3. 대상자 : 기초생활 수급노인, 시설보호 노인, 일반 독거노인	노후생활지원 도시/농촌
	16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	1. 서비스내용 :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지도사를 파견하여 건강상태에 맞는 운동처방과 운동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생활체육단체, 재가복지센터 3. 대상자 :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노후생활지원 도시/농촌
	17	조손 가족과 저소득 노인 돌봄 관광 및 라이프 건강교실	1. 서비스내용 : 조손 가정과 저소득 어르신들의 여가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문화바우처를 통한 돌봄 관광 서비스, 운동 처방 및 건강관리 2. 제공기관 : 노인복지기관, 노인단체, 기타 사회복지 단체 3. 대상자 : 조손부모,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독거노인	노후생활지원 도시/농촌

2) 일(괜찮은 일자리) 영역

일자리는 일차적으로 생계를 위한 경제적 보상의 도구일 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며, 개인적으로 직무에 대한 만족을 주는 원동력이 된다. 최근 ILO에서는 "좋은 일자리(good job)"에 대한 개념으로 "괜찮은 노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 "괜찮은 노동" 개념은 최근 빈곤층의 고용전략과 연계되어 괜찮은 일자리 개념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창출 역시 빈곤 정책과 깊은 연관이 있다. "생산적 복지"라는 복지정책의 전환은 빈곤 정책에서 일자리를 통한 빈곤탈출을 의미하는 Work-Fare, 즉 고용중심의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동안 공공근로로 시행되던 사업을 자활 지원사업으로 제도화 하면서 사회적 일자리와 괜찮은 일자리가 사회서비스 확충과 연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정의는 측정 가능한 개념들을 통해 그 기준들을 좀 더 명확히 하려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빈곤의 진입과 탈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기준으로 괜찮은 일자리의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최옥

금(2006)은 괜찮은 일자리를 1) 적절한 임금 2)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 3) 사회보험의 적용의 세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미국에서 일자리 창출은 주로 연방정부의 인력투자법(Workforce Investment Act : WIA) 이나 빈곤가정 한시적 부조프로그램(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TANF)과 같은 장기요양서비스나 돌봄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TANF는 빈곤 해결책을 고용으로 이해하고 '일이 먼저'에 초점을 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다. 특히 WIA는 1) 간소화 된 서비스 2) 개인역량 강화 3) 서비스에 대한 보편적 접근 4) 성과 지표 모니터링 신뢰도 증대 5) 지역 인력투자 원회 및 민간 역량 강화 6) 주정부와 지자체의 유연성 강화 7) 청년 프로그램 강화라는 운영의 7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해 3,400개의 윈스톱 커리어센터와 600개 이상의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협력체인 인력투자위원회(WIB)를 구성하였다. 미국의 이러한 고용창출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의 자율성에 기반하여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이 구성된다는 점에서 사회서비스와 같은 지역사회 욕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는 고무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요양보호사 제도와 관련하여 고려할 만한 프로그램은 노인 돌봄과 관련하여 워킹 그룹을 조직한 사례다. 윈스톱센터를 통해 모집과 고용훈련을 거친 후 35개의 돌봄 서비스 기관이 참여하여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있다.

프랑스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 직업 양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국가다. 프랑스의 사회적 직업은 사회부조, 특수교육, 엔터테인먼트, 보육 영역에서 사회보조사, 학교사회보조사, 사회교육 담당가, 부부상담가, 가족상담가, 아동교육가, 아동원예사, 특수교사, 정신 건강지도사, 작업장 지도교사, 지역강사, 여가강사, 일반보육사, 가족보육사 등의 관련 직업이 있다. 이것은 기존의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하던 직업들을 양성화하여 사회적 직업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훈련의 강화를 통해 사회적 인식을 향상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정착화 그리고 서비스의 질적 제고 면에서 모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업무에 두고 개발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물론 현시점에서 일자리의 조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함에 있어 인력 양성이 바우처 사업으로 직접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제공 인력의 수준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또한 사회서비스가 괜찮은 직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이미 해외사례에서 사회적 서비스와 괜찮은 일자리 그리고 서비스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여 공급하는 것이 사회서비스의 중요한 쉐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단기적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겨냥한 인력 양성은 어렵다 할지라도, 인력개발센터나 고용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서비스 직업을 창출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전라북도의 취약한 일자리 틈새를 확장하는 원동력으로서 의미와 가치를 가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관련하여 괜찮은 일자리 사업들을 요구조사 결과와 사회서비스의 경향 그리고 향후 전망을 통해 생태환경, 교육과 상담, 문화 관광, 지역사회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표 5-2〉 일(괜찮은 일자리)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분야	번호	사업명 (가칭)	주요내용	분야/ 지역
생태 · 환경	1	환경디자이너 : 휴집 짓기	1. 서비스내용 : 생태환경이 매우 중요한 삶의 질의 조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집짓기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빈곤층의 주거서비스에 파견하고 일반 주민의 친환경 집짓기 서비스에 활용 2. 제공기관 : 자활후견기관, 지역복지관 3. 일자리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건축기술자 4. 서비스 이용 대상: 기초생활 수급 가정, 독거 노인가정, 장애인 가정, 일반 가정	가족지원, 노후 생활지원 도시/농촌
	2	생태환경 전문해설 프로젝트	1. 서비스내용 : 숲 해설, 들꽃해설, 지형과 하천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한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여 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 인력으로 활용 2. 제공기관 : 환경단체, 대학, 시민단체, 사회복지관 3. 일자리 대상자 : 청년 실업층, 환경활동가, 경력단절 여성 4. 서비스 이용대상: 저소득 아동, 일반 아동, 청소년	발달지원 도시/농촌
교육 및 상담	3	인권감수성 코디네이터	1. 서비스내용 :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성적 소수자 등 사회적 차별과 소외로 인해 발생하는 문화차별, 성차별, 또래 폭력, 전쟁 등의 인권 침해상황을 이해하고 차별 없이 통합되는 사회발전에 도움.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지원과 교육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발달지원, 가족지원 도시/농촌

분야	번호	사업명 (가칭)	주요내용	분야/ 지역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공기관 : 대학, 시민단체, 상담 전문기관 3. 일자리 대상자 : 청년실업자,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단절 여성 4. 서비스 이용대상 : 다문화 가정의 아동, 장애인 가정 아동, 초중고 학생 	
	4	삶의 안내자 파송서비스 : 상담 전문 인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내용 :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인까지 전생애에 걸쳐 상담 서비스의 수요증가에 대응한 전문상담인력 양성. 아동 및 청소년 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이혼 상담, 집단 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아동성폭력 피해상담, 가해자 상담 등의 욕구를 가진 수요자에게 전문적인 사회적 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대학, 전문기관, 상담 전문기관 3. 일자리 대상자 : 청년실업자, 대졸 미취업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및 남성 4. 시설아동, 장애아동, 청소년, 기초 생활수급 가족, 한부모 가족, 일반 가정 	발달지원, 가족지원 도시/농촌
문화 관광	5	문화 예술 해설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내용 : 도내 전통문화와 역사, 예술 등의 유산들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북 지역문화해설사를 양성하고 학교교육, 마을문화바우처, 관광바우처의 전문인력으로 활용 2. 제공기관 : 문화예술단체, 인력양성기관, 지역단체 3. 일자리 대상자 : 청년실업자, 경력 단절여성, 고학력 노인 4. 서비스 이용대상 :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돌봄 관광서비스 이용자, 일반인 	발달지원, 도시/농촌
	6	전통 음식의 명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내용 : 세계적 자원인 전북의 음식 문화 즉 비빔밥, 전통장류, 김치, 떡, 등의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구축하여 다문화 가정의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전통음식 만들기를 배우쳐로 제공 2. 제공기관 : 노인일자리센터, 시니어클럽, 여성자원봉사단체, 농민단체 3. 일자리 대상자 : 노인 여성, 일반 성인 여성, 여성가장, 취약계층 여성 4. 서비스 이용자: 국제결혼 가정 	가족지원 도시/농촌
지역 조직	7	마을 간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내용 : 현재 진안군에서 일부 실시되고 있는 마을 간사제도 사례를 기타 농산어촌 지역에서 적용하여 농산어촌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서비스 2. 제공기관 : 지역단체, 민간협력기구, 새마을운동본부 3. 일자리 대상자 : 귀농인, 농어민 후계자, 여성영농인 4. 서비스 이용대상: 농산어촌 지역 및 농산어촌 가정 	기타 농촌 중점
	8	사례관리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비스내용 : 지역사회투자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효과 증진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업단별 전담 사례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인력 양성 2.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대학 3. 일자리 대상자 : 대졸 미취업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4. 서비스 이용대상 : 지역사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과 가정 	기타 도시/농촌

3) 사회통합 영역

복지국가가 재편성 되는 시기에 근로와 연계된 복지정책 유형은 크게 1) 탈복지형 2) 사회통합형 3) 노동시장 재통합형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 사회통합형은 인적자원과 기회개발에 초점을 두어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는 특성이 있다. 사회통합형 근로연계 복지 정책 목적은 한마디로 사회적 배제를 해소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은 인간자본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모형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택하는 수단은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실행하는 것이다. 사회통합 유형의 서비스 대상을 모든 취약계층으로 삼는다. 그리고 취약계층의 기본권 실현을 활성화를 기본 성격으로 하고 거기서 제기되는 지배적 담론의 내용은 시민주의, 평등, 연대성이다.

전라북도는 경제적인 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과 노인 인구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지역이다. 지역과 계층간의 격차는 교육격차와 소득격차를 통해 양극화된 사회적 성격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차별과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소하고 통합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정책이 마련되고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는 것은 선행되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동시에 지방정부는 국가의 정책을 구체화하여 실행하는 기관으로서, 그 정책이 실현되는 과정에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거나 사회통합 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서비스들을 개발하려는 적극적인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 따라서 전라북도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이러한 노력을 담을 수 있을 때 이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지역 사회발전의 토대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수혜자들의 의존욕구를 심화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고 역량강화를 통해 독립적인 가정과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적인 배려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반영되는 것은 큰 의의가 있겠다. 현재 시점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선정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사실이지만 전라북도에서는 사람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과 사회정의와 통합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의지를 담아내길 기대하며 관련 사업들을 제안한다.

〈표 5-3〉 통합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번호	사업명(가칭)	주요내용	분야/ 지역
1	다문화가정 멋진 남편 교실 (Happy Family)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내용 : 다문화 가정의 서비스가 주로 결혼이주여성에 치중되어 제공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와 다문화 가정의 역량강화에서 많은 한계들이 노출됨. 국제결혼 남성을 대상으로 배우자의 모국어, 생활문화, 규범 등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대화법, 부부상담, 자녀양육 지도 등의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다문화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농민단체 대상자 : 국제결혼 남성 	가족지원 도시/농촌
2	봉사하는 리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내용 :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은 학비 감면, 무상급식 등의 많은 서비스와 바우처를 제공 받고 있음. 성장과정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은 안정적인 발달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서비스임. 그러나 인간의 자아존중감은 타인을 위한 중요한 존재임을 인식할 때 극대화 됨. 또한 자기 정체성이 도움을 받는 자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능력 발휘에 많은 제약으로 작용함. 그러므로 사회적 약자로서 도움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 청년에게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여 봉사하고 참여하며 경험하는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제공 제공기관 : 대학, 자원봉사단체, 시민단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초,중,고,대학생 	발달지원 도시/농촌
3	나는 우리 동네 큰 바위 얼굴 (농산어촌 아동 역량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내용 : 농산어촌 초,중등학생에게 자신들의 마을이야기를 수집하고, 마을의 현황조사, 자연환경과 역사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캠프, 신문 만들기 등의 동아리 활동 등을 지원하여 자기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자활후견기관, 지역단체, 학교, 종교기관 대상자 : 농산어촌의 다문화 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 일반 초, 중생 	발달지원 농촌 중점
4	마주 이야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대상 : 가정과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지적장애와 발달장애, 언어장애 아동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1:1 말벗과 간단한 놀이 서비스 제공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전문기관 대상자 : 5세~10세 장애아동 	발달지원, 가족지원 도시 중점
5	영구임대 아파트 희망 키움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내용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콜 상담, 가정폭력, 금연지도, 취업지도, 자녀양육, 재무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구 임대아파트 주민의 인식 개선과 생활향상 유도 제공기관 : 사회복지관, 전문치료기관, 시민단체 대상자 :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 성인 	
6	아름다운 소통! 한마음! 한세상! (의사소통지원 서비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내용 : 가족 중에 청각장애가 있는 가정 등 의사소통의 장애가 있는 가정, 부모가 농아인 경우 자녀의 언어습득과 관계형성 정체성의 혼란과 역할 과중 등의 어려움을 겪고, 또 자녀가 농아인 경우 부모는 자녀와 깊은 대화를 하기 어려워 양육지도에 많은 애로가 있음. 의사소통의 한계는 가족 간의 갈등과 학대를 가져오는 등 수화교육이 중요함. 또한 청각장애 학교의 교사 역시 수화를 이해하지 못해 교육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수화교육,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수학교와 행정기관에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 제공기관 : 장애인복지관, 관련전문기관 대상자 :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부모와 자녀, 특수학교 교사, 행정인력 	발달지원, 가족지원, 기타 도시/농촌

4) 변영(산업화) 영역

지식기반 경제 사회에서 제조업은 점차 공동화 되는 추세이고 이로 인해 사라지는 일자리들을 사회서비스 산업을 통해 대체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도 반영되고 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형태는 인건비, 운영비, 자문비 등의 기업 활동과정을 직접 지원하는 노동부의 사회적기업형태가 있고, 다른 하나는 소비자에게 구매력을 보전하여 유효 수요를 창출하고 공급기관들이 시장에서 소비자를 확보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방식이 있다.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비자의 구매력을 통해 유효 수요를 창출하여 소비자를 확보하는 수요자 중심의 전자바우처 형태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회서비스가 사회서비스의 보편화를 지향할 때 그 산업화의 가능성은 많아진다.

사회서비스 산업이란 전통적으로 가족과 지역사회가 비공식적으로 담당했던 사회적 기능들이 시장의 상품으로 제공되는 것이다. 즉 부동산, 중개, 가사도우미, 교육과 보육,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돌봄, 청소, 결혼중개, 방과 후 아동의 건강 발달 및 학습 프로그램이 대표적으로 사회서비스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템이다. 그러나 사회서비스가 현재와 같이 저소득층 취약계층과 같이 구매력이 충분하지 않은 대상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제공될 경우 이 사회서비스들이 산업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산업화 가능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 대상이 일반인 전체로 확대되어야 하고 구매력을 지원하는 바우처 방식이 활성화 되어야만 한다.

전라북도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이나 경제적 수요를 고려할 때 사회서비스를 산업형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타 지역보다 더 많은 제한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북지역이 갖고 있는 공동체적 사회 체계, 잘 보전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은 미래의 사회적 서비스를 산업화하는 핵심 자원과 인프라가 될 수 있다. 지역개발형의 사회적 서비스가 전국을 대상으로 구매력을 확보하여 전국형의 사회서비스 산업화 모델을 창출해 낼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이상의 내용들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업들을 제안한다.

〈표 5-4〉 반영(산업화) 영역의 신규사업 발굴 내용

분야	번호	사업명(가칭)	주요내용	분야/ 지역
반영 (산업화)	1	윈스톱 커리어센터	1. 서비스내용 : 저소득 및 여성, 취약계층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적인 교육훈련 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교육문화센터, 인력개발센터, 자활후견기관 3. 대상자 :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여성재취업 희망자	기타 도시 중점 광역자치단체 사업
	2	종합 돌봄 network 정보센터	1. 서비스내용 :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용이하도록 전담기관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하는 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전담기관 3. 대상자 : 사회서비스 수요층	기타 도시 중점
	3	친환경 신나는 밥상 (밀반찬 배달)	1. 서비스내용 : 주 2회 밀반찬과 도시락 반찬, 국과 찌개 등의 친환경 반찬을 만들어 수요자에게 제공 2. 제공기관 : 자활후견기관, 여성단체,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3. 대상자 :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맞벌이 가정, 독신가구	가족지원 도시 중점
	4	국제결혼 윈스톱 지원센터	1. 서비스내용 : 국제결혼 중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결혼적응을 원조하기 위해 국제결혼과 적응과정 그리고 결혼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 2. 제공기관 : 다문화지원센터, 시민단체 3. 대상자 : 국제결혼 희망자, 국제결혼 예비부부, 국제 결혼가정	가족지원, 기타 도시/농촌
	5	아이 키움! 행복 키움!	1. 서비스내용 :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고 육아부담 완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여 일과 가정 양립의 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 신생아를 비롯한 영유아의 아토피 예방과 환경보호를 위해 친환경 소재의 신생아 의류, 기저귀, 세제를 제작하여 지원하고 세탁 서비스까지 병행. 발달단계에 맞는 안전한 영양 이유식을 만들어 서비스로 제공 2. 제공기관 : 자활후견기관 3. 대상자 : 기초생활 및 차상위 가정, 다문화 가정 미혼부모 가정, 맞벌이 가정, 일반 영유아 양육 가정	가족지원, 발달지원 도시 중점

이 같은 사업모델은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각 시군이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발굴하고 운용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다양한 내용,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사업의 국비지원의 형평성이 높아지고 지역 간 수혜의 격차도 줄어들 것이다.

3. 각 영역 신규 제안사업

〈표 5-5〉 각 영역 신규 제안사업

사업명	목적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간
시설아동정서 발달지원	부모로부터 분리되어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	육아 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는 유아	1.주 2회 1시간씩 방문 서비스	월 40천원	1인당 1년 원칙

사업명	목적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간
	들의 분리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서발달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함	및 아동	2.개별서비스 1회, 집단서비스 1회 3.미술치료, 놀이치료, 정서발달 검사, 인지기능 검사 등 4.시설의 양육책임자와 사례회의		
만성질환 입원 영유아 가족지원	만성질환으로 3개월이상 병원에 입원중인 영유아 가족에게 가사, 간병지원, 보육서비스, 부모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과중한 스트레스와 양육부담을 완화하도록 지원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전국 평균소득 100% 이하 가족 중 입원 자녀가 있는 가정과 입원한 영유아가 있는 일반가정과 부모	1.주 3회 3시간씩 간병 서비스 2.주회 1시간 부모상담	200천원(20천원 본인 부담)	개인별 판정 유효기간 6개월, 1년 이내 원칙으로 입원기간
문제아동 조기개입	주의력 결핍장애(ADHD), 틱장애, 야뇨증과 식이장애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아동과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부모교육, 정보제공 및 행동수정 지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행동을 소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	4세 이상 12세 미만아동으로 주의력 결핍, 틱장애, 배설장애, 식이장애 등의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과 부모, 소득기준 없음	1.대상아동 및 부모에게 정보제공, 지도방법 등의 서비스 제공 2.대상아동에 대한 전문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치료 및 상담 처방 3.부모교육	50천원	1년 적용 원칙
비만아동 건강관리	중도이상 비만초등학생과 부모에게 건강관리와 영양 등에 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신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만7세 이상 12세 미만 아동으로 비만지수 20% 이상인 아동, 소득기준 없음	1.대상아동 및 부모에게 운동처방 및 운동지도, 영양교육, 각종 정보제공 2.아침수업 이전 또는 방과 후 시간 활용	40천원	
책 읽는 아이들	농산어촌 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독서지도를 통해 아동의 인지능력 향상지원	농산어촌 초등학생	1.월 도서 3권 지급 2.1:1 독서지도 3.부모 독서교육 지도서 제공(월 1회 이상) 4.키즈 인지발달검사, 또는 독서학습능력 진단평가	30천원	1년 적용 원칙
글로벌 인재 양성	농산어촌 아동의 외국어능력 향상과 역량강화를 위해 고헌력 국제결혼 이주 여성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하여 외국어 말하기 능력을 함양하도록 함.	만5세 -12세 까지 농산어촌 지역의 유아 및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아동	1.방과후, 놀토 등의 시간에 주3회 1시간씩 단계별 외국어 교육 2.외국어 능력시험과 평가과정 3.말하기 경시대회	30천원	1년적용 원칙
라이프 코칭	학교 부적응과 비행 등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에게 자아정체감 형성과 진로 적성개발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기주도적인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함	1.학교부적응 청소년, 비행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청소년, 일반 청소년 2.기초생활 수급 및 차상위 가정의 청소년	1.주2회, 개별 및 집단 상담 2.진로 캠프 연2회 3.진로 적성검사 및 성격유형 검사 4.또래 상담 연계	40천원	1년 적용 원칙

사업명	목적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간
		3.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시평균소득 이하 가정의 청소년 4.일반가정 청소년			
인터넷 중독 및 약물 예방상담	인터넷 중독과 흡연, 알콜 등의 오남용 청소년과 부모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스스로 중독과 오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함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시평균 소득이하 가정의 청소년과 인터넷과 약물상담이 필요한 청소년과 부모	1.주1회 상담과 주1회 교육 2.부모상담 월1회 3.중독과 약물 오남용을 평가하는 진단검사 4.자조모임 지원	40천원	6개월-1년간 적용
청소년 다시서기 아카데미	취약계층의 청소년과 비행 또는 부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좌를 통해 인식변화와 자아 정체성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시평균 소득이하의 청소년 일반 청소년	1.주 1회 인문학 강좌와 집단활동 2.년 2회 인문학 캠프 3.월 1회 자조 모임 4.MBTI, 자기효능감, 진로정체성 등의 검사	40천원	1년 적용 원칙
국제결혼 여성 멘토의 다리 놓기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을 원조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여 순조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리더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함.	결혼이주여성	1. 1:1 멘토(mentor)와 멘티(mentee)를 연결 (출신국가 배려) 2.주 1회 방문, 상담, 자녀양육등 상담 3.월 1회 멘토링의 날, 집단교육과 토론 4.사례회의(전문가 및 가족참여)	35천원	1년 적용 원칙
맞춤형 스포츠 서비스	경로당에 정기적인 스포츠 배우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 또는 일반 노인	1.개인별 운동처방과 운동지도 2.기초체력 평가	20천원	1년 적용 원칙
인권 감수성 코디네이터	청년실업자와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취업수요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이 우리사회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학교현장에 교육과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원조함.	1.일자리양성대상 ; 청년실업자, 시민단체 활동가, 경력단절 여성 2.서비스이용대상 ; 다문화 및 장애 인가정 아동, 일반 아동 및 청소년	인권교육, 인권캠프, 인권감수성 훈련	20천원	1년 적용 원칙
삶의 안내자 파송 서비스	사회서비스에 상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파견함으로써 취약계층과 일반인의 상담욕구를 충족하고 분야별로 상담 및 치료효과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원조함	1.일자리양성대상 ; 청년실업자, 대졸미취업자,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2.서비스이용대상 ; 아동 및 청소년, 한부모 가정 및 가족	1.취약계층의 아동 및 청소년 상담 2.성폭력 피해아동 상담 3.이혼상담, 부부상담, 가족상담	40천원	

사업명	목적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 내용	서비스 가격	서비스 기간
사례관리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품질향상과 효과증진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함	1.일자리양성대상 ; 미취업 사회복지자 격증 소지자(2급이상) 2.이용대상 ; 지역 사회 투자서비스운 용기관 및 서비스 이용개인과 가정	1.서비스 점검, 연계, 평가 및 조정 2.사례회의 및 자문 3.담당인력 및 서비스 제공자 교육	20천원	
다문화 가정 멋진 남편 교실	국제결혼 남성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부부관계와 결혼 생활을 지원하는 토달서비스 제공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역량강화에 기여함	국제결혼 남성	1.배우자의 모국어. 문화. 규범에 대한 교육 2.대화법, 부부상담, 자녀양육 지원 3.자조 모임	30천원	1년 적용 원칙
봉사하는 리더	정부지원과 사회적 서비스 대상인 취약계층 아동과 청소년에게 타인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아동청소년의 봉사의식 강화와 섬기는 리더로서 자기유능감을 증진하도록 함.	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의 초,중,고, 대학생 사회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시 평균가계소비소득 수준 이하 가정의 초,중,고,대학생	1.체험봉사 현장제공 2.체험수기 작성 3.리더십 양성교육 4.상당 및 교육	30천원	1년 적용 원칙
마주 이야기	시설 및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장애아동에게 방문서비스를 통해 이야기 나누기, 책임어주기, 놀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아동과 부모, 가정을 지원함	5세-10세 장애아동과 부모	1.주1회 1시간씩 방문 2.이야기, 책임어주기, 놀이지도 3.부모상담, 양육지도, 정보제공	30천원	1년 적용 원칙
아름다운 소동! 한마음! 한 세상!	가족구성원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수화지도 및 통역 등의 서비스를 제공	청각장애인과 가정 특수학교 교사 및 행정담당 인력	1.방문지도 2.수화교육 및 통역 3.상담 및 일상생활 지원	30천원	
국제결혼 원스톱 지원 센터	국제결혼가정과 결혼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서비스기관을 설립하고 결혼과 적응의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1.국제결혼 희망자 2.국제결혼 예비부부 3.국제결혼 가정	1.국제결혼의 소개와 준비 과정 지원 2.결혼적응을 위한 지지서비스 제공 3.결혼과정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4.이혼상담	30천원	
아이 키움! 행복 키움!	여성일자리 창출하고 육아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친환경 소재의 육아용품 및 이음식 지원	1.기초생활 및 차상위계층의 출산 가정 2.다문화 가정 3.미혼부모 가정 4.맞벌이 가정 5.기타 서비스가 필요한 일반가정	1.아토피 예방을 위한 세제, 의류 및 신생아용품 제공 2.세탁물 관리 서비스 3.이음식 제공	200천원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제 2 절 정책제언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들은 투자사업 자체와 바우처방식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질에 있어서도 49.1%가 기대했던 것보다 만족하고 있고, 80.5%가 서비스 신청기간이 끝나도 또 이용하고 싶다고 함으로써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비교적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망 또한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하여 전북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을 보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망하면서 전북의 지역사회 여건분석과 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결과에서 제시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관하여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여건변화와 복지욕구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로의 편제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의 건강 및 복지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있다. 복지욕구는 다양화와 양적인 확대에서 머물지 않고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의 향상을 요구하는 욕구가 증대되고, 복지수요의 방향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으로 이동함과 동시에 시혜적 복지보다는 권리로서의 복지가 강조되고 있다.

더구나 경제구조의 변화와 사회보장 미흡 등으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소외 계층만이 아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정책 요구가 높아지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 또한 다양화되고 개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의 급속한 진행과 만혼, 혼인을 하락과 이혼율 상승, 독거노인 증가로 1인 가구의 급증현상을 보이면서 보육서비스와

노인요양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복지전달체계도 중앙집중식과 칸막이식에서 지방화와 개방화로 개편되고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경쟁체계가 도입되면서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과 사회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복지사업의 지방이양과 함께 지역실정과 주민욕구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인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복지예산의 지방비 투자확대 요구 등 지자체의 복지역량강화와 지방화 추세가 가속될 전망이다(전라남도, 2010).

이와 같은 사회복지 전망 속에서 전라북도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다수의 복지제도 도입 등 복지예산 확대와 새로운 정책수립 등 사회복지에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정작 도민들의 복지체감도와 만족도는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 각 지자체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국비지원액에 대응하는 시·군비 지원액을 늘리고 있다.¹⁶⁾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진단과 시사점

1)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 미흡

전북지역의 사회서비스 분야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로 그 수요가 급증하나 공급이 부족하며, 경제사회 발전수준에 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가 미흡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전국적으로 공공 복지체계가 소득보장 위주로 확대되어 사회서비스 발전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북지역의 사회복지분야 서비스는 저소

16) 전라북도 시군에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투자한 예산은 2007년 4억3,582만7,000원(국비 12억5,980만4,000원), 2008년 5억5,690만8,000원(국비 16억5,408만원), 2009년 6억2,658만9,000원(국비 18억9,312만2,000원), 2010년 8억5,002만3,000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득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 지원에 치중하고,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보편적 서비스는 취약한 실정이다. 보편적 서비스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사회투자형의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며, 특히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방문보건·정신건강, 만성병 관리 등 공공 보건의료분야를 비롯해서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는 사전 예방적 투자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서비스 시장 미형성

(1) 서민·중산층의 낮은 구매력 등 유효수요 부족

사회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저소득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서비스 구매력이 크게 부족하고, 잠재수요가 큰 서민·중산층에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체계가 미비하고, 구매의사와 능력이 충분한 상위 소득계층의 경우 서비스 정보 부족 및 품질에 대한 신뢰 미흡으로 서비스 구매에 소극적이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유효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지역개발형 사업은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사업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병행하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중산층의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써 원칙적으로 전국가계평균소득 이하에 대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대상자 폭을 대폭 확대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보편성, 수요자 중심, 복지분권 그리고 사회서비스 산업화 등의 정책가치들이 드러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 가능 폭을 넓히기 위해 가격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다양한 본인부담금을 차등 설계하여 예산 총액을 관리하는 새로운 정책관리 방식이 개발되어야 한다.

전북지역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서비스 제공 대상이 최빈곤층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광범위한 인구 층으로 확대하여 사회서비스 제공방식의 효과를 높일 뿐만 아니라 사회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미래에 대한 사회투자적인 성격을 가미한 예방적 접근의 복지확대가 필요하다.

(2)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공급자 형성 여건 미흡

공공의 재정지원이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인건비 등 관리운영비 보조 형태로 이루어져 수요자 욕구 반영이 어렵고 시장이 창출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른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시설과 인력 등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창출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라북도의 농촌지역은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이 한정되어 있고 이용자 또한 적어서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미비 및 전문인력 등 효과적 전달체계 미구축

사회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 또한 사회서비스의 합리적인 시장 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가 품질 표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하고 새로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는 자격제도가 발달되지 못했으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에 투자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전북지역은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고, 서비스 내용에서도 전문성보다는 1차적 복지수준에 머물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산업화를 향한 조건: 복지 관점에서 시장 관점으로

정부는 사회서비스 정책에서 사회기반 확충 뿐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와 산업활성화 효과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층 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비영리성을 강조하였던 전통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제에서 영리성 혹은 이윤과 일자리 가치가 정착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성을 표방한 지역개발형 바우처 사업은 지자체와 제공기관 담당자들에게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상당히 높이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아직 지자체와 국민들에게 사회서비스 산업에 대한 정책관점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시장과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해결

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시장에서 상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적정 수준에서의 가격-품질 묶음이 개발되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시장조건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상품 품질관리와 경쟁 시장에서 역량있는 공급자들이 육성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복지의 관점이 아닌 사회서비스 시장의 관점에서 현재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자부담을 납부하면서도 소비의사가 있는 실질적인 시장 수요자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요 활성화 정책이 요구된다.

이제까지 정부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표준화된 사업운영과 중앙의 집권적 관리 통제라는 전통적인 정책운영 수단을 활용해왔으며, 이는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건전한 공정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장관리정책 수단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전북지역의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시장화·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밝힌 2011년 유망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전북지역의 특성과 시·군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강화

분권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원구성과 사업운영에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자체의 사업운영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서비스의 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과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간 상호학습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지역개발형 바우처사업은 지자체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어 중앙집권 방식에서 발생하는 과잉복지 혹은 과소복지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사업개발 및 마케팅 역량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재원 지원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사회서비스의 지역 격차라는 새로운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전국적으로 보면, 지자체의 선호에 따라 사업들이 매우 다양하고 지역별로 평균 이용률이나 평균가격 그리고 자부담 수준에서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는 사회복지 기반이 취약한데 비하면 다른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을 개발해서 운용해왔지만,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지고 서비스의 방향과 수준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는 등 시·군의 사업운용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제 2 절 정책 제언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수한 욕구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적 방식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확대라는 세계적인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아이디어를 통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창출하고, 품질향상과 경쟁을 통해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추구하는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보편적 서비스권 확대,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의 목표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언한다.

1. 제도 보완 및 기구의 필요성

1) 지자체 역량 강화

(1) 지원 정책 및 전문성 강화

① 도·시·군 공무원 역량 강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들은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의 수요를 맞춤형 복지를 통하여 대응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일반적인 국고 보조사업과 달리 지자체의 선택을

존중하는 새로운 복지분권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¹⁷⁾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의 비용과 내용 그리고 제공기관에 대한 사항들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스스로 설계·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재량이 부여됨으로써 지자체별로 사업운영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도 지자체의 관심 및 담당자의 역량, 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역간 편차 등에 시군 간에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 시행 사업수에서 많게는 17개에서부터 적게는 5개까지 최대 12개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설문조사와 전문가 집단 면접에서도 확인되었다. 지역투자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재원확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 담당공무원의 인식개선과 전문성 강화, 품질향상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으며, 더 나아가 사업이 잘 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공무원·제공기관 담당자들의 홍보 및 열의 부족을 사업의 비활성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② 전북도의 역할 강화: 재원 마련과 사업 개발, 시군 조율

전북도민들은 또한 전라북도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국비에 시군 재정으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의 질과 이용자 부담금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전북도가 이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전라북도가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주기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전 도적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개발 경험이 적은 지역에서 서비스를 개발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일종의 ‘표준프로그램 모델’을 도 차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 또는 시군이 공동으로 사업을 개발하고 서비스 가격이나 본인부담 비율, 서비스 수준 등을 관리하는 것이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성

17) 대부분의 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에서는 중앙정부가 서비스의 비용(가격)과 내용(품질) 그리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방식 등에 대하여 세세하게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적으로 표준적으로 적용한다. 이에 따라 사업수행 과정에서 지자체의 재량 여지가 협소하여 지역실정에 상관없이 서비스가 과소 혹은 과다 공급되는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하고 지방행정에서 필요이상의 행정관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화를 가져오는 한 방안이다. 전북도가 중앙부처의 사업방향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로 다양한 사회서비스들을 설계하고 복지취약지역에 도비와 시군의 지방비 부담을 통하여 좀 더 적합한 서비스를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원기구·조직 구축: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사회 수요에 맞춘 국가 보조사업으로, 지자체의 역량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사업규모와 활성화 정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와 군산시에만 조직되어 있는 사회서비스 전담 행정조직을 전라북도 내 시군 지역에 설치한다면 보편적인 복지가 확대되고, 주민의 복지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역서비스관리센터 또는 지원단과 같은 전문, 자문기구 설치가 요망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는 사업의 품질과 성과관리에 필요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과지표를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서비스 정책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서비스관리센터는 컨설팅 기능을 하는 외에 유관 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거점역할을 해야 한다. 전북지역에서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지역 내 시민단체, 공무원, 학교, 복지관 등 유관 기관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어 있다.

이밖에 현재 전라북도에서 시행중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사나 치매 또는 자활 사례관리사와 같이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사를 배출하여 시군에 배치하는 것도 사회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대안으로 여겨진다.

(3) 정부의 역할 조정 및 개선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사업 지속기간의 불투명으로 인하여 제공기관이

나 서비스 이용자 그리고 지자체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예산 총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점, 기존사업에 대한 기득권을 인정하고 남아있는 가용 자원만으로 신규사업을 심사 승인한 점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공식화된 정부 간 복지관계로 정착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의 분절적이고 일시적인 특수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공모신청과 유사한 형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우수사업의 경우 3년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공기관이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통한 역량을 축적하고, 지속사업을 통해 중산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낙후 지역에 대하여 다른 관할구역의 시설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바우처 가격을 달리 설계하여 원가보상을 높여 다른 지역 복지기관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거나, 민간 복지기관이 아닌 (지역 내) 다른 유사기업(예: 농협, 축협, 우체국, 편의점 등)에서도 사회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격규제를 완화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이재원, 2008).

2) 본인부담금 경감으로 보편적 서비스권 확대

서비스 현장에서는 서비스가 필요한데도 본인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결연 후원이 서비스 활성화의 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력이 열악하여 시·군비 부담 능력이 없는 낙후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특례조치를 통하여 100%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거나 민간기업의 후원금 등을 시·군비 부담으로 대체 인정하는 특례를 허용하는 등과 같은 예외적인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한다(이재원, 2008).

특히 농촌지역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경우 차상위계층의 노인들도 본인부담금 때문에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나 노인들을 위한 부담금 경감조치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등은 본인부담금을 높인다고 해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이

용자가 많고, 이용을 원하는 부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므로 각 해당 제공기관들이 먼저 시군과 협의를 통해 예산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업별 재원마련 방식을 다양화 하거나 소득구간별 본인부담금을 차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1) 제공기관의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2010년 현재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은 72개소로, 조사결과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의 적극성 정도에 따라 서비스 품질과 이용자 만족도가 달랐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의 38%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차상위층 이상의 이용자들은 서비스의 질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공기관들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지역 제공기관들이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경쟁력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점 등은 서비스 발전에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인프라 확충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설문조사와 전문가 인터뷰에서 제공기관의 다양화, 바우처 수단의 활성화,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기관 간의 경쟁, 실무역량 지원, 적극적인 홍보, 사업방식의 다양화 등에 관한 필요를 언급하였듯이 기관의 역량과 인프라에 대한 발전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공기관 간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향상이 더 많은 수요자와 제공자를 창출하고 괜찮은 일자리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2)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능동적 복지의 구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지원과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가장 높다.

전주와 김제, 부안, 진안 등에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제공기관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경우 대우나 여건에 만족하고 있으며, 수입화(시장화)할 수 있는 여지가 높기 때문에 이들 제공기관에서는 2년 이상 경력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한 시점이다. 이 ‘뽀뽀(FUN FUN)한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은 전북도의 시군개발 사업으로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도시형과는 달리 사교육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이용자와 한번 연결되면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설문 결과를 보면 수요자(여성/아동)와 공급자 모두 여성 비율이 높은데, 이는 사회서비스 분야를 비롯한 여성의 사회참여가 더 활발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 잠재인력인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 확대한다면 고용 창출과 인력의 전문성을 현재보다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돌봄서비스가 갖는 파급효과의 한 축은 여성이 대부분인 일자리를 대량 창출할 수 있을 것이기에 유사사업을 하는 기관들과의 협력사업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3. 사업 개발과 품질 향상

1) 지역특성에 맞는 서비스 개발

(1) 지역특성 감안한 사업 선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욕구를 수용하고 특성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계획과 채택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제도상의 문제와 지역의 한계점

들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현실과 욕구 그리고 자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가 개발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되고 지역의 특성이 인정되는 심사제도, 자원이 희소하거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권역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전북지역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도내 시군에서 보건복지부에 사업을 응모하기 전에 1차로 전라북도에서 시군 사업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전라북도가 각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조율하는 것과 함께 중앙을 상대로 설득력을 가져야 한다.

(2) 다문화가정 아동 역전현상에 대비한 사업 발굴

도내 농촌지역의 일부 면단위 지역에서 일반가정 아동에 비하여 다문화가정 아동 비율이 급증하면서 일반가정 아이들이 오히려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¹⁸⁾ 따라서 진안군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중에는 다문화가정 아동대상 사업을 하면서 일반 저소득층 아동들을 포함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만간 다문화가정 아동이 일반가정 아동수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도시형과 농촌형 맞춤형 사업, 청소년 대상 사업발굴

방과 후 학교 돌봄서비스는 도시지역 수요가 높는데 비하여 농촌지역에서 활성화 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확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표 6-2>에서 보여 주듯이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들과 농촌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다른 것

18) 전라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10학년도 전라북도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1학년생은 293명으로 전체 1학년생 1만8,042명의 1.6%를 차지하고 있지만, 장수군 14.6%를 비롯하여 순창군 7.8%, 임실군 6.9%, 무주군 6.5% 등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정 아동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시와 농촌 모두 청소년 대상의 상담서비스 수요가 많았지만 청소년 대상의 사업이 부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의 멘토링서비스, 진로탐색, 맞춤형 직업관련 체험활동 등 전략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밖에 장애아동의 정신건강지원서비스, 장애인 대상 야학서비스 등 서비스 이용 대상별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표 6-1〉 전북지역 도시와 농촌 타깃 서비스

구분	도시형	농촌형
교육형태	개별 방문	그룹형 모형
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 조손가정 등 취약계층
장소	복지기관	교회, 마을회관
대상	특수아동, 청소년	일반아동 방과 후 활동 노인, 다문화가정

〈표 6-2〉 전북지역 도시와 농촌 이용자가 원하는 대상별 서비스

구분	도시형	농촌형	비고	
			수요자	공급자
아동	방과후 보육서비스	문화체험 서비스	통합교육서비스	보건진료서비스
장애아동	돌봄, 재활심리치료	재활심리치료, 특수교육	통합교육, 성교육상담	장애용품지원, 놀이치료
청소년	학교사회복지 특기적성지원	상담, 폭력예방, 비행예방	흡연예방 서비스	전문기술습득, 성교육
여성	자녀돌봄 서비스	직업능력개발, 자기개발	이야기들어주기 서비스	생산적인 취미활동, 직업능력개발
노인	돌봄서비스, 일자리	돌봄서비스, 건강관리	병원입원 간병서비스	놀이문화개선, 생활체육, 노인학대예방
특별가정	문화학습, 자녀돌봄	방문학습지도, 자녀돌봄	탈북부모의 사회화	일자리지원, 가족대상 서비스

〈표 6-3〉 복지서비스가 가장 시급한 분야(도시형, 농촌형)

(단위: %)

구분	도시형			농촌형			합계	순위
아동	20.0	10.4	30.4	10.1	7.8	17.9	48.3	5
장애인	15.8	11.5	27.3	10.1	10.4	20.5	47.8	6
청소년	20.0	24.0	44.0	19.0	22.1	41.1	85.1	2
여성	10.5	10.4	20.9	17.7	13.0	30.0	51.6	4
노인	11.6	10.4	22.0	15.2	16.9	32.1	54.1	3
가족(다문화, 조손, 한부모, 특별가정)	22.1	28.1	50.2	27.9	28.6	56.5	106.7	1
기타		5.2	5.2		1.2	1.2	6.4	7
합계	100	100		100	100			

2) 맞춤형 서비스 개발

(1) 생애주기별 서비스 개발

지역사회투자서비스의 욕구를 대상에 따라 조사한 결과 아동의 경우에는 보육(돌봄), 방과 후 보육, 아동안전, 방과 후 교육 순의 욕구를 나타냈다.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재활심리치료, 보육, 특수교육, 활동보조 및 이동편의 순으로 욕구가 있었다. 청소년은 상담, 학교사회복지, 영어학습지원, 폭력 예방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자기 개발, 직업능력 개발, 고용지원 순의 욕구를 나타냈다. 노인은 노인 일자리, 돌봄, 건강관리, 재가서비스 순으로 욕구가 표현되었으며, 특별가정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문화 학습, 직업능력 개발, 방문 학습의 욕구를 나타냈다.

이러한 욕구와 전라북도의 특성을 반영하여 생애주기, 일자리, 인재 양성과 사회 통합에 맞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2) 유망서비스 중점 육성으로 이용자의 선택권 향상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징은 지역의 복지서비스 환경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데 있다. 이 사업에서는 앞으로 잠재 수요가 크지만 공급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로서 산업화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를 선정, 중점 투자할 필요가 있다.¹⁹⁾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을 형성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되, 단기적으로는 보건복지부가 2011년 중점사업으로 밝힌 인적자본 개발(아동발달지원), 건강투자(노후생활지원) 등 사회투자적 성격의 사업을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전문인 양성 사업

지역의 복지 유관 기관과 시설 등에서 라이프 코칭, 은퇴후 생애설계 분야 등에서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우처를 통한 전문인력 양성작업은 자격증 취득자들이 지역의 전문서비스 제공자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전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²⁰⁾

부산광역시와 광주광역시는 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은퇴후 고령자생애설계서비스와 노인생애경력조연자 양성과정을 각 4개월간씩 시행(은퇴후 고령자생애설계서비스는 총 88만원 중 본인부담금 8만원, 노인생애경력조연자 양성과정은 총 96만원 중 본인부담금 16만원)하였으며, 이들 교육수료생들이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다른 바우처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 보건복지부는 2011년을 겨냥한 10대 유망사회서비스추진방향 설명회(2010. 9. 15)에서 10대 유망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1, 아동발달지원사업- 아동발달 지원, 아동정서발달 지원,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 인터넷·게임중독 아동 치료 2, 노후생활지원사업- 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돌봄휴양서비스 3, 장애인재활지원사업-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4, 돌봄·가족지원사업-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케어서비스 등을 선정, 발표했다.

20) 우석대학교 아동발달지원센터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청년사업단지원사업을 통하여 2009년과 2010년 <취약계층아동 발달지원서비스>를 진행하면서 중재전문가 20명을 양성, 청년취업 효과와 함께 취약계층의 발달지체 영유아들의 심신발달을 돕고 있다.

4. 촘촘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결론적으로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은 서비스 제공내용과 방식에서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질 때 도민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지고, 선택권이 향상됨으로써 삶의 질이 높아지고, 서비스를 산업화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6-4〉 촘촘한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위한 개선방향

제공 내용	대상	보편성 확대	소득: 서민층 겨냥 계층: 청소년·장애아동(도시) 여성(농촌)
	프로그램	전문성 제고	인재양성: 전문인력 배출 활용 생애설계 등 질 높은 프로그램 운용
		지속률 제고	제공인력의 고용 안정 이용자 만족도 향상
제공 방식	사업 개발	도, 시군 단위 공동개발	복지사각지대 해소 시장성: 제공기관 간 경쟁 이용자 부담금 감소
	전북도 역할	도비 지원	시군 복지전달체계 효율성 제고 사업 선정률 향상 등 변화
	기구·조직	일자리 창출 제공기관 수준 향상 복지만족도 제고	시군 행정조직 전담기구 설치 도 단위 지역사회서비스관리센터(지원단) 설치 시군별 사회서비스 사례관리자 배치 민·민, 민·민·관 협력네트워크 결성



참고문헌

참고 문헌

- 강혜규, 2008, 「사회서비스 확대정책과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상황과 복지
_____, 2008, 「사회서비스정책과 고용창출정책」, 보건복지포럼
- 김연명, 2007,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사회복지정책
- 김영민 외, 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 지자체 행정관리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인하대 산학협력단
- 김용득, 2009,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성공회대학교
- 김윤수 외, 2007, 「사회서비스 다양화에 따른 서비스이용 현황조사- 서울시 3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연구
- 김인, 2009, 「사회서비스 바우처프로그램의 효과성 및 고객만족도 영향요인- 산모신생아도우미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컨퍼런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 김진, 2005, 「공공부문 제공의 효율성에 대한 일고: 인프라-서비스 구조를 중심으로」,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김혜원 외, 2006, 「사회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남찬섭, 2008, 「한국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의 의미와 평가- 바우처 사업의 사회적 맥락을 중심으로」, 상황과 복지
- 노대명, 2008, 「한국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보건복지포럼 138호
- 박정호, 2007, 「한국 바우처 사업에 대한 소고」, 사회복지리뷰 제12집
- 배득중 외, 2008, 「전자바우처 제도에 관한 선진국 비교연구- 미국, 영국, 호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
- 배화숙, 2007,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바우처제도 도입의미와 과제」, 사회복지정책 제31집, 사회복지서비스관리센터, 2008,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품질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방안」, 2009,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의 내실화 및 확대 방향」, 사회복지서비스 바우처 시행 2주년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 서재호, 2008,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성원칙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
- 양난주, 2009, 「노인돌보미바우처 정책집행분석- 선택과 경쟁은 실현되는가?」, 한국사회

복지학

- 이재원, 2008,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대명문화사
- _____, 2008,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과 품질관리」, 한국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서비스토론회
- _____, 2009,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운영체계 진단과 개선방안」, 사회서비스관리센터·한국지방정부학회
- _____, 2009, 「사회기반 확충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특성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이진면, 2008, 「사회서비스의 산업적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정책의 성과와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서비스토론회
- 정재훈 외, 2009,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서울여자대학교
- 채혜선 외, 2009, 「농촌지역 노인돌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농촌지도와 개발
- 최성은 외, 2007, 「바우처 제도의 효과제고를 위한 평가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옥금, 2006, 「괜찮은 일자리에 관한 탐색적 연구-개념정의 및 실태파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 최재성·김용득·이혜경, 2000, 사회복지시설 이용권제도 모형개발: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보건복지부
- 한상미 외, 2009,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사회서비스 공급유형간의 관계- 지역개발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 경기도, 2010, 2010년 복지건강국 주요 업무계획
- 전라남도, 2010, 「2010사회복지 비전 및 추진방향, 제1차 지역사회복지계획」, 201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 전라북도, 2007, 전라북도 지역사회복지계획 2007~2010
- 전라북도교육청, 2010, 학교급별 연도별 학년별 다문화가정 학생 현황, 내부자료
- 충청북도, 2008,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신규사업 발굴 연구
- 보건복지가족부, 2008, 2008년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 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보건복지가족부, 2010, 2010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 보건복지부, 2010, 10대 유망사회서비스 추진방향 설명회

통계청, 2009, 2, 2008 고령자 통계

통계청, 2009. 1, 한국의 사회동향2009

통계청, 2009, 2, 2009 한국의 사회지표

Jthink 2010-PR-07

**전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개발형)
신규사업 발굴 연구**

발행인 | 원도연

발행일 | 2010년 12월 31일

발행처 | 전북발전연구원

560-014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57(중앙동 4가 1)

전화:(063)280-7100 팩스:(063)286-9206

ISBN 978-89-6612-013-0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전북발전연구원에 속합니다.

